

舍巖鍼法の校訂에 關한 研究

I. 緒論	18
II. 資料 및 研究方法	20
III. 本論 및 考察	20
序文 「經濟要訣」五行序	21
「經濟要訣」第一章. 中風	23
「經濟要訣」第二章. 傷寒	33
「經濟要訣」第三章. 天地運氣	39
「經濟要訣」第四章. 中暑	44
「經濟要訣」第五章. 濕症	46
「經濟要訣」第六章. 燥症	49
「經濟要訣」第七章. 火熱	50
「經濟要訣」第八章. 鬱門	53
「經濟要訣」第九章. 痰飲	57
「經濟要訣」第十章. 咳嗽	61
「經濟要訣」第十一章. 哮喘	63
「經濟要訣」第十二章. 瘧疾	64
「經濟要訣」第十三章. 痢疾	66
「經濟要訣」第十四章. 噎膈	70
「經濟要訣」第十五章. 能逆	72
「經濟要訣」第十六章. 嘔吐	74
「經濟要訣」第十七章. 吞酸	76
「經濟要訣」第十八章. 嘈雜嘔氣	78

「經濟要訣」	第十九章	腫脹	79
「經濟要訣」	第二十章	積聚	81
「經濟要訣」	第二十一章	虛損	84
「經濟要訣」	第二十二章	勞極	87
「經濟要訣」	第二十三章	霍亂	91
「經濟要訣」	第二十四章	泄瀉	93
「經濟要訣」	第二十五章	眩暈	95
「經濟要訣」	第二十六章	頭痛	98
「經濟要訣」	第二十七章	胃脘痛	102
筆寫本	第二十八章	腹痛	104
「經濟要訣」	第二十九章	腰痛	106
「經濟要訣」	第三十章	脇痛	108
「經濟要訣」	第三十一章	諸氣	110
「經濟要訣」	第三十二章	疝氣	115
「經濟要訣」	第三十三章	腳氣	117
「經濟要訣」	第三十四章	痛風	120
「經濟要訣」	第三十五章	痿症	123
「經濟要訣」	第三十六章	耳病	125
「經濟要訣」	第三十七章	目病	126
「經濟要訣」	第三十八章	口病	131
「經濟要訣」	第三十九章	喉病	134
「經濟要訣」	第四十章	齒痛	135
「經濟要訣」	第四十一章	鼻痛	137
「經濟要訣」	第四十二章	血症	141
「經濟要訣」	第四十三章	痔漏	143
IV.	結論		146

舍巖鍼法の校訂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學史學教室
金達鎭 金重漢

1. 緒 論

韓醫學에서 邪氣와 精氣의 虛實관계를 定義한 것은 「內經」에서 “邪氣盛則實，精氣奪則虛”¹⁾ “邪氣勝者，精氣衰也”²⁾라 한 것이 最初이며, “以調其氣之虛實，實則瀉之，虛則補之”³⁾로써 그 治法의 大綱을 提示했는데, 이것을 「難經」六十九難에서 “虛者補其母，實者瀉其子，當先補之，然後瀉之”⁴⁾라고 解釋했으며, 明代의 高武는 「鍼灸聚英」에서 相生關係에 따른 自經 五臟穴의 五行屬性에 따라서 取穴하는 自經補瀉法을 서술했고⁵⁾, 또한 張世賢은 「校正圖註難經」에서 相生關係에 따른 五臟穴의 取穴法을 他經格까지 擴大했다⁶⁾.

朝鮮時代 中期인 1644년 이후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舍巖鍼法은 陰陽五行의 원리에 입각하여, 臟腑의 虛實에 따른 鍼灸補瀉法을 相生關係 뿐만 아니라 相克關係까지 結合시키고, 여기에다 自經과 他經補瀉法을 결부시켜 臨床에 활용하도록 創始되었다.

- 1)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素問 通評虛實論篇 第二十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86.
- 2)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素問 玉機真藏論篇 第十九,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62.
- 3)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素問 三部九候論篇 第二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65.
- 4) 扁鵲原著 滑壽撰, 欽定四庫全書·難經本義 1卷, 北京, 商務印書館, p. 501.
- 5) 高武, 鍼灸聚英,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0, pp. 154~159.
- 6) 張世賢 註, 校正圖註難經 卷三, 鴻寶齋書局, p. 6, pp. 9~11.
- 7) 金達鎭, 舍巖鍼法の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1993, p. 69.

그러나 이 **舍巖鍼法**은 1900년 이전에 **活字化**시켜 출판된 적이 없어서 거의 250 여년 동안 **筆寫**로 그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論者**가 수집한 「**朴采堂鍼鑑**」⁸⁾ 「**鍼灸編**」⁹⁾ 「**五行鍼法書**(**舍巖鍼經**)」¹⁰⁾ 「**鍼灸要覽**」¹¹⁾ 「**經濟要訣合本·舍岩鍼灸篇**」¹²⁾ 「**舍岩鍼法資料集**」¹³⁾ 「**舍巖五行鍼法秘訣**」¹⁴⁾ 「**察病要訣**」¹⁵⁾ 등 여덟 가지의 **筆寫本**도 자기 조금씩 내용들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舍巖鍼法**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舍巖鍼法**에 관한 최초의 **活字化**는 1922년 **洪鍾皙**이 편찬한 「**經絡學總論**」¹⁶⁾이고, 그 다음은 비록 1973년에 출판되었으나 1924년에 완성된 **南采祐**의 「**靑囊訣**」¹⁷⁾이며, **舍巖鍼法**의 **筆寫本**들 가운데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그대로 혹은 복합적으로 **活字化**시켜 「**國文譯註舍岩道人鍼灸要訣**」¹⁸⁾ 「**舍巖鍼灸正傳**」¹⁹⁾ 「**舍岩鍼法體系的研究**」²⁰⁾ 「**太韓醫學·鍼灸篇**」²¹⁾ 등이 출판되었다.

그러므로 **筆寫本** 및 **出版本**들에 제각기 내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初學者**들이 **舍巖鍼法**에 **入門**하는데 많은 **障礙**가 되었다. 또한 **舍巖鍼法**을 실제 임상에 응용하기 위해서, **論者**는 가장 **原本**에 가까우면서 **舍巖**의 **原義**에 접근하는 통일된 **敎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本論題** **研究**에 착수했다.

8) 舍巖原著, 朴采堂鍼鑑, 權宰俊 教授 所藏, 趙世衡先生的 도움으로 求함.

9) 舍巖原著, 鍼灸編, 崔德禧院長 所藏, 趙世衡先生的 도움으로 求함.

筆寫者가 '1959年 5月 10日 筆寫'라고 했음.

10) 舍巖原著, 五行鍼法書(一名 舍巖鍼經), 崔鎮昌院長 所藏, 趙世衡 先生的 도움으로 求함.

筆寫者가 '1946年 11月 17日 寫'라고 했음.

11) 舍巖原著, 鍼灸要覽, 申大澈 院長 所藏.

12) 經濟要訣은 舍岩目錄, 芝山目錄, 柯陽目錄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舍岩目錄, 芝山目錄은 太韓醫學에서 同一하게 活字化했음. 東原 李廷來先生的 도움으로 求함.

13) 慶熙大 韓醫科大學 第35期 卒業準備委員會에서 「舍巖鍼灸正傳」, 名稱未詳의 筆寫本, 「舍岩鍼法體系的研究」 등 세 가지를 종합하여 편찬했음.

14) 舍巖原著, 李在元編, 舍巖五行鍼灸秘訣, 金東匹先生 所藏.

15) 舍巖原著, 察病要訣, 鄭吳泳씨 所藏.

16) 洪鍾皙, 韓國醫學大系 第39卷 經絡學總論,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p. 530~531.

「經絡學總論」은 1922년에 洪鍾皙이 撰한 것임.

17) 南采祐, 靑囊訣, 鍼灸要歌, 서울, 癸丑文化社, 1973, pp. 352~372.

이 책은 1973년에 출판되었으나 自序에서 「甲子 春二月(1924년)」이라 했고, 麻川 后人 卞榮晚의 序文에서 「丁卯 孟秋之月(1927년)」이라 했으며, 跋文에서 受業生 延安 畢判九가 「丙寅秋九 月上澣(1926년)」라고 했고, 그의 아들인 基元이 「歲在丙寅冬十月下旬(1926년) 不肖子謹識」라 한 것 등으로 볼 때 1924년에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18) 舍岩道人原著 李泰浩譯註,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 서울, 杏林書院, 1975年.

19) 黃廷學原著 鄭吳泳譯, 舍巖鍼灸正傳, 大邱, 先驅者出版社, 1986年.

20) 趙世衡, 舍岩鍼法體系的研究, 서울, 成輔社, 1986年.

21) 李廷來, 太韓醫學, 서울, 第一文化社, 1989年.

II. 資料 및 研究方法

朝鮮時代에는 「舍巖鍼法」에 關한 書籍이 活字化되어 出版된 적이 없고 筆寫本으로 傳해져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筆寫本의 내용 및 鍼灸 處方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論者는 「經絡學總論」, 「靑囊訣」, 「國文譯註舍岩道人鍼灸要訣」, 「舍巖鍼灸正傳」, 「舍岩鍼法體系的研究」, 「太韓醫學·鍼灸篇」 등의 活字本들과 「朴采堂鍼鑑」, 「鍼灸編」, 「五行鍼法書(舍巖鍼經)」, 「鍼灸要覽」, 「經濟要訣合本·舍岩鍼灸篇」, 「舍岩鍼法資料集」, 「舍巖五行鍼法秘訣」, 「察病要訣」 등의 筆寫本 가운데, 補瀉正勝法만 있는 「經絡學總論」, 活字化되었으나 譯註로 인해 原文을 비교할 수 없는 「國文譯註舍岩道人鍼灸要訣」, 生理·病理 부분이 없고 辨證施治만 있는 「靑囊訣」, 「舍岩鍼法體系的研究」 등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고, 筆寫本과 그 내용이 너무나 다르고 舍巖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흔적이 있는 「舍巖鍼灸正傳」도 제외했으며, 舍巖鍼法の 生理·病理 부분이 없는 「朴采堂鍼鑑」도 제외했다. 收集한 지역이 서울·大田·大邱·釜山등으로 각기 다르지만, 內容이 전체적으로 거의 一致하는 「鍼灸編」, 「五行鍼法書(舍巖鍼經)」, 「鍼灸要覽」, 「經濟要訣合本·舍岩鍼灸篇」, 「舍岩鍼法資料集」, 「舍巖五行鍼法秘訣」, 「察病要訣」 등 일곱 가지의 筆寫本을 綜合하여 檢討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 筆寫本 가운데 舍巖의 序文·醫論과 芝山の 序文·經驗編이 함께 수록된 「經濟要訣合本·舍岩鍼灸篇」을 근본으로 삼고, 나머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수록된 本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章마다 「鍼灸編」을 「鍼灸」, 「五行鍼法書(舍巖鍼經)」를 「鍼經」, 「鍼灸要覽」을 「要覽」, 「舍岩鍼法資料集」을 「資料」, 「舍巖五行鍼法秘訣」을 「秘訣」, 「察病要訣」을 「察病」 등이라 하고 總括 및 考察을 진행하되, 「內經」, 「醫學入門」, 「醫學正傳」,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등과 비교·고찰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내용의 일부를 修訂하는 방법으로 敎本이 될 만한 原文을 제시했다.

III. 本論 및 考察

序文. 「經濟要訣」五行 序

蓋聞天開地闢 肇分山川之氣, 人始物資 克配動靜之形. 東西日月 南北星辰, 兩儀妙運於龍書 五行并行於龜銘, 四象得路 八卦從令. 氣雖懸於白日 理必隱於玄冥, 由賢士之宜講 豈愚夫之敢醒! 夫氣賦於人者 有百骸九竅 形著於病者 有千邪萬豐, 筋骨

脈絡 變化無盡 生旺休囚 通行不停, 是故 古人卜補瀉之理 有其義而無其辭, 後哲著溫涼之書 傳於渭而行於涇. 黃岐試藥石之問答 華扁垂鍼灸之典形, 立君臣而佐使 能治火熱 激補瀉而溫涼 可救寒冷. 體作三才之棟樑 穴爲五行之門庭, 布一身之虛實 審七情之浮沈. 醫者意也 於心必應, 病者虛也 惟手是聆. 寒涼相升 由肺腎之黑白, 風火互動 自肝心之紅青, 濕長流於脾原 熱恒偏於胃局. 膽必生者小腸 脾可產者肺經 三焦散居 膀胱咸困, 引氣歸於任脈 二氣回合五行. 木母補於火子 心病自痊, 土官瀉於水臣 腎亡回懼, 抑西官之金氣 肝膽安穩, 洗東將之木賊 脾胃遐齡. 肝位東方 腎受生而肺受克, 心居南極 北受克而東受生, 相生者可補 相克者必捨, 虛者可補 實者可瀉, 信醫之病可見 好鬼之言莫聽.

「要覽」: 鍼灸之典形→鍼灸之典刑!氣歸於任脈→引氣歸於任督木母補於火子→木母補於子火

「鍼經」: 天開地闢→天地開闢古人卜補瀉之理→古人卜補瀉之法有其義→有其儀

鍼灸之典形→鍼灸之典型 激補瀉而溫涼→激補瀉而溫冷可救寒冷→可救寒冷之

惟手是聆→惟于是聆 寒涼相升→寒冷相昇引氣歸於任脈→引氣歸於任督

二氣回合五行→二氣會合五行 木母補於火子→木母補火子心居南鄉→心居南向

相克者必捨→相克者必瀉好鬼之言莫聽→好鬼之言莫聽焉

「鍼灸」: 序文이 없음「資料」: 序文이 없음「察病」: 序文이 없음「秘訣」: 序文이 없음

“天開地闢”: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다 “天開地闢”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天地開闢”이라 했는데, 이것은 “天地開闢”이라 해도 별우리가 없지만 「經濟要訣」과 「要覽」에서 “天開地闢”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古人卜補瀉之理”: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다 “古人卜補瀉之理”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古人卜補瀉之法”이라 했는데, ‘理’와 ‘法’을 行書나 草書로 쓸 경우에 서로 혼동하기 쉽다. 이것 역시 “古人卜補瀉之法”이라 해도 별우리가 없지만 「經濟要訣」과 「要覽」에서 “古人卜補瀉之理”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有其義而無其辭”: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다 “有其義而無其辭”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有其儀而無其辭”이라 했는데, 이것은 「經濟要訣」과 「要覽」에서 “有其義而無其辭”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華扁垂鍼灸之典形”: 「經濟要訣」에서는 “華扁垂鍼灸之典形”이라 했고 「要覽」에서는 “華扁垂鍼灸之典刑”이라 했으며 「鍼經」에서는 “華扁垂鍼灸之典型”이라 했다. 「辭源」에 의하면 ‘典刑’은 ‘常刑’ ‘舊法·常規’ ‘刑法을 관장하는 것’ 등이라 하면서 ‘舊法·常規’라는 뜻으로 쓰이던 것이 나중에 ‘模範·典範’의 뜻으로 확대되었고 ‘典型’으로 쓰기도 한다고 했다²²⁾. 「東亞漢韓大辭典」에 의하면 ‘典刑’은 ‘一定不變의 法(常刑)’ ‘古來의 法’ ‘刑罰을 관장하는 것’ 등이라 했고, ‘典型’은 ‘본보기’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型’ 등이라 했으며²³⁾, 玉篇과 辭典 등에서 ‘典型’이라는 말은 없다. 또한 ‘刑’은 ‘形’과 모양도 비슷하여 잘못 筆

22) 商務印書館 編輯部, 辭源 第一分冊,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4, p. 317.

23)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漢韓大辭典, 서울, (주)동아출판사, 1994, p. 201.

寫할 수 있고, ‘典刑’이라 한다면 ‘형벌을 관장하는 것’으로 誤認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鍼經』에서 ‘羣屬垂鍼灸之典型’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激補瀉而溫涼 可救寒冷” :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다 “激補瀉而溫涼 可救寒冷”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激補瀉而溫涼 可救寒冷”이라 했는데, 이것과 다음의 “寒涼相升”이라 한 것에서 ‘涼’을 모두 ‘冷’이라 했다. 그러므로 『經濟要訣』과 『要覽』에서 “激補瀉而溫涼 可救寒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惟手是聆” :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다 “惟手是聆”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惟手是聆”이라 했는데, 『鍼經』에서 ‘手’라고 한 것은 ‘手’를 잘못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經濟要訣』과 『要覽』에서 “惟手是聆”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寒涼相升” :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다 “寒涼相升”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寒涼相昇”이라 했는데, 연결되는 문장에서 “由肺腎之黑白”이라 하여 ‘寒’을 ‘腎’에 ‘涼’을 ‘肺’에 연계시켰고, 더구나 『鍼經』에서 ‘升’을 ‘昇’이라 한 것은 잘못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經濟要訣』과 『要覽』에서 “寒涼相升”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引氣歸於任脈” : 『要覽』과 『鍼經』에서는 다 “引氣歸於任督”이라 했으나 유독 『經濟要訣』만 “引氣歸於任脈”이라 했는데, 연결되는 문장에서 “二氣回合五行”이라 하여 두 氣(任脈의 經氣와 督脈의 經氣)가 五行에 會合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要覽』과 『鍼經』에서 “引氣歸於任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木母補於火子” : 『經濟要訣』에서는 “木母補於火子”라 했고 『要覽』에서는 “木母補於子火”라 했으며 『鍼經』에서는 “木母補火子”라 했다. 이것은 뒤의 “土官瀉於水臣”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要覽』에서 표현한대로 따른다면 『要覽』의 다음 문장은 “土官瀉於臣水”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土官瀉於水臣”이라 했으며, 『鍼經』에서 표현한대로 따른다면 『鍼經』의 다음 문장은 “土官瀉水臣”이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土官瀉於水臣”이라 했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木母補於火子”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心居南鄉” :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心居南鄉”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心居南向”이라 했는데, 발음이 서로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經濟要訣』과 『要覽』에서 “心居南鄉”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相克者必冷” :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相克者必冷”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相克者必瀉”라 했는데, 앞뒤의 문장에서 “相生者可補……, 虛者可補 實者可瀉”라 한 것으로 보아 『鍼經』에서 “相克者必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好鬼之言莫聽” : 『經濟要訣』과 『要覽』에서는 “好鬼之言莫聽”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好鬼之言莫聽焉”이라 했는데, 문장 끝에 ‘焉’이라는 어조사가 있던 없던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經濟要訣』과 『要覽』에서 “好鬼之言莫聽”이라 한 것을 따르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積속사와 積미사를 누락시켰거나 첨가시킨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序文인 ‘五行序’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蓋聞天開地闢 肇分山川之氣，人始物資 克配動靜之形，東西日月 南北星辰，兩儀妙運於龍巖 五行并行於龜銘，四象得路 八卦從令，氣雖懸於白日 理必隱於玄冥，由賢士之宜講 豈愚夫之敢醒！夫氣賦於人者 有百骸九竅 形著於病者 有千邪萬靈，筋骨脈絡 變化無盡 生旺休囚 運行不停，是故 古人卜補瀉之理 有其義而無其辭，後哲著溫涼之書 傳於渭而行於涇，黃岐試藥石之問答 華扁垂鍼灸之典型，立君臣而佐使 能治火熱 激補瀉而溫涼 可救寒冷，體作三才之棟樑 穴為五行之門庭，布一身之虛實 審七情之浮沈，醫者意也 於心必應，病者虛也 惟手是聆，寒涼相升 由肺腎之黑白，風火互動 自肝心之紅青，濕長流於脾原 熱恒煽於胃局，膽必生者小腸 脾可產者肺經 三焦散居 膀胱咸困，引氣歸於任督 二氣回合五行，木母補於火子 心病自痊，土官瀉於水臣 腎亡回懼，抑西官之金氣 肝膽安穩，洗東將之木賊 脾胃遐齡，肝位東方 腎受生而肺受克，心居南鄉 北受克而東受生，相生者可補 相克者必瀉，虛者可補 實者可瀉，信醫之病可見 好鬼之言莫聽。”

1. 「經濟要訣」第一章. 中風

風者 天地之正氣 山川之噓氣，在地之木 節序之春 人身之肝 病者之邪也。以此天氣濁而風動 地勢清而寒生，寒本腎水 風是肝木，是故體氣虛弱 風必傷肺 補陽金而瀉火，血脈衰殘 痿可損臟 溫陰土而平木，陽水偏枯 謂之半身不遂 可治鎮靜，風痺四肢不收 必診院丹，痿奄忽而不知 能治十宣，腰脚澀而如澀 宜通八邪，搥上大絡 搦下小節 應八卦而執症 察五行而治症。

“山川之噓氣，在地之木”：「要覽」에서는 “山川之噓氣，是故在天為氣 在地為木”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山川之虛氣，是故在天之氣 在地之木”이라 했으며, 「鍼灸」·「資料」·「秘訣」 등에서는 “山川之噓氣，是故在天之氣 在地之木”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다른 필사본에서 모두 ‘噓氣’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虛氣’라 한 것은 잘못 筆寫한 것이고, 「經濟要訣」과 「察病」에서 ‘山川之噓氣’와 ‘在地之木’ 사이에 ‘是故在天之氣’를 누락시킨 것은 잘못 筆寫한 것이 분명하다.

“在天之氣 在地之木 節序之春 人身之肝 病者之邪也”：「要覽」에서는 “在天為氣 在地為木 節序為春 人身為肝 病者為邪也”라 하여 ‘之’를 “爲”라 했고, 「鍼經」·「資料」에서는 “在天之氣 在地之木 節序之春 人身之肝 病者之邪也”라 했으며, 「經濟要訣」·「察病」에서는 ‘在天之氣’를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在天之氣 在地之木 在節序之春 人之肝 病者邪也”라 하여 ‘在’를 추가 ‘身’·‘之’를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天之氣 在地之木 節序之春 人身之肝 病者之邪也”라 하여 ‘在’를 누락시켰다. 다른 필사본에서 모두 ‘之’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之’를 “爲”라 한 것은 잘못 筆寫한 것이 확실하다. 원래대로 한다면 “在天之氣 在地之木 (在)節序之春 (在)人身之肝 (在)病者之邪也”라 해야 옳으나 ‘在天之氣’ ‘在地之木’ ‘節序之春’ ‘人身之肝’ ‘病者之邪’ 등을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鍼灸」에서 ‘在’를 추가 ‘身’·‘之’를 누락시킨 것과 「秘訣」에서 ‘在’를 누락시킨 것도 잘못 筆寫한 것이 분명하다.

“以此天氣濁而風動”：「鍼經」·「鍼灸」·「資料」·「察病」 등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하나 「要覽」에서는

“以此濁而風動”이라 하여 ‘天氣’가 누락되었고, 『秘訣』에서는 “以是天氣濁而風動”이라 했다. “天氣濁而風動”은 뒤에 연결되는 문장에서 “地勢清而寒生”이라 한 것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要覽』에서 잘못 筆寫한 것이고,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以此”라고 했으나 유독 『秘訣』만 “以是”라고 한 것도 잘못 筆寫한 것이다.

“是故體氣虛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故體氣虛弱”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是體氣虛弱”이라 하여 ‘故’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한 것이다.

“血脈衰殘 疼可損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血脈衰殘 疼可損臟”이라 했으나 『鍼灸』만 “血脈衰殘 寒可損臟”이라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天氣濁而風動 地勢清而寒生, 寒本腎水 風是肝木”이라 했고, 앞의 “體氣虛弱 風必傷腑”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疼’과 ‘寒’은 글자체가 비슷하여 行書나 草書로 쓸 경우 誤寫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鍼灸』에서 “血脈衰殘 寒可損臟”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溫陰土而平木, 陽水偏枯” : 우선 앞에서 “體氣虛弱 風必傷腑 補陽金而瀉火”라고 한 것은 ‘인체의 저항력이 허약해지면 風邪가 반드시 大腸腑를 손상시켜 金克木의 균형 상태를 이루지 못하므로 膽의 기능이 항진되어 膽實證을 일으키니 陽金(商陽穴·竅陰穴)을 補하고 火(陽谷穴·陽輔穴)를 瀉하리’라고 한 것이며, 여기서 “血脈衰殘 寒可損臟 溫陰土而平木”이라 한 것은 ‘血脈의 正氣가 衰殘해지면 寒邪가 脾臟을 손상시켜 土克水의 균형 상태를 이루지 못하므로 腎의 기능이 항진되어 腎實證을 일으킬 수 있으니 陰土(太白穴·太谿穴)를 補하고 木(大敦穴·湧泉穴)을 瀉하리’라고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要覽』에서 “溫陰土而平木, 偏枯”라 했고 『鍼經』에서는 “溫陰土而平木, 偏枯”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溫陰土而平木, 陽水偏枯”라 했고 『資料』에서는 “溫陰土而平木, 偏枯”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溫陰土而平陽水 偏枯”라 했고 『秘訣』에서도 “溫陰土而平陽水 偏枯”라 했으나, 『經濟要訣』·『鍼灸』·『資料』·『秘訣』 등으로 미루어 보면 분명히 ‘陽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溫陰土而平木, 陽水偏枯”라고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可治鎮靜” : 『鍼經』·『鍼灸』·『資料』 등에서 “可治三里”라고 했는데, 舍巖이 三里穴의 異名을 ‘鎮靜’이라 했으므로 『經濟要訣』에서 “可治鎮靜”이라 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痺四肢不收” : 『要覽』에서 “風痺倒懸 謂之四肢不收”라 했고 『鍼經』에서는 “風痺之應也 四肢不收”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風痺四肢不遂”라 했고 나머지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그런데 『東醫寶鑑·風』에서는 “中風大法有四”라고 하면서 “一曰偏枯 半身不遂, 二曰風痺 身無痛 四肢不舉, 三曰風懿 奄忽不知人, 四曰風痺 諸痺類風狀(千金)”이라 했는데²⁴⁾, 舍巖도 中風을 ‘偏枯’·‘風痺’·‘風懿’ 등으로 나누어 치료한 것으로 보므로, “風痺四肢不收”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必診脫丹”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必診脫丹”이라 했으나 『鍼經』·『資料』·『察病』 등에서는 “必診脫丹”이라 했는데, 발음이 같음으로 인하여 잘못 筆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必診脫丹”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懿奄忽而不知” : 『鍼經』에서 “風懿奄忽而不知人”이라 했고 『鍼灸』에서 “風懿奄忽而不知”라 했으며 『秘訣』에서 “風懿忽而不知”라 했는데, 이것은 원래 앞의 『東醫寶鑑』에서 말한 것처럼 “風懿奄忽不知人”²⁵⁾이라 해야 옳으나, “風痺四肢不收 必診脫丹, 懿奄忽而不知 能治十直, 脾啣溢而如浪 宜通八邪.”라 하여 六言節句와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懿奄忽而不知”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24) 許浚, 東醫寶鑑·風, 서울, 南山堂, 1976, p. 360.

25) 上揭書

「脾唧溢而如浪」: 「鍼灸」에서는 「脾唧溢而如浪」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流涎如浪」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脾唧涎泄而如嗟浪」이라 했고 나머지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는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風非四肢不收必診腕丹, 懿奄忽而不知 能治十宣, 脾唧溢而如浪 宜通八邪.」라고 하여 六言節句와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脾唧溢而如浪」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摠上大略」: 「要覽」에서는 「惣上大略」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總上大略」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摠上天略」이라 했고 나머지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는데, 「要覽」에서 「惣」이라 한 것은 「德」의 譌字이니 발음이 같음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고, 「資料」에서 「總」이라 한 것은 서로 통할 수 있으나 「經濟要訣」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察病」에서 「大」를 「天」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繼下小節」: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繼下小節」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繼下少節」이라 했는데, 「繼下小節」은 앞의 「摠上大略」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繼下小節」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應八卦而執症」: 「鍼經」에서 「應八卦而執症」이라 하여 「執」을 「熱」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해 誤寫한 것이다. 「資料」에서 「應八綱而執症」이라 했는데, 원래는 「八卦」라 하지 않고 「八綱」이라 해야 옳을 것 같으나, 앞의 序文 다음의 穴에 대한 異名을 周易의 卦名으로 命名한 것²⁶⁾ 第七章 火熱에서 「激旺水而制離」라 한 것 第九章 痰飲에서 「通五行之經絡 補母寧子, 論八卦之道路 君聖臣賢」이라 한 것 第二十三章 霍亂에서 「霍八路 補瀉五行」이라 한 것 第三十六 耳病에서 「北水之一陽 天一水 南火之二陰 地二火」라 한 것 등과 같이 舍巖은 周易의 用語를 잘 사용했으므로 「應八卦而執症」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筆寫할 때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舍巖鍼法의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킨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一章 中風」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風者 天地之正氣 山川之嗟氣, 是放在天之氣 在地之木 節序之春 人身之肝 病者之邪也. 以此天氣濁而風動 地勢清而寒生, 寒本腎水 風是肝木, 是故體氣虛弱 風必傷腑 補陽金而瀉火, 血脈衰殘 寒可損臟 溫陰土而平木, 陽水偏枯 謂之半身不遂 可治鎮靜, 風痺四肢不收 必診腕丹, 懿奄忽而不知 能治十宣, 脾唧溢而如浪 宜通八邪, 摠上大略 繼下小節 應八卦而執症 察五行而治痊.」

言語蹇澁 半身不遂心虛天重(完骨)瀉 炎庭(太衝)正 大敦補 太白瀉

「要覽」, 「鍼經」, 「鍼灸」, 「資料」, 「察病」, 「秘訣」: 「經濟要訣」과 동일함

口眼喎斜 肝實鎮靜(三里)迎 隨丘(陽輔)正 魁瀉(完骨)斜 然谷瀉 少海補

「口眼喎斜 肝實」: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口眼喎斜 肝實」이라 했으나 「察病」과 「秘訣」에서는 「口眼喎

26) 金達鎭, 舍巖鍼法の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1994, pp. 53~54.

斜 肝虛"라고 했는데, 中風의 提綱에서 "溫陰土而平木, 陽水偏枯"라 한 것을 "溫陰土而平陽水, 偏枯"라 한 것 및 이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類似性과 마찬가지로 「察病」과 「秘訣」, 筆寫本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肝實"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心肝俱實證'으로 보아 少府補(心勝格) 然谷瀉(肝勝格 O變形)²⁷⁾의 治법을 사용했는데, 이것 역시 위에서 "言語蹇澁 半身不遂 心虛"라 했으나 실제로 '心腎俱虛證'으로 보아 大敦補(心正格) 太白瀉(腎正格)의 治법을 사용한 것과 같다.

「鎮靜迎 隨丘正 解纒斜」: 舍巖鍼法에서 穴名을 異名으로 표현한 것은 대부분 그 당시의 경험방으로 여겨진다. 특히 '中風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中風의 治療가 舍巖鍼法の 正形이나 變形안으로 국한하여 治療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舍巖은 中風의 治療에 많은 經驗을 축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解纒斜"라 하여 '解纒'의 異名을 "完骨"이라 했으나, 「鍼經」에서 "照海瀉"라 한 것은 '解纒'의 異名을 '照海'로 誤認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經濟要訣」·「要覽」·「鍼灸」·「資料」·「察病」등에서 "隨丘正 解纒斜"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水溝正 陽輔瀉 解纒斜"라 한 것은 아마 '隨丘'와 '水溝'의 發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하면서 동시에 '隨丘'의 原名인 '陽輔'를 瀉한 것으로 보인다.

「然谷瀉 少海補」: 「經濟要訣」·「鍼經」·「察病」·「秘訣」등에서는 "然谷瀉 少海補"라 했으나, 「要覽」·「鍼灸」·「資料」등에서 "然谷瀉 小海補"라 했는데, 이것은 發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卒風不語 肉痺胃實(三里)迎隨 賁中(風池) 陽谷瀉 二間補

「卒風不語 肉痺 胃實」: 다른 筆寫本에서는 "卒風不語 肉痺 胃實"이라 했으나, 「鍼灸」에서 "卒中不語 肉痺 胃寒"이라 한 것은 '風'을 '中'이라 誤寫했고 '實'을 '寒'이라 誤寫한 것인데, 글자체가 유사함으로 인한 것이다. 「資料」에서 '卒風'을 "卒中風"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의 "卒中風 不語 肉痺 不知人"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²⁸⁾ 당연히 "卒中風"이라 해야 옳으나, 나머지 筆寫本에서 대개 四言節句로 筆寫했기 때문에 「經濟要訣」에서 "卒風不語"라고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疊山迎隨 賁中瀉」: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疊山迎隨 賁中瀉"라 했으나, 「鍼灸」에서 "三里迎 風池隨"라 했고 「秘訣」에서 "三里瀉 風池瀉"라 했는데, '疊山'을 '三里' '賁中'을 '風池'라 한 것은 옳지만 '迎隨'를 '迎'·'瀉' '瀉'를 '隨'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陽谷瀉 二間補」: 「經濟要訣」·「要覽」·「察病」·「秘訣」등에서는 "陽谷瀉 二間補"라 했으나, 「鍼經」·「鍼灸」·「資料」등에서는 "陽谷瀉 三間補"라 했는데, 앞의 문장에서 "胃實"이라 했으므로 陽谷瀉(胃勝格의 A變形) 三間補(胃勝格의 O變形)가 합당한 것²⁹⁾으로 생각된다.

偏風口喎 肝實草膠(勞宮)補 明夷(照海)瀉 完骨瀉 前谷迎

「偏風口喎 肝實」: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偏風口喎 肝實"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偏風口喎 肝虛"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口眼喎斜 肝實'을 "口眼喎斜 肝虛"라 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要

27) 金達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40~41.

28) 金達鎭, 舍巖鍼法の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碩士學位論文, 1994, pp. 61~68. 이하 許任 「鍼灸經驗方」을 인용한 부분에 關한 것은 동일함.

29) 金達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40~41.

訣,에서 "偏風口喎 肝實"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完骨瀉 前谷迎"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完骨瀉 前谷迎"이라 했으나, 「察病」과 「鍼經」에서 "腕骨瀉 前谷迎"이라 했는데, '腕骨'이라는 穴名은 없으므로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遍身痒如蟲行不可忍 心實鼎本(太衝)迎正 訟理(光明)正 陰谷補 大都瀉

"遍身痒如蟲行不可忍" :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遍身痒如蟲行不可忍"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遍身如蟲行不可忍"이라 하여 '痒'을 누락시켰는데, 다른 筆寫本 뿐만 아니라 아래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遍身痒如蟲行不可忍"이라 한 것을 보더라도 「鍼經」이 誤寫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鼎本迎正" : 「經濟要訣」·「鍼經」·「資料」·「察病」 등에서는 "鼎本迎正"이라 했으나, 「要覽」에서 "鼎本迎"이라 했고 「鍼灸」에서 "太衝迎"이라 하여 '正'을 누락시킨 것은 앞의 '卒風不語 肉痺 胃實 壘山迎隨'에서 "卒風不語 肉痺 胃實 三里迎"이라 하여 '隨'을 누락시킨 것과 같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鼎本迎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鼎本迎正 訟理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鼎本迎(正) 訟理正"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이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임이 분명하다.

"陰谷補 大都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陰谷補 大都瀉"라 했으나, 「察病」과 「秘訣」에서 "陰谷補 大敦瀉"라 했다. 이것은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口眼喎斜 肝實"이라 했으나 「察病」과 「秘訣」에서는 "口眼喎斜 肝虛"라 한 것 中風의 提綱에서 "溫陰土而平木, 陽水偏枯"라 한 것을 "溫陰土而平陽水, 偏枯"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察病」과 「秘訣」 筆寫本의 관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대로 따른다면 陰谷補(心勝格) 大敦瀉(心勝格 A變形)³⁰⁾로 인정할 수도 있으나, 陰谷補(心勝格) 大都瀉(心勝格 B-1變形)³¹⁾처럼 B-1變形³²⁾을 사용한 것은 第二章 傷寒門 '四日'의 陰陵泉補(脾正格 B-1變形)³³⁾ 第三章 天地運氣門 '六丁之年'의 二間補(大腸勝格 B-1變形)와 '六癸之年'의 尺澤瀉(腎勝格 B-1變形)³⁴⁾ 第九章 痰飲門 '濕痰'의 尺澤補(肺勝格 B-1變形)와 陰陵泉補(脾勝格 B-1變形)³⁵⁾ 第十章 咳嗽門 '氣咳'의 尺澤瀉(肺正格 B-1變形)와 陰陵泉瀉(脾正格 B-1變形)³⁶⁾ 第十二章 瘧疾門 '瘧瘧'의 委中·陽陵泉瀉(膀胱勝格 B-1變形)³⁷⁾ 第十九章 腫脹門 '氣脹'의 然谷瀉(肺勝格 B-1變形)³⁸⁾ 第三十三章 脚氣門 '脚足寒'의 然谷補(腎正格 B-1變形)³⁹⁾ 第三十六章 耳病門 '耳鳴'의 通谷補(膀胱正格 B-1變形)⁴⁰⁾ 第三十七章 目病門 '雀目'의 然谷瀉(腎正格 B-1變形)과 '瞳子突出'의 然谷瀉(腎正格 B-1變形)⁴¹⁾ 第四十章 齒痛門 '上齒痛'의 內庭補(胃勝格 B-1變形)와 '下齒痛'의

30) 上揭書, pp. 33~39.
 31) 上揭書, pp. 33~39, 40.
 32) 上揭書, pp. 33~39.
 33) 上揭書, pp. 33~39, 42.
 34) 上揭書, pp. 33~39, 44.
 35) 上揭書, pp. 33~39, 50.
 36) 上揭書, pp. 33~39, 52.
 37) 上揭書, pp. 33~39, 54.
 38) 上揭書, pp. 33~39, 59.
 39) 上揭書, pp. 33~39, 71.
 40) 上揭書, pp. 33~39, 73.
 41) 上揭書, pp. 33~39, 74.

陰陵泉補(肺正格 B-1變形)⁴²⁾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陰谷補 大都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歷節風 腎虛遯山(三里)迎 師谷(完骨)迎正 大敦瀉 經渠補

“師谷迎正” :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師谷迎正” “師谷(完骨)迎”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陰陵泉瀉”라 했는데, 앞의 “口眼喎斜……解纜瀉”에서 『鍼經』은 “口眼喎斜……照海瀉”라 하여 “解纜”을 “照海”의 異名으로 誤認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師谷”을 “陰陵泉”의 異名으로 여겼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經濟要訣』·『要覽』·『鍼灸』·『資料』 등에서는 “師谷迎正”이라 했으나, 『察病』에서 “師谷迎”이라 하여 “正”을 누락시켰고 『秘訣』에서 “完骨迎”이라 하여 異名을 本名으로 바꾸면서 “正”을 누락시켰는데, 이것 또한 『察病』과 『秘訣』 筆寫本의 판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師谷迎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

角弓反張 臆實疊山(三里)迎 實中(風池)瀉 束骨瀉 陽谷補

『要覽』 『鍼經』 『鍼灸』 『資料』 『察病』 『秘訣』 : 『經濟要訣』과 동일한

口噤痰塞 如引鉅聲脾虛大壯(風池)迎正 地比(勞宮)橫 少府 經渠補

“大壯迎正 地比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大壯迎正 地比橫”이라 했으나, 『察病』에서 “風池 大壯迎正 少府 經渠補”라 하여 “地比橫”을 누락시키면서 “風池”의 異名인 “大壯”을 반복했고 『秘訣』에서도 “風池瀉 少府 經渠補”라 하여 “大壯”을 本名으로 바꾸면서 “地比橫”을 누락시켰는데, 이것 역시 앞의 “歷節風”에서 말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大壯迎正 地比橫”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少府 經渠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少府 經渠補”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少府瀉 經渠補”라 했는데, 만약 『鍼經』에서 “少府瀉 經渠補”라 한 것을 따른다면 肝勝格이 되어 “脾虛”라고 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脾正格의 A變形이 있음⁴³⁾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少府補(脾正格) 經渠補(脾正格 A變形)⁴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眼戴上反 不能言語鎮靜(三里)瀉 二椎·五椎一齊施上補

“眼戴上反”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眼戴上反”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眼戴上及”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中風 眼戴上及 不能語者”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당연히 “眼戴上及”이라 해야 옳을 것 같으나, 아마 뒤의 “不能語者”를 “不能言語”라 한 것으로 보아 舍巖이 이 부분을 인용할 때 ‘及’을 ‘反’으로 썼고 이후의 대부분 筆寫本은 이를 따랐던 것 같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眼戴上反”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鎮靜瀉 二椎·五椎一齊施上補” :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灸 第二椎并五椎上 各七壯”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灸’하는 대신에 ‘補’하라 했으므로 당연히 『經濟要訣』에서 “鎮靜瀉 二椎·

42) 上掲書, pp. 33~39, 77.

43) 上掲書 pp. 33~39.

44) 上掲書, pp. 33~39, 40.

五椎一齊施上補"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中臟者 不省人事 痰涎上 喉中雷鳴 四肢癱瘓 不知疼痛 言語蹇澁是也 丹田 氣海瀉

"痰涎上"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秘訣」에서는 '痰涎上'을 "痰涎上壅"이라 하여 '壅'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中臟者 不省人事 痰涎上壅 喉中雷鳴 四肢癱瘓 不知疼痛 言語蹇澁是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당연히 「秘訣」에서 "痰涎上壅"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해야 "不省人事 痰涎上壅 喉中雷鳴 四肢癱瘓 不知疼痛 言語蹇澁"이라 한 것과 같이 四言節句로 韻律이 맞아 자연스럽다.

中腑者 半身不遂 口眼喎斜 言語不變 不知疼痛 是也, 先察形體臟腑之症候 詳察治之 中院 風市瀉太衝補

"中腑者 半身不遂 口眼喎斜 言語不變 不知疼痛 是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半身不遂"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反身不遂"라 한 것은 발음이 같음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中腑者 半身不遂 口眼喎斜 知疼痛 言語不變 是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여기서 "不知疼痛"이라 한 것도 잘못이다. 그러므로 "中腑者 半身不遂 口眼喎斜 言語不變 知疼痛 是也"라 해야 한다.

"先察形體臟腑之症候 詳察治之" : 「經濟要訣」·「秘訣」에서는 "先察形體"라 했고, 「要覽」·「鍼經」·「鍼灸」·「資料」, 등에서는 "先看形體"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先省形體"라 했는데,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先看形體及臟腑之症候 詳察治之"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經濟要訣」·「秘訣」에서 "先察形體"라 한 것은 잘못이고, 「察病」에서 "先省形體"라 한 것은 '看'과 '省'의 글자체가 유사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先看形體"라 해야 한다.

肝中 實 無汗 惡寒 色青 名曰怒中四關上瀉下補

"肝中 實"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肝中 實"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肝中 虛"라고 한 것은 위에서 "口眼喎斜 肝虛"라고 한 것 "偏風 口喎 肝虛"라고 한 것 등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經濟要訣」에서 "肝中 實"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無汗 惡寒"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無汗 惡寒"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有汗 惡風"이라 했다. 이것은 아래의 「素問·風論」에서 "肝風之狀 多汗惡風"이라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肝中 無汗 惡寒 色青 名曰怒中"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당연히 「經濟要訣」에서 "無汗 惡寒"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四關上瀉下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四關上瀉下補"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合谷二穴補 太衝二穴瀉"라고 하여 補瀉를 바꾸었는데, 誤寫로 생각된다.

心中 實 多汗 驚悸 色赤 名曰思慮中大救瀉 商丘補

"驚悸 色赤 名曰思慮中" : 다른 筆寫本은 모두 「經濟要訣」과 동일하고 「鍼經」에서는 전체를 누락시킨 실

수를 범했으나, 「秘訣」에서는 “驚惕 色赤 名曰喜中”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心中 多汗 驚怕 色赤 名曰思慮中”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驚怕”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南方生熱……在志爲喜 喜傷心.”⁴⁵⁾이라 한 것 「素問·宣明五氣論」에서 “五精所并 精氣并於心則喜.”⁴⁶⁾이라 한 것 「素問·五運行大論」에서 “南方生熱……在志爲喜 喜傷心.”⁴⁷⁾이라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名曰喜中”이라 하는 것이 옳다.

肺中 實 多汗 惡風 名曰氣中 太白補 少府瀉

“肺中 實” : 「經濟要訣」·「要覽」·「鍼灸」·「資料」 등에서는 “肺中 實”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心中 實”이라 했으며 「察病」·「秘訣」에서는 “肺中 虛”라 했는데, 우선 「鍼經」에서 “心中 實”이라 한 것은 誤寫가 확실하다. 뒤의 “太白補 少府瀉”라 한 것은 肺正格이 분명하므로 「察病」과 「秘訣」에서 “肺中 虛”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

“多汗 惡風 名曰氣中”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多汗 惡風 名曰氣中”이라 했으나, 「察病」과 「秘訣」에서 “多汗 惡風 色白 名曰氣中”이라 했다. 이것은 모든 筆寫本과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肝中……色青” “心中……色赤” “腎中……色黑” “脾中……色黃” “膽中……色綠” “胃中……色淡黃” 등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色白’이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察病」과 「秘訣」에서 “多汗 惡風 色白 名曰氣中”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

“太白補 少府瀉” : 「經濟要訣」·「要覽」·「鍼經」·「鍼灸」·「秘訣」 등에서는 “太白補 少府瀉”라 하여 肺正格이 맞는데, 「資料」에서 “太白瀉 少府補”라 한 것은 앞에서 “肺中 實”이라 한 것으로 인해 補瀉를 바꾸어 肺勝格의 A變形(太白瀉)⁴⁸⁾과 肺勝格(少府補)을 겸용한 것 같으나, “肺中 虛”가 맞으므로 「資料」에서 “太白瀉 少府補”라 한 것은 잘못이다. 「察病」에서 “經渠補 少府瀉”라 한 것은 肺腎俱虛로 인정하여 腎正格(經渠補)과 肺正格(少府瀉)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다른 筆寫本과 달리 “太白穴”을 ‘經渠穴’로 바꾼 것은 잘못이다.

腎中 虛 多汗 身熱 色黑 名曰氣勞中 經渠補 太白瀉

“腎中 虛 多汗 身熱” : 「經濟要訣」·「要覽」·「鍼灸」 등에서는 “腎中 虛 多汗 身熱”이라 했으나, 「鍼經」과 「秘訣」에서는 “腎中 虛 多汗 身冷”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전체 문장이 누락되었다.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腎中 多汗 身冷 色黑 名曰氣勞中”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鍼經」과 「秘訣」에서는 “腎中 虛 多汗 身冷”이라 한 것이 옳고, 「察病」에서 전체 문장을 누락시킨 것은 잘못이다.

脾中 虛 多汗 身熱 色黃 名曰喜中 少府補 大敦瀉

“名曰喜中” : 다른 筆寫本은 모두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秘訣」에서는 “脾中 虛 多汗 身熱 色黃 名曰思慮中”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脾中 多汗 身熱 色黃 名曰喜中”이

45)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素問 通評虛實篇 第二十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1.

46) 上掲書, p. 74.

47) 上掲書, p. 188.

48) 金達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40~41.

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名曰喜中”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나,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中央生濕……在志爲思 思傷脾.”⁴⁹⁾라 한 것 『素問·宣明五氣論』에서 “五精所并……并於脾則畏(註 畏 寫也).”⁵⁰⁾라 한 것 『素問·五運行大論』에서 “中央生濕……在志爲思 思傷脾.”⁵¹⁾라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名曰思慮中”이라 하는 것이 옳다.

膽中虛 眼目牽連 肝睡不省 色綠 名曰驚中通谷補委中瀉

“膽中虛” :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膽中虛”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痰中虛”라 한 것은 발음의 동일 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다.

“名曰驚中” :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名曰驚中”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驚中”이라 하여 ‘名曰’을 누락 시킨 것은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胃中虛 飲食不下 痰涎上壅 色淡黃 名曰食後中陽谷補 臨泣瀉

“名曰食後中” :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名曰食後中”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食後中”이라 한 것은 위 에서 “名曰驚中”을 “驚中”이라 한 것처럼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太息善慮者 上神門日月

“太息善慮者 上 神門 日月” : 이 부분은 舍巖이 아래 『許任鍼灸經驗方·風部』에서 “太息善悲 神門 日月”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太息善悲者 上 神門 日月”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異名을 誤認함으로 인하여 잘못 필사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의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의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一章 中風’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言語蹇澁 半身不遂 心虛天重(完骨)瀉 炎庭(太衝)正 大敦補 太白瀉
 口眼喎斜 肝實鎮靜(三里)迎 隨丘(陽輔)正 斛纘(完骨)斜 然谷瀉 少海補
 卒風不語 肉痺胃實 壘山(三里)迎隨 賁中(風池) 陽谷瀉 三間補
 偏風口喎 肝實草膠(勞宮)補 明夷(照海)瀉 完骨瀉 前谷迎
 遍身痒如蟲行不可忍 心實鼎本(太衝)迎正 訟理(光明)正 陰谷補 大都瀉
 歷節風 腎虛逐山(三里)迎 師谷(完骨)迎正 大敦瀉 經渠補
 角弓反張 膽實壘山(三里)迎 賁中(風池)瀉 束骨瀉 陽谷補

49) 任應秋外, 黃帝內經章句索引, 素問 通評虛實論篇 第二十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1.

50) 上揭書, p. 74.

51) 上揭書, p. 188.

口噤痰塞 如引鉅聲脾虛大壯(風池)迎正 地比(勞宮)橫少府 經渠補
 眼戴上反 不能言語鎮靜(三里)瀉 二椎・五椎一齊施上補
 中臟者 不省人事 痰涎上壅 喉中雷鳴 四肢癱瘓 不知疼痛 言語蹇澁是也丹田 氣海瀉
 中腑者 半身不遂 口眼喎斜 言語不變 知疼痛 是也，先看形體臟腑之症候 詳察治之中
 腕 風市瀉 太衝補

肝中 實 無汗 惡寒 色青 名曰怒中四關上瀉下補
 心中 實 多汗 驚怕 色赤 名曰喜中大敦瀉商丘補
 肺中 虛 多汗 惡風 色白 名曰氣中太白補少府瀉
 腎中 虛 多汗 身冷 色黑 名曰氣勞中經渠補太白瀉
 脾中 虛 多汗 身熱 色黃 名曰思慮中少府補大敦瀉
 膽中 虛 眼目牽連 鼾睡不省 色綠 名曰驚中通谷補委中瀉
 胃中 虛 飲食不下 痰涎上壅 色淡黃 名曰食後中陽谷補臨泣瀉
 太息善悲者 上神門 日月

1-1. 許任鍼灸經驗方 風部⁵²⁾

言語蹇澁 半身不遂.....下三里 太冲 患左灸右 患右灸左。
 口眼喎斜.....下三里 灸三七壯。
 偏風口喎.....間使 左取右 右取左 灸三七壯。
 卒中風 不語肉痺不知人.....神道在第五椎節下間 俛而取之 灸三百壯立差
 遍身痺 如蟲行 不可忍.....合谷。
 歷節風.....風池 絕骨 膽俞。
 中風 口噤痰塞 如引鉅聲.....氣海 關元 各三壯。
 角弓反張.....天突 先鍼。
 中風 眼戴上及 不能語者.....灸 第二椎并五椎上 各七壯。
 風者 百病之長也 至其變化 各不同焉 或中臟或中腑 或痰或氣 或怒或喜 逐其源而來害
 中臟者 不省人事 痰涎上壅 喉中雷鳴 四肢癱瘓 不知疼痛 言語蹇澁是也
 中腑者 半身不遂 口眼喎斜 知疼痛 言語不變是也 先看形體及臟腑之症候 詳察治之。
 肝中 無汗 惡寒 色青名曰怒中
 心中 多汗 驚怕 色赤名曰思慮中
 肺中 多汗 惡風 色白名曰氣中
 腎中 多汗 身冷 色黑名曰氣勞中
 脾中 多汗 身熱 色黃名曰喜中

52) 許任, 韓國醫學大系 第38卷 許任鍼灸經驗方, 서울, 羅江出版社, 1988, pp. 543-546.

膽中 眼目牽連 肝睡不醒 色綠名曰驚中

胃中 飲食不下 痰涎上壅 色淡黃名曰食後中

太息善悲.....神門 日月(在期門下五分).

2. 「經濟要訣」第二章. 傷寒

**咳嗽肺寒 嘔吐胃熱, 補天突而瀉盲厥 迎丹田而正氣海 冷氣易平, 罰澤賞完 以自痊
胸腹即止, 和鑛罪絕於當治. 雖一名傷寒·溫病而借通, 冬寒觸者腎虛 春溫病者肝實
夏熱感者心弱 秋冷氣者肺濁. 是故寒病多表 可驗其瀉, 熱病多裏 必見母補. 溫暑諸
雜病治道 仲景立論 誦千秋之傳 丹溪傳經 學萬世之綱.**

「咳嗽肺寒 嘔吐胃熱」: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咳嗽肺寒 嘔吐胃熱」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咳嗽者肺寒 嘔吐者胃熱」이라 하여 '者'를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傷寒所以咳嗽肺寒」이라 하여 「傷寒所以」를 추가했는데, 원래 「咳嗽肺寒 嘔吐胃熱」이라 하여 四言節句로 한 것을 억지로 '者'를 추가하거나 「傷寒所以」를 추가한 것은 잘못이다.

「補天突而瀉盲厥」: 「經濟要訣」·「要覽」·「鍼灸」 등에서는 「補天突而瀉盲厥」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補天突而瀉盲俞」라 했고 「資料」의 「察病」에서는 「補天突而瀉盲厥」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補天突而瀉盲俞」라 했다. 「盲厥」라는 穴名은 원래부터 없었고, 盲俞는 臍兩旁 5분에 있는 足少陰腎經의 穴로써 胃痙攣·疝痛·腸炎·習慣性便秘·呃逆 등을 치료한다⁵³⁾고 했으며, 「厥」와 「俞」는 混用하므로 여기서는 「補天突而瀉盲俞」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冷氣易平」: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冷氣易平」이라 했으나, 「鍼灸」에서 「冷氣易平」이라 하여 「冷」을 「令」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으로 생각되고, 「資料」에서 「冷氣以平」이라 하여 「易」을 「以」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해 誤寫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冷氣易平」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罰澤賞完」: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罰澤賞完」이라 했으나, 「鍼灸」에서 「罰澤賞元」이라 하여 「完」을 「元」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으로 생각되고, 「資料」에서 「伐澤賞腕」이라 하여 「罰」을 「伐」·「完」을 「腕」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해 誤寫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罰澤賞完」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和鑛罪絕於當治」: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和鑛罪絕於當治」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和鑛罪絕於當治」라 하여 「鑛」을 「鑛」이라 한 것은 글자체가 유사하면서 발음조차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和鑛罪絕於當治」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雖一名傷寒·溫病而借通」: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雖一名傷寒·溫病而借通」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一名傷寒·溫病借通」이라 하여 「雖」와 「而」를 생략했고, 「資料」에서는 「雖一名傷寒·溫病而借通」이라 하여 「借」를 「諧」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雖名傷寒·溫病借通」이라 하여 「一」과 「而」를 생략했고, 「秘訣」에서는 「雖名

53) 上海中醫學院編, 鍼灸學, 人民衛生出版社, 香港, 1974, p. 233.

傷寒·溫病而階通이라 하여 ‘一’을 생략하면서 ‘階’를 “階”라 했다. 이것은 아마 筆寫 過程에서 ‘雖’·‘一’·‘而’ 등을 누락시킨 것으로 생각되고, 『資料』에서 ‘階’를 “階”라 한 것은 글자체가 유사하면서 발음도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며, 『秘訣』에서 ‘階’를 “階”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雖一名傷寒·溫病而階通”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冬寒觸者腎虛 春溫病者肝實 夏熱感者心弱 秋冷氣者肺濁” : 『要覽』에서는 “秋涼氣者肺濁”이라 하여 ‘秋’을 “秋涼”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秋冷氣者肺觸”이라 하여 ‘肺濁’을 “肺觸”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冬寒觸者腎虛”이라 하여 ‘寒’을 추가했고, 『察病』에서는 “冬寒觸者腎虛也 春溫病者肝實也 夏熱感者心弱也 秋冷氣者肺濁”라 하여 각기 ‘也’를 추가했으나 ‘肺濁’의 뒤에는 그대로 두었으며, 『秘訣』에서는 “冬寒觸者腎虛也 春溫病者肝實也 夏熱感者心弱 秋冷氣者肺濁”이라 하여 ‘腎虛’와 ‘肝實’ 뒤에 ‘也’를 추가했으나 ‘心弱’과 ‘肺濁’의 뒤에는 그대로 두었다. 다른 筆寫本에서 다 “秋冷”이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秋涼”이라 한 것은 글자체와 뜻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이다. 다른 筆寫本에서 다 “肺濁”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肺觸”이라 한 것은 第九章 痰飲門에서 “痰飲 肺濁”이라 한 것 第十四章 噎膈門에서 “大腸噎 肺濁”이라 한 것 第十九章 腫脹門에서 “穀脹 肺濁”이라 한 것 第二十八章 腹痛門에서 “肺濁 氣痛”이라 한 것과 같이 “肺濁”이라 한 경우가 있으나 “肺觸”이라 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이다. 『鍼灸』에서 “寒”을 추가한 것 『察病』에서 각기 ‘也’를 추가했으나 ‘肺濁’의 뒤에는 그대로 둔 것 『秘訣』에서 ‘腎虛’와 ‘肝實’ 뒤에 ‘也’를 추가했으나 ‘心弱’과 ‘肺濁’의 뒤에는 그대로 둔 것 등은 “冬寒觸者腎虛 春溫病者肝實 夏熱感者心弱 秋冷氣者肺濁”이라는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에 어긋난다.

“是故寒病多表 可驗其瀉, 熱病多裏 必見母補” : 『要覽』에서는 “熱病自裏 必見其補”라 하여 ‘多’를 ‘自’로 ‘母’를 “其”라 했고, 『鍼經』에서는 “可驗其瀉子, ……必見補母”라 하여 ‘子’를 추가하면서 ‘母補’를 “補母”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暑病多裏”라 하여 ‘熱’을 “暑”라 했고, 『察病』에서는 “寒病多表……必見其補”라 하여 ‘是故’를 생략하면서 ‘母’를 “其”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是故傷寒病多表……必見其補”라 하여 ‘傷’을 추가하면서 ‘母’를 “其”라 했고, 오직 『鍼灸』만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다른 筆寫本에서 ‘是故’가 있었으나 유독 『察病』만 ‘是故’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이다.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寒病多表”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傷’을 추가한 것 “可驗其瀉”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끝에 ‘子’를 추가한 것 등은 “寒病多表 可驗其瀉, 熱病多裏 必見其補”라고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에 어긋난다. 다른 필사본에서 모두 “熱病自裏”라 했으나 『要覽』에서 “熱病自裏”라 한 것 『資料』에서 “暑病多裏”라 한 것 등은 “寒病多表”와 “熱病多裏”가 서로 對句를 이루는 것에 어긋난다. 『經濟要訣』, 『鍼灸』에서는 “可驗其瀉……必見母補”라 했고 『鍼經』에서는 “可驗其瀉……必見補母”라 했으나, 『要覽』·『察病』·『秘訣』에서 ‘母補’를 “其補”라 하여 앞의 ‘其瀉’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溫暑諸雜病治道” : 『經濟要訣』·『鍼灸』·『資料』·『察病』 등에서는 모두 “溫暑諸雜病治道”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溫暑諸症雜病治道”라 하여 ‘症’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溫暑雜病治道”라 하여 ‘溫’을 “濕”이라 하면서 ‘諸’를 생략했으며, 『秘訣』에서는 “溫暑雜病之治道”라 하여 ‘諸’를 생략하면서 ‘之’를 추가했는데, 이것들은 오로지 한 가지 筆寫本에서만 각기 誤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溫暑諸雜病治道”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

“仲景立論 誦千秋之傳” : 『經濟要訣』·『要覽』에서는 “仲景立論 誦千秋之傳”이라 했고, 『鍼經』·『鍼灸』·『資料』·『察病』 등에서는 “仲景立論 誦千秋之典”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仲景論誦 千秋典”이라 했다. ‘傳’

이나 '典'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여기서는 '典'이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고, 「秘訣」에서 "仲景論誦 千秋典"이라 한 것은 뒤의 "丹溪傳經 學萬世之綱"과 對句를 이루지 못하므로, "仲景立論 誦千秋之典"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丹溪傳經 學萬世之綱" : 「經濟要訣」·「要覽」·「鍼灸」·「資料」 등에서는 "丹溪傳經 學萬世之綱"이라 했으나, 「鍼經」·「察病」에서는 "丹溪傳經 學萬歲之綱"이라 하여 '年'을 '歲'라 했고, 「秘訣」에서는 "丹溪之傳經 學 萬世之綱"이라 했다. '世'나 '歲'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여기서는 '世'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秘訣」에서 "丹溪之傳經學 萬世之綱"이라 한 것은 앞의 "仲景立論 誦千秋之典"과 對句를 이루지 못하므로, "丹溪傳經 學萬世之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인한 誤寫 뜻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二章 傷寒'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咳嗽肺寒 嘔吐胃熱 補天突而瀉宜俞 迎丹田而正氣海 冷氣易平 罰澤賞完 以自痊 胸腹即止 和鎮罪絕於當治 雖一名傷寒·溫病而偕通 冬寒觸者腎虛 春溫病者肝實 夏熱感者心弱 秋冷氣者肺濁 是故寒病多表 可驗其瀉 熱病多裏 必見其補 溫暑諸雜病治道 仲景立論 誦千秋之典 丹溪傳經 學萬世之綱."

一日 足膀胱經受之 虛也商陽補三里瀉 此治其官以補母

二日 足陽明胃經受之 三里補臨泣瀉 此抑其官以安身

三日 足少陽膽經受之 俠谿補商陽瀉 此抑其官以補母

四日 足太陰脾經受之陰陵泉 經渠補隱白瀉 此補子抑官

"陰陵泉 經渠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陰陵泉 經渠補"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陰陵泉補"라 하여 '經渠補'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五日 足少陰腎經傳之陰谷 經渠補太白瀉

六日 足厥陰肝經傳之陰谷 大敦補經渠瀉

"一日 足膀胱經受之 虛也" "二日 足陽明胃經受之" "三日 足少陽膽經受之" "四日 足太陰脾經受之" "五日 足少陰腎經傳之" "六日 足厥陰肝經傳之" : 「要覽」에서는 "一日 足膀胱受之 虛也" "二日 足陽明胃經受之" "三日 足少陽膽經受之" "四日 足太陰脾經傳之" "五日 足少陰腎經傳之" "六日 足厥陰肝經傳之"라 하여 一日의 '經'이 생략되었고 四日의 '受'가 '傳'으로 바뀌었다. 「鍼經」에서는 "一日 足膀胱受之 虛也" "二日 足陽明胃經受之" "三日 足少陽膽經受之" "四日 足太陰脾經受之" "五日 足少陰腎經傳之" "六日 足厥陰肝經傳之"라 하여 一日에 '經'이 생략되었다. 「鍼灸」에서는 "一日 足膀胱受之 虛也" "二日 足胃經受之" "三日 足膽經受

之” “四日 足脾經傳之” “五日 足腎經傳之” “六日 足肝經傳之.”라 하여 一日의 ‘經’이 생략되었고 二日에서 六日까지 ‘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 등도 생략되었으며 四日의 ‘受’가 ‘傳’으로 바뀌었다. 「資料」에서는 “一日 足膀胱經受之” “二日 足陽明胃經受之” “三日 足少陽膽經受之” “四日 足太陰脾經傳之” “五日 足少陰腎經傳之” “六日 足厥陰肝經傳之”라 하여 一日의 ‘虛也’가 생략되었고 四日의 ‘受’가 ‘傳’으로 바뀌었다. 「察病」에서는 “一日 足膀胱受之 虛也” “二日 足陽明胃經受之” “三日 足少陽膽經受之” “四日 足太陰脾經受之” “五日 足少陰腎經受之” “六日 足厥陰肝經受之”라 하여 一日의 ‘經’이 생략되었고 五日과 六日의 ‘傳’이 ‘受’로 바뀌었다. 「秘訣」에서는 “一日 太陽膀胱經受之 虛也” “二日 足陽明胃經受之” “三日 足少陽膽經受之” “四日 足太陰脾經傳之” “五日 足少陰腎經傳之” “六日 厥陰肝經傳之”라 하여 一日의 ‘足’이 생략되면서 ‘太陽’이 추가되었고 四日의 ‘受’가 ‘傳’으로 바뀌었으며 六日의 ‘足’이 생략되었다.

이상에서 「要覽」·「鍼經」·「鍼灸」·「察病」 등에서 ‘經’을 생략한 것은 “足膀胱受之虛也” “足陽明胃經受之” “足少陽膽經受之” “足太陰脾經傳之” “足少陰腎經傳之” “足厥陰肝經傳之”라는 七言節句에 들어맞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要覽」·「鍼灸」·「資料」·「秘訣」 등에서 ‘受’를 ‘傳’이라 한 것은 三陽經에 邪氣가 傳經할 수도 있지만 대개 직접 침범할 수 있다는 것과 三陰經은 直中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傳經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一日의 “此治其官以補母” 二日의 “此抑其官以安身” 三日의 “此抑其官以補母” 四日의 “此補子抑官” 五日의 「秘訣」에서 “此補母抑官”이라 한 것 六日의 「秘訣」에서 “此以安身其抑官”이라 한 것 등은 들쭉날쭉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아마 후세의 醫家들이 筆寫하면서 그 뜻을 추리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부 생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七日 經云傷寒不加異氣 不傳經者

七日 足太陽膀胱病表 手太陽小腸經受之頭痛少愈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入門·外感·傷寒門」에서 “經云……又云傷寒不加異氣 不傳經者 七日 足太陽病表 手太陽受之 頭痛少愈”라고 한 것을 인용했다⁵⁴⁾. 그러므로 「鍼經」과 「鍼灸」에서 “異氣”를 “黑氣”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資料」에서 “頭痛”을 “頭疼”이라 한 것도 誤寫가 확실하다.

八日 足陽明胃經病表 手陽明大腸經受之熱少歇三里補臨泣 陷谷瀉

“熱少歇” :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入門·外感·傷寒門」에서 “八日 足陽明病表 手陽明受之 身熱少歇”이라 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鍼灸」와 「資料」에서 “身熱少歇”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臨泣 陷谷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臨泣 陷谷瀉”라 하여 앞에서 “足陽明胃經病表”라 한 것과 일치하는데, 유독 「秘訣」만 “臨泣 陷谷補”라 한 것은 胃勝格에 해당하므로 誤寫가 분명하다.

九日 足少陽膽經病表 手少陽受之耳聾微開 通谷 俠谿補至陰 竅陰瀉

“耳聾微開” :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入門·外感·傷寒門」에서 “九日 足少陽病表 手少陽受之 耳聾微開.”

54) 金達鎭, 舍岩鍼法の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1994, pp. 54~57. 이하 「醫學入門」을 인용한 부분에 關한 것은 동일함.

이라 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鍼灸」·「資料」·「察病」 등에서 “耳聾微聞”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十日 足太陰脾經病衰 手太陰肺經受之 腹減如故 則思飲食 神門 太白補隴白 大敦瀉

“腹減如故 則思飲食” :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入門·外感·傷寒門」에서 “十日 足太陰病衰 手太陰受之 腹減如故 則思飲食.”이라 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腹減如故 則思飲食”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神門 太白補” : 이것은 心正格의 A變形⁵⁵⁾에 속하고 아래의 ‘尺澤 陰谷補’는 肺正格의 A變形⁵⁶⁾에 속하는데, 서로 바꾸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心經受之 渴止 舌乾而已 嚏尺澤 陰谷補 太白 太谿瀉

“舌乾而已嚏” :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入門·外感·傷寒門」에서 “十一日 足少陰病衰 手少陰受之 渴止 舌乾而已嚏.”라 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醫學入門」에서 “舌乾已而嚏”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心包經受之 凡病自安 陰谷 曲泉補商陽 大敦瀉

“陰谷 曲泉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谷 曲泉補”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陰谷 曲池補”라 한 것은 ‘曲泉’을 ‘曲池’로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七日 足太陽膀胱病衰 手太陽小腸經受之” “八日 足陽明胃經病衰 手陽明大腸經受之” “九日 足少陽膽經病衰 手少陽受之” “十日 足太陰脾經病衰 手太陰肺經受之”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心經受之”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心包經受之” : 「要覽」에서는 “七日 足太陽膀胱病衰 手太陽小腸經受之” “八日 陽明胃經病衰 手陽明大腸經受之” “九日 少陽膽經病衰 手少陽三焦經受之” “十日 足太陰脾經病衰 手太陰受之”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心經受之”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心包經受之”라 하여 八일의 ‘足’이 생략되었고 九일의 ‘足’이 생략되면서 ‘三焦經’이 추가되었으며 十일의 ‘肺經’이 생략되었는데, 일관성이 없다. 「鍼經」에서는 “七日 足太陽膀胱病衰 手太陽小腸經受之” “八日 足陽明胃經衰 手陽明大腸經受之” “九日 足少陽膽經病衰 手少陽三焦經受之” “十日 足太陰脾經病衰 手太陰肺經受之”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心經受之”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心包經受之”라 하여 七日의 ‘經’이 생략되었고 八일의 ‘病’이 생략되었으며 九일에 ‘三焦經’이 추가되었는데, 일관성이 없다. 「鍼灸」에서는 “七日 足膀胱病衰 手小腸經受之” “八日 足胃經病衰 手大腸經受之” “九日 足膽經病衰 手三焦經受之” “十日 足脾經病衰 手肺經受之” “十一日 足腎經病衰 手心經受之” “十二日 足肝經病衰 手心包經受之”라 하여 七日에서 十二일까지의 모든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 등이 다 생략되었고, 九일에 ‘三焦經’이 추가되었다. 「資料」에서는 “七日 足太陽膀胱病衰 手太陽小腸經傳之” “八日 足陽明胃經病衰 手陽明大腸受之” “九日 足少陽膽經病衰 手少陽受之” “十日 足太陰

55) 金達鎭, 舍巖鍼灸의 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42~43.

56) 上揭書, pp. 33~39, 42~43.

脾經病衰 手太陰受之”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受之”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受之”라 하여 七日의 ‘受’가 ‘傳’으로 바뀌었고 八日의 ‘經’ 十日의 ‘肺經’ 十一日의 ‘心經’ 十二日의 ‘心包經’ 등이 생략되었는데, 일관성이 없다. 『察病』에서는 “七日 足太陽膀胱病衰 手太陽小腸經受之” “八日 足陽明胃經病衰 手陽明大腸經受之” “九日 足少陽膽經病衰 手少陽三焦經受之” “十日 足太陰脾經病衰 手太陰肺經受之”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心經受之”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心包經受之”라 하여 七日의 ‘病’이 생략되었고 九일에 ‘三焦經’이 추가되었는데, 일관성이 없다. 『秘訣』에서는 “七日 太陽膀胱病衰 手太陽小腸經受之” “八日 足陽明胃經病衰 手陽明大腸經受之” “九日 足少陽膽經病衰 手少陽三焦經受之” “十日 太陰脾經病衰 手太陰肺經受之”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心經受之”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心包經受之”라 하여 七日의 ‘足’이 생략되었고 九일에 ‘三焦經’이 추가되었으며 十日의 ‘足’이 생략되었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상에서 七日에서 十二日까지의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入門·外感·傷寒門』에서 “七日 足太陽病衰 手太陽受之……, 八日 足陽明病衰 手陽明受之……, 九日 足少陽病衰 手少陽受之……, 十日 足太陰病衰 手太陰受之……, 十一日 足少陰病衰 手少陰受之……, 十二日 足厥陰病衰 手厥陰受之……”라 한 것을 인용하여 六經의 명칭 뒤에 臟腑의 명칭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七日 足太陽膀胱病衰 手太陽小腸經受之” “八日 足陽明胃經病衰 手陽明大腸經受之” “九日 足少陽膽經病衰 手少陽三焦經受之” “十日 足太陰脾經病衰 手太陰肺經受之”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心經受之”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心包經受之”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二章 傷寒’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一日 足膀胱受之虛也 商陽補三里瀉
- 二日 足陽明胃經受之三里補臨泣瀉
- 三日 足少陽膽經受之俠谿補商陽瀉
- 四日 足太陰脾經傳之 陰陵泉 經渠補隱白瀉
- 五日 足少陰腎經傳之 陰谷 經渠補太白瀉
- 六日 足厥陰肝經傳之 陰谷 大敦補經渠瀉
- 七日 經云傷寒不加異氣 不傳經者
- 七日 足太陽膀胱病衰 手太陽小腸經受之 頭痛少愈
- 八日 足陽明胃經病衰 手陽明大腸經受之 身熱少歇三里補臨泣 陷谷瀉
- 九日 足少陽膽經病衰 手少陽三焦經受之 耳聾微聞 通谷 俠谿補至陰 竅陰瀉
- 十日 足太陰脾經病衰 手太陰肺經受之 腹減如故 則思飲食 尺澤 陰谷補 隱白 大敦瀉

十一日 足少陰腎經病衰 手少陰心經受之 渴止 舌乾已而嚏 神門 太白補 太白 太谿瀉

十二日 足厥陰肝經病衰 手厥陰心包經受之 凡病自安陰谷 曲泉補商陽 大敦瀉

2-1. 醫學入門 外感(傷寒門)57)

經云一日 足太陽膀胱之經二日 足陽明胃之經三日 足少陽膽之經

四日 足太陰脾之經五日 足少陰腎之經六日 足厥陰肝之經

又云傷寒不加異氣 不傳經者

七日 足太陽病衰 手太陽受之 頭痛少愈

八日 足陽明病衰 手陽明受之 身熱少歇

九日 足少陽病衰 手少陽受之 耳聾微聞

十日 足太陰病衰 手太陰受之 腹減如故 則思飲食

十一日 足少陰病衰 手少陰受之 渴止 舌乾已而嚏

十二日 足厥陰病衰 手厥陰受之 囊縱少腹微下 大氣乃止 病再傳六經 有自安者.

3. 「經濟要訣」第三章. 天地運氣

天地五運之歲 太過不及之氣皆治補瀉 陽太過 陰不及.

六甲之年 敦阜之紀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人病 腹滿厥 意不樂 肌肉痿 足痿 脚下痛 中滿減食 四肢不舉, 經渠 復溜補 太白瀉 此補母安身之氣

“太過不及之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太過不及之氣”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太過不及之記”라 했다. 이것은 「鍼灸」에서 六甲之년의 ‘敦阜之紀’를 “敦阜之記” 六丙之년의 ‘漫衍之紀’를 “漫行之記” 六戊之년의 ‘赫曦之紀’를 “赫曦之記” 六丁之년의 ‘委和之紀’를 “委和之記” 六己之년의 ‘卑監之紀’를 “卑監之記” 등이라 한 것과 같이 거의 습관적으로 誤寫한 것인데,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다.

“敦阜之紀”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敦阜之紀”라 했으나, 「鍼灸」와 「資料」에서 “敦阜之記”라 했다. 이것은 「鍼灸」에서 六丙之년의 ‘漫衍之紀’를 “漫行之記” 六戊之년의 ‘赫曦之紀’를 “赫曦之記” 六丁之년의 ‘委和之紀’를 “委和之記” 六己之년의 ‘卑監之紀’를 “卑監之記” 등이라 한 것과 「資料」에서 六癸之년의 ‘伏明之紀’를 제외한 모든 ‘○○之紀’를 “○○之記”라 한 것처럼 거의 습관적으로 誤寫한 것인데,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다.

“腹滿厥 意不樂 肌肉痿 足痿 脚下痛” : 「要覽」·「鍼灸」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鍼經」에서는 ‘脚下痛’을 “下痛”이라 하여 ‘脚’을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足痿’를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腹滿厥’을 ‘腹涼厥’ ‘肌肉痿’를 “肌肉痿”라 했고, 「秘訣」에서는 ‘腹滿厥’을 “腹痛滿厥”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甲年 敦阜之紀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民病 腹痛 滿厥意不樂 肌肉痿 足痿 脚

57) 李梴, 醫學入門 外感(傷寒論), 서울, 博文書館, 1935, 卷四의 三.

下痛 中滿 食減 四肢不舉”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58), 「鍼經」·「資料」·「察病」 등은 誤寫한 것이 분명하고, 「經濟要訣」·「要覽」·「鍼灸」 등에서 “腹滿厥”이라 하여 “痛”을 누락시킨 것도 잘못이며, 모든 筆寫本에서 “減食”이라 한 것도 「東醫寶鑑」에 따라 “食減”이라 해야 하고, 「秘訣」에서 “腹痛滿厥”이라 한 것은 합당하다.

六甲之年の ‘此補母安身之氣’ 六丙之年の ‘此洗官補母之氣’ 六戊之年の ‘克官補母’ 六庚之年の ‘此君臣慶會之氣’ 六壬之年の ‘此抑君安身之氣’ 六乙之年の ‘此補國榮家’ 六丁之年の ‘此補官安民’ 六己之年の ‘抑官補身’ 六癸之年の ‘此賢君遇臣之氣’ 등은 들쭉날쭉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아마 후세의 醫家들이 筆寫하면서 그 뜻을 추리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부 생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六丙之年 漫衍之紀 歲水太過 寒氣流行 心火受邪 人病 身熱 心燥 厥陰上下 中寒 譫妄 心痛 喘嗽 自汗 夜極,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此洗官補母之氣

“漫衍之紀……厥陰上下 中寒……喘嗽” : “漫衍之紀”를 「鍼經」에서 “流行之紀” 「鍼灸」에서 “漫衍之紀” 「資料」에서 “漫衍之記” 「察病」과 「秘訣」에서 “漫流之紀”라 했고, “厥陰上下 中寒”을 「要覽」에서 “陰厥上下 中寒” 「鍼經」에서 “陰厥上下 中寒” 「鍼灸」에서 “厥陰上下中下寒” 「資料」에서 “陰厥上下 中寒”이라 했으며, 「察病」·「秘訣」은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喘嗽”를 「要覽」에서는 “咳嗽”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丙年 漫衍之紀 歲水太過 寒氣流行 心火受邪, 民病 身熱 心躁 陰厥上下 中寒 譫妄 心痛 喘咳 寢汗”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漫衍之紀……厥陰上下 中寒……喘嗽”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六戊之年 赫曦之紀 歲火太過 火暑流行 肺金受邪 人病 身熱似瘧 少氣 咳嗽 喘逆 血泄 身熱 骨痛 爲僂, 少海 尺澤補少府 魚際瀉 克官補母

“赫曦之紀……火暑流行……少氣 咳嗽 喘逆 血泄 身熱 骨痛 爲僂” : “赫曦之紀”를 「鍼灸」·「資料」에서 “赫曦之記”라 했고, “火暑流行”을 「鍼灸」·「資料」·「察病」·「秘訣」 등에서 “大暑流行”이라 했으며, “少氣 咳嗽 喘逆”을 「鍼灸」에서 “火氣 咳嗽 喘”이라 했고, “喘逆”을 「鍼經」에서 “逆運”이라 했으며, “血泄 身熱 骨痛 爲僂”을 「察病」·「秘訣」에서 “血瀉 身熱 骨痛 爲僂淫”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戊年 赫曦之紀 歲火太過 火暑流行 肺金受邪, 民病 瘧 少氣 咳嗽 血溢血泄 身熱 骨痛 爲僂淫”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赫曦之紀……火暑流行……少氣 咳嗽 喘逆 血泄 身熱 骨痛 爲僂淫”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六庚之年 堅成之紀 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人病 脇痛 小腹痛 耳聾 目赤 痰火等症, 陽谿 解谿補至陰 竅陰瀉 此君臣慶會之氣

“堅成之紀……脇痛 小腹痛……等症” : “堅成之紀”를 「鍼灸」에서 “堅成之紀” 「資料」에서 “堅成之記” 「秘訣」에서 “堅成之紀”라 했고, “脇痛”을 「資料」에서 “筋痛”이라 했으며, “小腹痛”을 「鍼灸」에서 “小腹痛”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庚年 堅成之紀 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民病 脇與小腹痛 耳聾 目赤 胸脇痛引小腹 尻陰股膝脾膈胫足皆痛”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堅成之紀……脇痛 小腹痛

58) 金達鎭, 舍巖鍼法の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1994, pp. 58~61. 이하 「東醫寶鑑」을 인용한 부분에 關한 것은 동일함.

痛……等症”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陽谿 解谿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察病」과 「秘訣」에서는 “陽谿 陽谷補”라 했다. 이를 따르다면 大腸勝格이 맞으나, 그렇다면 뒤의 “至陰 竅陰瀉”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앞에서 “六庚之年은……歲金이 太過하여 燥氣가 流行하니 肝木이 受邪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大腸勝格과 臍正格을 함께 사용하라는 말이다. 즉 “陽谿補(大腸勝格) 解谿補(大腸勝格 C變形)⁵⁹⁾과 “竅陰瀉(臍正格) 至陰瀉(臍正格 C變形)⁶⁰⁾로 서로 대칭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陽谿 解谿補”라고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六壬之年 發生之紀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人病 飧泄食減 體重煩冤 腸鳴 脇與腹痛等症,陽谷 解谿補至陰 竅陰瀉 此抑君安身之氣

“發生之紀……飧泄……腸鳴 脇與腹痛等症” : “發生之紀”를 「資料」에서 “發生之記” 「秘訣」에서 “發生之氣”라 했고, “飧泄”을 「秘訣」에서 “食泄”이라 했으며, “腸鳴”을 「要覽」에서는 누락시켰고, “腸鳴 脇與腹痛”을 「資料」에서 “腸鳴 脇痛” 「察病」에서 “腸鳴與腹痛”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壬年 發生之紀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民病 飧泄 食減 體重 煩冤 腸鳴 脇痛支滿.”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發生之紀……飧泄……腸鳴 脇與腹痛等症.”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六乙之年 從革之紀 歲金不及 炎火盛行 人病 肩背脊重 飢噎 咳喘 血注等症, 三里 曲池補臨泣 後谿瀉 此補國榮家

“從革之紀……炎火盛行……肩背脊重 飢噎 咳喘 血注等症” : “從革之紀”를 「資料」에서 “從革之記”라 했고, “炎火盛行”을 「察病」·「秘訣」에서 “痰火盛行”이라 했으며, “肩背脊重”을 「鍼灸」에서 “肩背脊”라 했고, “飢噎”을 「鍼經」·「鍼灸」·「察病」에서 “飢噎”이라 했으며, “咳喘 血注”를 「資料」에서 “咳嗽 血泄”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乙年 從革之紀 歲金不及 炎火盛行, 民病 肩背脊重 飢噎 咳喘 血便注下.”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從革之紀……炎火盛行……肩背脊重 飢噎 咳喘 血注等症”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六丁之年 委和之紀 歲木不及 燥乃盛行 人病 中清 眩暈 小腹痛 腸鳴 瀉泄等症,二 間 通谷補商陽瀉 此補官安民

“委和之紀……燥乃盛行……中清……小腹痛……瀉泄等症” : “委和之紀”를 「鍼灸」·「資料」에서 “委和之記”라 했고, “燥乃盛行”을 「察病」에서 누락시켰으며, “中清”을 「鍼經」·「察病」에서 “中情”이라 했고, “小腹痛”을 「資料」에서 “腹痛”이라 했으며, “瀉泄等證”을 「鍼灸」에서 “瘡泄等證”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丁年 委和之紀 歲木不及 燥乃盛行, 民病 中清 眩暈 小腹痛 腸鳴 瀉泄.”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委和之紀……燥乃盛行……中清……小腹痛……瀉泄等症”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59) 金達錫, 舍巖鍼法の 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44~45.

60) 上揭書, pp. 33~39, 44~45.

‘二間 通谷補’ : 다른 筆寫本에서 다 “二間 通谷補”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三間 通谷補”라 했는데, ‘三間穴’은 舍巖鍼法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穴’이므로 이것은 ‘二間穴’의 誤寫가 분명하다.

六己之年 卑監之紀 歲土不及 風氣流行 人病 飧泄 霍亂 體重 腹痛 筋骨繇併等症, 陽谿 解谿補束骨 臨泣瀉 此抑宮補身

“卑監之紀 歲土不及 風氣流行……筋骨繇併等症” : ‘卑監之紀’를 『鍼經』에서 “卑監之紀” 『鍼灸』에서 “卑監之記” 『資料』에서 “卑監之記”라 했고, ‘歲土不及’을 ‘察病’, 『秘訣』에서 “歲胃土不及”이라 했으며, ‘風氣流行’을 ‘要覽’, 『鍼經』, 『鍼灸』, 『資料』에서 “風氣盛行” ‘察病’, 『秘訣』에서 “風氣臆盛行” 『秘訣』에서 “風氣痰盛行”이라 했고, ‘筋骨繇併’을 『鍼灸』에서 “筋骨系併” 『資料』에서 “筋骨絲併”이라 했다. 이 부분은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己年 卑監之紀 歲土不及 風氣盛行. 民病 飧泄 霍亂 體重 腹痛 筋骨繇併 肌肉兩疲 善怒.”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卑監之紀 歲土不及 風氣盛行……筋骨繇併等症”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陽谿 解谿補” : 『經濟要訣』, 『要覽』, 『鍼灸』, 『資料』 등에서는 모두 “陽谿 解谿補”라 했으나, 『鍼經』, 『察病』, 『秘訣』 등에서는 다 “陽谷 解谿補”라 했다. 舍巖鍼法の 正形에서 ‘陽谿’를 補한 것은 大腸勝格 밖에 없으니, 이것은 앞에서 “六己之年 卑監之紀 歲土不及 風氣流行”이라 한 것에 어긋나므로 “陽谷 解谿補”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陽谷補(胃正格) 解谿補(胃正格) 束骨瀉(胃正格) 臨泣瀉(胃正格 C變形)’라는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

六辛之年 涸流之紀 歲水不及 濕乃盛行 人病 腫滿 身重 濡泄 足痿 清厥 脚下痛等症,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涸流之紀 歲水不及 濕乃盛行” : ‘涸流之紀’를 『資料』에서 “涸流之記”라 했고, ‘歲水不及 濕乃盛行’을 ‘察病’, 『秘訣』에서 “歲腎水不及 脾濕乃盛行”이라 하여 앞의 六己之年에서 “歲胃土不及 風氣臆盛行” 다음의 六癸之年에서 “歲心火不及 腎寒乃盛行”이라 한 것과 같았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辛年 涸流之紀 歲水不及 濕乃盛行. 民病 腫滿 身重 濡泄 足痿 清厥 脚下痛.”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涸流之紀 歲水不及 濕乃盛行”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太白 太谿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太白 太谿瀉”라 했으나, 『要覽』, 『鍼灸』, 『資料』 등에서는 “太白 太淵瀉”라 했는데, ‘經渠 復溜補 太白 太谿瀉’는 腎正格이 맞으므로 그냥 두는 것이 합당하다.

六癸之年 伏明之紀 歲火不及 寒乃盛行 人病 胸腹脇膈肩臂鬱胃心痛等症, 大敦 少衝補尺澤 復溜瀉 此賢君遇臣之象

“歲火不及 寒乃盛行 人病 胸腹脇膈肩臂 鬱胃心痛等症” : ‘歲火不及 寒乃盛行’을 『鍼灸』에서 “歲火不及 寒氣盛行” ‘察病’, 『秘訣』에서 “歲心火不及 腎寒乃盛行”이라 했고, ‘胸腹脇膈肩臂’을 ‘要覽』에서 “胸腹脇膈肩脾兩臂” 『鍼經』, 『鍼灸』에서 “胸腹脇膈肩脾兩臂” 『資料』에서 “胸痛脇滿 膈背肩脾兩臂內痛” ‘察病』에서 “胸腹脇膈肩兩臂” 『秘訣』에서 “胸腹脇痛 膈肩兩臂臂” 등이라 했으며, ‘鬱胃心痛’을 『資料』에서 “鬱胃心痛暴痛”이라

61) 上揭書, pp. 33~39, 44~45.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六癸年 伏明之紀 歲火不及 寒乃盛行, 民病 胸痛 脇滿 膺背肩胛兩臂內痛 鬱冒心痛 暴疝.”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歲火不及 寒乃盛行 人病 胸痛脇滿 膺背肩胛兩臂內痛 鬱冒心痛等症”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三章 天地運氣’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天地五運之歲 太過不及之氣 皆治補瀉 陽太過 陰不及.”

“六甲之年 敦阜之紀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人病 腹脹清厥 意不樂 肌肉痿 足痠 脚下痛 中滿食減 四肢不舉, 經渠 復溜補太白瀉.”

“六丙之年 漫衍之紀 歲水太過 寒氣流行 心火受邪, 人病 身熱 心燥 陰厥上下 中寒 謔妄 心痛 喘嗽 自汗夜極,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六戊之年 赫曦之紀 歲火太過 火暑流行 肺金受邪, 人病 身熱似瘧 少氣 咳嗽 喘逆 血泄 身熱 骨痛 爲侵淫, 少海 尺澤補少府 魚際瀉.”

“六庚之年 堅成之紀 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人病 脇痛 小腹痛 耳聾 目赤 痰火等症, 陽谿 解谿補至陰 竅陰瀉.”

“六壬之年 發生之紀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人病 飧泄食減 體重煩冤 腸鳴 脇與腹痛等症, 陽谷 解谿補至陰 竅陰瀉.”

“六乙之年 從革之紀 歲金不及 炎火盛行, 人病 肩背脊重 飢噎 咳喘 血注等症, 三里 曲池補臨泣 後谿瀉.”

“六丁之年 委和之紀 歲木不及 燥乃盛行, 人病 中清 眩暈 小腹痛 腸鳴 瀉泄等症, 二間 通谷補商陽瀉.”

“六己之年 卑監之紀 歲土不及 風氣盛行, 人病 飧泄 霍亂 體重 腹痛 筋骨繇併等症, 陽谷 解谿補束骨 臨泣瀉.”

“六辛之年 涸流之紀 歲水不及 濕乃盛行, 人病 腫滿 身重 濡泄 足痿 清厥 脚下痛等症,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六癸之年 伏明之紀 歲火不及 寒乃盛行, 人病 胸痛脇滿 膺背肩胛兩臂內痛 鬱冒心痛等症, 大敦 少衝補尺澤 復溜瀉.”

3-1. 東醫寶鑑 天地運氣⁶²⁾

五運之歲 太過不及：甲丙戊丙壬 爲陽年 太過, 乙丁己辛癸 爲陰年 不及.

六甲年 敦阜之紀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民病 腹痛 清厥意不樂 肌肉痿 足痿 脚下痛 中滿 食減 四肢不舉.

六丙年 漫衍之紀 歲水太過 寒氣流行 心火受邪, 民病 身熱 心躁 陰厥上下 中寒 譫妄 心痛 喘咳 痰汗.

六戊年 赫曦之紀 歲火太過 火暑流行 肺金受邪, 民病 瘧 少氣 咳喘 血溢血泄 身熱 骨痛 爲浸淫.

六庚年 堅成之紀 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民病 脇與小腹痛 耳聾 目赤 胸脇痛引小腹 尻陰股膝脾脞胻足皆痛.

六壬年 發生之紀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民病 飧泄 食減 體重 煩冤 腸鳴 脇痛支滿.

六乙年 從革之紀 歲金不及 炎火盛行, 民病 肩背脊重 肌噉 咳喘 血便注下.

六丁年 委和之紀 歲木不及 燥乃盛行, 民病 中清 肢脇小腹痛 腸鳴 泄泄.

六己年 卑監之紀 歲土不及 風氣盛行, 民病 飧泄 霍亂 體重 腹痛 筋骨繇併 肌肉痠夜 善怒.

六辛年 摶流之紀 歲水不及 濕乃盛行, 民病 腫滿 身重 濡泄 足痿 清厥 脚下痛.

六癸年 伏明之紀 歲火不及 寒乃盛行, 民病 胸痛 脇滿 膈背肩胛兩臂內痛 鬱冒心痛 暴疔.

4. 「經濟要訣」第四章. 中暑

內經曰 暑汗煩則喘渴 陰濕靜則藏熱, 是以靜而得陰暑 動而得陽暑. 避暑深堂解衣閑者 中暑, 飲冷大夏引風高者 中熱.

暑者 心弱 頭痛 惡寒 肢節痛疼 心煩 虛弱 此表也, 大敦 中衝補陰谷 少海瀉, 中衝補曲澤瀉.

“暑汗煩則喘渴”： 다른 筆寫本에서 다 “暑汗煩則喘渴”이라 했으나, 「鍼經」에서 “暑汗煩則喘渴”이라 하여 다음의 ‘暑者……心煩’을 “暑者……心煩”이라 한 것처럼 ‘煩’을 ‘瘧’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虛汗煩則喘渴”이라 하여 ‘暑’를 “虛”라 했다. 이 부분은 아래의 「醫學正傳·中暑」에서 “內經曰 因于暑汗 煩則喘渴 靜則多言.”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⁶³⁾, “渴”이라 한 것도 ‘渴’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暑汗煩則喘渴”이라 해야 합당하다.

“陰濕靜則藏熱”： 다른 筆寫本에서는 “陰濕靜則藏熱”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陰濕靜則腸熱”이라 하여 ‘藏’을 ‘腸’이라 했는데, 이것은 발음이 같음으로 인한 誤寫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陰濕靜則藏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62) 許波,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p. 334~335.

63) 金達鎭, 舍岩鍼法の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1994, pp. 57~58. 이하 「醫學正傳」을 인용한 부분에 關한 것은 동일함.

“是以靜而得陰暑 動而得陽暑” : 「要覽」에서는 “是以靜以得之爲陰暑 動以得之爲陽暑”라 하여 ‘而’를 “以”라 하면서 ‘之’爲’를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是以靜而得之爲陰暑 動而得之爲陽暑”라 하여 ‘之’爲’를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是故靜而得之陰暑 動以得之陽暑”라 하여 ‘是以’를 “是故” ‘動而’를 “動以”라 하면서 ‘之’를 추가했고, 「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是以靜而得之陰暑 動而得之陽暑”라 하여 ‘之’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아래의 「醫學正傳·中暑」에서 “潔古曰 靜而得之爲中暑 動而得之爲中熱 中暑者陰證 中熱者陽證.”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鍼經」에서 “是以靜而得之爲陰暑 動而得之爲陽暑”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避暑深堂解衣閑者” : 「鍼經」·「鍼灸」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資料」에서는 “避暑深堂解衣閑者”라 했고, 「察病」에서는 “避暑深堂解衣寒者”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避暑深堂解衣寒”이라 했는데, ‘閑’과 ‘閒’은 서로 통하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閑’을 ‘寒’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避暑深堂解衣閑者”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飮冷大夏引風高者” : 다른 필사본에서는 다 “飮冷大夏引風高者”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陰冷大度引風高臥者”라 하여 ‘飮’을 ‘陰’ ‘夏’를 ‘度’라 하면서 ‘臥’를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飮冷大度引風高坐者”라 하여 ‘夏’를 ‘度’라 하면서 ‘坐’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아래의 「醫學正傳·中暑」에서 “東垣曰 暑熱之時 無病之人 或避暑于深堂大度得之者 名曰中暑”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飮’을 ‘陰’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고, ‘夏’를 ‘度’라 한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臥’ ‘坐’를 추가한 것은 합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避暑深堂解衣閑者”라 한 것과 八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飮冷大度引風高者”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中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中熱”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中暑”라 했다. 이것은 筆寫本에서 대체로 “是以靜而得之爲陰暑 動而得之爲陽暑. 避暑深堂解衣閑者 中暑. 飮冷大度引風高者 中熱.”라 했으나, 아래의 「醫學正傳·中暑」에서 “潔古曰 靜而得之爲中暑 動而得之爲中熱 中暑者陰證 中熱者陽證. 東垣曰 暑熱之時 無病之人 或避暑于深堂大度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 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而煩心 肌膚大熱 無汗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之陽氣不得伸越 大順散等熱藥主之. 若行人或農夫 于日中 勞役得之者 名曰中熱 其病必苦頭痛 發躁熱惡熱 扪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飮 汗大泄 無氣以動 乃爲大熱外傷肺氣 蒼朮白虎等涼劑主之.”라 한 것을 종합하면 “避暑深堂解衣閑者”와 “飮冷大夏引風高者”도 모두 “暑熱之時 無病之人 或避暑于深堂大度得之者 名曰中暑……大順散等熱藥主之”라고 한 陰證에 속하는 것이지만 “中熱·陽證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資料」에서 “中暑”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若行人或農夫 于日中 勞役得之者 名曰中熱……蒼朮白虎等涼劑主之.”라고 한 中熱證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앞에서 “避暑深堂解衣閑者” “飮冷大夏引風高者”라 한 것과 對句를 이루게 하여 “于日中勞役得之者 中熱”이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暑者 心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暑者 心弱”이라 했으나, 「資料」에서는 “暑中 身煩”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暑 心弱”이라 했는데, 모두 誤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肢節疼痛” : 「經濟要訣」·「要覽」·「秘訣」에서는 “肢節疼痛”이라 했으나, 「鍼經」·「鍼灸」·「秘訣」에서는 “肢節疼痛”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肢節痛”이라 했는데, “肢節疼痛”이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心煩” : 다른 필사본에서는 다 “心煩”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心煩”이라 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暑汗煩則喘渴”을 “暑汗煩則喘渴”이라 한 것처럼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此表也” : 「資料」·「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要覽」에서는 “此表也 暑證”이라 하여 ‘暑證’을 추가했으며, 「鍼經」에서는 “此表病也”라 하여 ‘病’을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此病也”라 하여 ‘表’를 ‘病’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此裏也, 熱者 胃虛 發燥惡熱 大渴引飲 此表也”라 했다. 이것은 아래의 「醫學正傳·中暑」에서 “東垣曰 暑熱之時 無病之人 或避暑于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 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 而煩心 肌膚大熱 無汗 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之陽氣不得伸越 大順散等熱藥主之.”라고 한 것을 表寒證으로 여기고, “若行人或農夫 于日中 勞役得之者 名曰中熱 其病必苦頭痛 發躁熱惡熱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泄 無氣以動 乃爲大熱外傷肺氣 蒼朮白虎等涼劑主之.”라고 한 中熱證을 裏熱證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論者は 아래의 心正格(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과 心包正格(中衝補曲澤瀉)을 연계시켜서 다음과 같이 暑病의 辨證論治를 推理했다. 즉 “中暑者 心弱 頭痛 惡寒 肢節疼痛 心煩 虛弱 此表(寒)也,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中熱者 胃虛 發燥惡熱 大渴引飲 此裏(熱)也, 中衝補曲澤瀉.”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차후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선 위의 原文에 한하여 고찰하면, “此表也”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大敦 中衝補” : 「要覽」, 「鍼經」, 「鍼灸」, 「資料」, 「察病」, 「秘訣」 등에서 모두 “大敦 少衝補”라 했으나, 유독 「經濟要訣」만 “大敦 中衝補”라 했는데, 中衝補는 心包正格에 해당되고 뒤에 다시 “中衝補 曲澤瀉”라는 心包正格을 제시했으므로, “大敦 少衝補”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인한 誤寫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四章 中暑’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暑汗煩則喘喝 陰濕靜則藏熱, 是以靜而得之爲陰暑 動而得之爲陽暑. 避暑深堂解衣閑者 中暑, 飲冷大廈引風高者 中暑, (于日中勞役得之者 中熱).”

“暑者 心弱 頭痛惡寒 肢節疼痛 心煩虛弱 此表也,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中熱者 胃虛 發燥惡熱 大渴引飲 此裏熱也,) 中衝補曲澤瀉.”

4-1. 醫學正傳 中暑⁶⁴⁾

內經曰 因于暑汗 煩則喘喝 靜則多言.

潔古曰 靜而得之爲中暑 動而得之爲中熱 中暑者陰證 中熱者陽證.

東垣曰 暑熱之時 無病之人 或避暑于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 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而煩心 肌膚大熱 無汗 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之陽氣不得伸越 大順散等熱藥主之.

若行人或農夫 于日中 勞役得之者 名曰中熱 其病必苦頭痛 發躁熱惡熱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泄 無氣以動 乃爲大熱外傷肺氣 蒼朮白虎等涼劑主之.

5. 「經濟要訣」 第五章. 濕症

64) 虞博, 醫學正傳 中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71.

內經曰 濕生脾土 腫滿 濡泄之鄉, 霍亂 胃嘔 痞隔 積滯之方, 從外感而裏靜居脾陰 引內傷而動作在太陽. 是故途道傷於風雨 勞役敗於寒沾, 或姿飲酒漿酪之屬 多食冷物瓜果之類. 濕傷多是脾虛 熱感定然胃敗.

內傷濕者脾虛原補 中院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外傷濕者胃虛原補 丹田 陽谷補臨泣 陷谷瀉

“濡泄之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濡泄之鄉”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濡泄之”라 했는데, “濡泄之鄉”은 뒤의 ‘積滯之方’과 對句를 이루므로 “濡泄之鄉”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胃嘔 痞隔” : 「經濟要訣」·「要覽」·「資料」·「察病」, 등은 “胃嘔 痞隔”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胃土嘔吐 痞隔”이라 하여 ‘土’·‘吐’를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胃吐 痞膈”이라 하여 ‘嘔’를 “吐” ‘隔’을 “膈”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爲嘔 痞膈”이라 하여 ‘胃’를 “爲” ‘隔’을 “膈”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濕證」에서 “原病式曰 諸溼強直 積飲 痞膈 中滿 霍亂吐下 體重 跗腫肉如泥 按之不起 皆屬於濕.”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土’·‘吐’를 추가한 것과 ‘嘔’를 “吐”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되고, ‘胃’를 “爲”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며, ‘隔’을 “膈”이라 한 것은 「醫學正傳」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胃嘔 痞膈”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從外感而裏靜居脾陰”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從外感而裏靜居脾陰”이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從內傷而內靜居脾陰”이라 하여 ‘外感’을 “內傷” ‘裏’를 “內”라 했고, 「秘訣」에서는 “從內傷內裏靜居脾陰土”라 하여 ‘外感’을 “內傷” ‘而’를 “內”라 하면서 ‘土’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濕證」에서 “夫濕之爲病 所感不同 有從外感而得之者 有從內傷而得之者.”라 한 것을 인용했고 또한 뒤의 ‘因內傷而外動在太陽’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從外感而裏靜居脾陰”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引內傷而動作在太陽” : 「要覽」에서는 “因內傷而外動在太陽”이라 하여 ‘引’을 “因” ‘動作’을 “外動”이라 했고, 「鍼經」·「鍼灸」에서는 “因內傷而動作在太陽”이라 하여 ‘引’을 “因”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因內傷而動作在陽”이라 하여 ‘引’을 “因” ‘太陽’을 “陽”이라 했고, 「察病」·「秘訣」에서는 “因外感而動作在太陽”이라 하여 ‘引’을 “因”이라 하면서 앞에서 “從內傷而裏靜居脾陰”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內傷’을 “外感”이라 했다. 얼핏 보기에 이것과 앞의 「察病」·「秘訣」에서 ‘外感’과 ‘內傷’을 바꾸어 필사한 것이 옳은 것 같으나, 이 부분은 앞의 “從外感而裏靜居脾陰”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因內傷而外動在太陽”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途道傷於風雨” : 「要覽」·「鍼灸」·「資料」·「察病」, 등에서는 “道路傷於風雨”이라 하여 ‘途道’를 “道路”라 했고, 「鍼經」·「秘訣」 등에서는 “道途傷於風雨”라 하여 ‘途道’를 “道途”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濕證」에서 “與夫道途沖斥風雨”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道途傷於風雨”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勞役敗於寒沾” : 「要覽」·「鍼經」·「察病」·「秘訣」 등에서는 “勞役敗於汗沾”이라 하여 ‘寒’을 “汗”이라 했고, 「鍼灸」·「資料」, 등에서는 “勞力敗於汗沾”이라 하여 ‘役’을 “力” ‘寒’을 “汗”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濕證」에서 “或動作辛苦人 汗沾衣裳”이라 한 것을 인용했고 또한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므로, “勞役敗於汗沾”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或姿飲酒漿酪之屬” : 「要覽」·「鍼經」에서는 “或姿飲酒醬酪之屬”이라 하여 ‘漿’을 “醬”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或資飲酒漿酪之屬”이라 하여 ‘姿’를 “資”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或者飲酒醬酪之屬”이라 하여 ‘姿’를

“者” “漿”을 “醬”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或恣飲酒漿酪之屬”이라 하여 “漿”을 “醬”이라 하면서 “酪”을 “酪”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或恣飲酒漿燒酪之屬”이라 하여 “燒”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濕證」에서 “原病式曰……或恣飲酒漿醴”이라 한 것을 인용했는데, “漿”을 “醬” “姿”를 “資” “姿”를 “者”라 한 것 등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이고 “酪”을 “酪”이라 한 것은 글자체가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이며 “燒”를 추가한 것은 뒤의 “多食冷物瓜果之類”의 八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에 어긋나므로, “或恣飲酒漿酪之屬”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多食冷物瓜果之類”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多食冷物瓜果之類”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多食生冷瓜果之類”라 하여 “冷物”을 “生冷”이라 했는데, “多食冷物瓜果之類”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濕傷多是脾虛”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濕傷多是脾虛”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濕傷者多是脾虛”라 하여 “者”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뒤의 “熱感定然胃敗”와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濕傷多是脾虛”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熱感定然胃敗”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熱感定然胃敗”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熱盛自然胃敗”라 하여 “感”을 “盛” “定”을 “自”라 했고, 「察病」에서는 “熱感然胃敗”라 하여 “定”을 누락시켰다. “感”을 “盛”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이고, “定”을 “自”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되며, “定”을 누락시킨 것은 앞의 “濕傷多是脾虛”와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熱感定然胃敗”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脾虛 原補” “胃虛 原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脾虛 原補” “胃虛 原補”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脾虛 原補” “胃虛 元補”라 하여 “原”을 “元”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脾虛也” “胃虛也”라 하여 “原補”를 누락시키면서 “也”를 추가했다. 「察病」에서 脾虛證은 “原補”라 하면서 胃虛證만 “原”을 “元”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유독 「秘訣」만 “原補”를 누락시키면서 “也”를 추가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陽谷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陽谷補”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陽谿 解谿補”라 하여 “陽谷”을 “陽谿”라 하면서 “解谿”를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陽谷 解谿補”라 하여 “解谿”를 추가했다. “解谿”를 추가한 것은 胃虛證에 합당할 수 있으나 “陽谿補”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解谿”가 없으나 「要覽」, 「鍼灸」에서 “解谿”를 추가했다. 그러므로 “陽谷補”라 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五章 濕證」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濕生脾土 腫滿 濡泄之鄉, 霍亂 胃嘔 痞脹 積滯之方, 從外感而裏靜居脾陰 因內傷而外動在太陽. 是故道途傷於風雨 勞役敗於汗沾, 或恣飲酒漿酪之屬 多食冷物瓜果之類. 濕傷多是脾虛 熱感定然胃敗.”

“內傷濕者脾虛原補 中脘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外傷濕者胃虛原補 丹田 陽谷補臨泣 陷谷瀉.”

5-1. 醫學正傳 濕證⁶⁵⁾

內經曰 諸濕腫滿 皆屬脾土 又曰 濕勝則濡泄.

原病式曰 諸痿強直 積飲 痞膈 中滿 霍亂吐下 體重 跗腫肉如泥 按之不起 皆屬於濕. 夫濕之爲病 所感不同 有從外感而得之者 有從內傷而得之者 若居處卑濕之地 與夫道途冲斥風雨 或動作辛苦人 汗沾衣裳 皆濕從外感者也 或恣飲酒漿醞酪 多食柑橘瓜果之類 皆濕從內傷者也.

6. 「經濟要訣」第六章. 燥症

內經曰 枯涸·滋乾·勁銳·火燥 風熱之大同, 是陽成燥之 濕感爲陰微 火甚則必生 風燥 濕極則可作熱痒. 是故抑火官而安金 養土母而補肺.

燥症 補瀉太白 太潤補少府 魚際瀉.

“勁銳·火燥”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勁銳·火燥”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勁銳 曰燥”라 하여 ‘火’를 “曰”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勁銳·火燥”라 하여 ‘銳’를 “銳”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勁·火燥”라 하여 ‘銳’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燥證」에서 “內經曰 諸滋枯涸乾勁銳渴 皆屬於燥. 原病式曰 經云 風熱火 同陽也 寒燥濕 同陰也 又燥濕少異也 然燥金雖屬秋陰 而異乎寒濕 故反同其風熱也 故火熱勝則金衰而風生 緣風能勝濕 熱能耗液而反寒 陽實陰虛 則風熱勝于水濕而爲燥也……凡此諸證 皆由熱甚而生風燥 病各有異者 由風熱燥各微甚不等故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鍼經」에서 “勁銳·火燥”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熱之大同”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風熱之大同”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風熱之火”라 하여 ‘大’를 “火”라 하면서 ‘同’을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燥證」에서 “原病式曰 經云 風熱火 同陽也……故反同其風熱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秘訣」에서 “風熱之火”라 한 것은 誤寫한 것이다.

“是陽成燥之 濕感爲陰微” : 「要覽」에서는 “是陽盛燥之衰 咸爲陰微”라 하여 ‘成’을 “盛” ‘濕’을 “衰”라 했고, 「鍼經」에서는 “是陽成燥之 濕或爲陰微”라 하여 ‘咸’을 “或”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是陽盛燥之 陰盛爲濕”이라 하여 ‘成’을 “盛”이라 하면서 “濕感爲陰微”를 “陰盛爲濕”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是陽盛燥之 濕感爲陰微”라 하여 ‘成’을 “盛” ‘咸’을 “感”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是陽盛燥之 濕感爲陰微”라 하여 ‘成’을 “盛”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是陽盛風燥之 濕感爲陰微”라 하여 ‘成’을 “盛” ‘咸’을 “感”이라 하면서 ‘風’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燥證」에서 “原病式曰……故火熱勝則金衰而風生 緣風能勝濕 熱能耗液而反寒 陽實陰虛 則風熱勝于水濕而爲燥也……凡此諸證 皆由熱甚而生風燥 病各有異者 由風熱燥各微甚不等故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成’을 “盛”이라 한 것은 합당하나 단 筆寫本들과 전혀 다르게 “濕感爲陰微”를 “陰盛爲濕”이라 한 것과 ‘風’을 추가한 것은 잘못이고, ‘濕’을 “衰” ‘咸’을 “或”·“感”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察病」에서 “是陽盛燥之 濕感爲陰微”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故抑火官而安金” : 「要覽」·「鍼經」·「鍼灸」·「資料」, 등에서는 “是故殺火官而安金”이라 하여 ‘抑’을 “殺”

65) 虞搏, 醫學正傳 濕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74.

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是以殺火官而安金”이라 하여 ‘故’를 “以” ‘抑’을 “殺”이라 했으나, 유독 『經濟要訣』만 “是故抑火官而安金”이라 했다. 다른 筆寫本에서 다 “是以”라 하지 않고 “是故”라 했으며 ‘抑’을 “殺”이라 했으므로, “是故殺火官而安金”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養土母而補肺”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養土母而補肺”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養土母補”라 하여 ‘而’와 ‘肺’를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燥症 補瀉” : 『要覽』·『鍼灸』·『察病』·『秘訣』 등에서는 “燥症”이라 하여 ‘補瀉’가 없었고, 『鍼經』에서는 “肺燥症”이라 하여 ‘補瀉’가 없으면서 “養土母補”에서 누락시켰던 ‘肺’를 여기에 덧붙였으며, 『資料』에서는 “燥症 補瀉”가 전부 없었다. 그러므로 “燥症”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六章 燥證’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枯涸·溢乾·勁盤·火燥 風熱之大同, 是陽盛燥之 濕咸爲陰微 火甚則必生風燥 濕極則可作熱痒. 是故殺火官而安金 養土母而補肺.”

“燥症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6-1. 醫學正傳 燥證⁶⁶⁾

內經曰 諸溢枯涸乾勁盤渴 皆屬於燥.

原病式曰 經云 風熱火 同陽也 寒燥濕 同陰也 又燥濕少異也 然燥金雖屬秋陰 而異乎寒濕 故反同其風熱也 故火熱勝則金衰而風生 緣風能勝濕 熱能耗液而反寒 陽實陰虛 則風熱勝于水濕而爲燥也....凡此諸證 皆由熱甚而生風燥 病各有異者 由風熱燥各微甚不等故也.

7. 『經濟要訣』 第七章. 火熱

內經曰 登瘕·暴痞·狂越·罵詈·驚駭之君火, 冒昧·擾·肺腫疼·氣逆之相火, 上衝·禁慄如喪神守·噎嘔·瘡癰之隱熱, 雙耳·噎嘔·目昧·暴注 發熱. 是故丹溪曰 老陽動而生天火 少陰靜而生人火 熱極而爲地火, 以此激旺水而制離 引枯木而平熱.

君火丹田迎陰谷 少海補大敦 少衝瀉此激君制臣

66) 虞搏, 醫學正傳 燥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77.

相火中院正大都 陰谷補支溝 崑崙瀉此補母安身

壯熱中院正臨泣 後谿補三里 衝陽瀉

“脊痠”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脊痠”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脊目痠”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火熱」에서 “內經曰 諸熱脊痠 暴瘡冒昧 躁擾狂越 罵詈驚駭.”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脊痠”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驚駭之君火” “氣逆之相火” “瘡瘍之隱熱” “暴注 發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驚駭之君火” “氣逆之相火” “瘡瘍之隱熱” “暴注 發熱”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驚駭爲君火” “氣逆爲相火” “瘡瘍爲隱熱” “暴注爲發熱”이라 하여 “之”를 “爲”라 하면서 “爲”를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驚駭之君火” “氣逆之相火” “瘡瘍之隱熱” “暴注 發熱 壯熱”이라 하여 “發熱”의 뒤에 “壯熱”을 추가했으며, 「秘訣」에서는 “驚駭之君火” “氣逆之相火” “瘡瘍之陰熱” “暴注 發熱”이라 하여 “隱”을 “陰”이라 했다. 「要覽」에서 “之”를 “爲”라 하면서 “爲”를 추가한 것 「鍼經」에서 “發熱”의 뒤에 “壯熱”을 추가한 것 등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之” “發熱”이라 했으므로 誤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驚駭之君火” “氣逆之相火” “瘡瘍之隱熱”라 하여 五言節句로 韻律이 맞아 자연스러우나, “暴注 發熱”만 韻律이 맞지 않으므로 “暴注之發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隱”을 “陰”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擾·腑腫疼” : 「經濟要訣」·「察病」은 “擾·腑腫疼”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躁擾·腑腫疼酸”이라 하여 “躁”와 “酸”을 추가하면서 “腑”를 “腑”라 했고, 「鍼經」에서는 “擾·腑腫疼酸”이라 하여 “酸”을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躁擾·浮腫疼痛”이라 하여 “躁”와 “痛”을 추가하면서 “腑”를 “浮”라 했고, 「資料」에서는 “擾·腑腫疼”이라 하여 “腑”를 “腑”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躁擾·腑腫疼痠”이라 하여 “躁”와 “痠”을 추가하면서 “腑”를 “腑”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火熱」에서 “內經曰 諸熱脊痠 暴瘡冒昧 躁擾狂越 罵詈驚駭 腑腫疼酸 氣逆衝上”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躁”와 “酸”을 추가하면서 “腑”를 “腑”라 한 것은 합당하고 “痛” “痠”을 추가하면서 “腑”를 “浮” “腑”를 “腑”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躁擾·腑腫疼酸”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嘔嘔”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嘔嘔”라 했으나, 「資料」·「秘訣」에서는 “嘔嘔”라 하여 “嘔”을 “嘔”라 했는데,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火熱」에서 “衝上 禁慄如喪神守 嘔嘔瘡瘍”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嘔嘔”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雙耳·鳴嘔·目昧”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雙耳·鳴嘔·目昧”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耳雙·鳴嘔·目昧”라 하여 “雙耳”를 “耳雙”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耳雙·目昧”라 하여 “雙耳”를 “耳雙”이라 하면서 “鳴嘔”를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耳雙·耳鳴·嘔·目昧”라 하여 “雙耳”를 “耳雙”이라 하면서 “耳”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火熱」에서 “喉痺 耳鳴及雙 嘔涌溢 食不下 目昧不明 暴注 痼痲 暴病暴死 皆屬于火”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鍼灸」에서 “耳雙·鳴嘔·目昧”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少陰靜而生人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少陰靜而生人火”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少陰靜而作人火”라 하여 “生”을 “作”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少陰定而生人火”라 하여 “靜”을 “定”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少陽靜而生人火”라 하여 “少陰”을 “少陽”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少陽靜而可作人火”라 하여 “少陰”을 “少陽” “生”을 “可作”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火熱」에서 “丹溪曰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各一其性 惟火有二 曰君火 人火也 曰相火 天火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生'을 '作'·'可作' '靜'을 '定' '少陰'을 '少陽'이라 한 것은 모두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少陰靜而生人火"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激旺水而制離" :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激旺水而制離"라 하여 뒤의 "引枯木而平熱"이라 한 것과 對句를 이루게 했으나, 유독 「鍼經」만 "激旺水制離"라 하여 對句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激旺水而制離"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君火" "相火" "壯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君火" "相火" "壯熱"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君火 卽心火" "相火 卽肝火" "壯熱 小腸熱"이라 하여 "卽心火" "卽肝火" "小腸熱" 등을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君火 心火也" "相火 肝也" "壯火 小腸熱也"라 하여 "壯熱"을 "壯火"라 하면서 "心火也" "肝也" "小腸熱也" 등을 추가했다. 이것은 筆寫할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해 "君火" "相火" "壯熱"의 뒤에 "心火" "肝火" "小腸熱"을 추가하여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君火" "相火" "壯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陰谷 少海補 大敦 少衝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谷 少海補 大敦 少衝瀉"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陰谷 少海瀉 大敦 少衝補"라 하여 "補"·"瀉"가 바뀌었다. 만약 「鍼灸」의 "陰谷 少海瀉 大敦 少衝補"를 따른다면 心正格이 맞으나, 위에서 "脊癱·暴瘡·狂越·罵詈·驚駭之君火"라 한 것은 心實證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陰谷 少海補 大敦 少衝瀉"라 하여 "陰谷 少海瀉"는 心勝格 '大敦 少衝補'는 心勝格 A變形⁶⁷⁾에 해당하므로 서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陰谷 少海補 大敦 少衝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大都 陰谷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大都 陰谷補"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大敦 陰谷補"라 하여 "大都"를 "大敦"이라 했다. 이것은 肝正格(陰谷補)을 사용하면서 自經의 自穴(大敦)을 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此激君制臣 此補母安身 補身制子" : 第二章 傷寒門 第三章 天地運氣門 등과 마찬가지로 "此激君制臣 此補母安身 補身制子"라 한 것 등은 들쭉날쭉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아마 후세의 醫家들이 筆寫하면서 그 뜻을 추리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七章 火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脊癱·暴瘡·狂越·罵詈·驚駭之君火, 冒昧·蹉擗·附腫疼酸·氣逆之相火, 上衝·禁慄如喪神守·嘔嘔·瘡瘍之隱熱, 耳聾·鳴嘔·目昧·暴注之發熱. 是故丹溪曰 老陽動而生天火 少陰靜而生人火 熱極而爲地火, 以此激旺水而制離 引枯木而平熱."

67) 金達鎬,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47.

君火丹田迎陰谷 少海補大敦 少衝瀉
相火中脘正大都 陰谷補支溝 崑崙瀉
壯熱中脘正臨泣 後谿補三里 衝陽瀉

7-1. 醫學正傳 火熱⁶⁸⁾

內經曰 諸熱瘡癩 暴疔冒昧 躁擾狂越 罵詈驚駭 胎腫痠酸 氣逆衝上 禁慄如喪神守 嘔嘔瘡瘍 喉痺 耳鳴及聾
嘔涌溢 食不下 目昧不明 暴注 稠煖 暴病暴死 皆屬于火.

丹溪曰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各一其性 惟火有二 曰君火 人火也 曰
相火 天火也.

8. 「經濟要訣」第八章. 鬱門

蓋先觀五行之氣 瀉官補母 後察六情之鬱 激君和臣. 木鬱達而吐之 令其條達, 火鬱發而汗之 令其疎散, 土鬱奪而下之 令無壅滯, 金鬱泄而溼泄 解表利便, 水鬱折而抑之 制其中達. 怫鬱病而生之 患中未散, 濕鬱結而成痰 痰鬱而成癰 血鬱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氣鬱而成火熱. 氣血痰而多滯 先當順氣, 食濕熱而成積 次治消化.

“蓋先觀五行之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蓋先觀五行之氣”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蓋先視五行之氣”라 하여 ‘觀’을 ‘視’라 했는데, 이것은 ‘觀’의 略字가 ‘視’와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蓋先觀五行之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後察六情之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後察六情之鬱”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後察七情之鬱”라 하여 ‘六情’을 ‘七情’이라 했는데, ‘七情’이라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六鬱(氣鬱·血鬱·痰鬱·食鬱·濕鬱·熱鬱)’에 대해 ‘六情’이라 했으므로 “後察六情之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激君和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激君和臣”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激君火和臣”이라 하여 ‘君’을 ‘君火’라 했는데, 이것은 뒤의 ‘臣’에 대한 ‘君’이지 ‘相火’에 대한 ‘君火’가 아니고, 또한 앞의 ‘瀉官補母’의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激君和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令無壅滯” “解表利便” “制其中達” : 「要覽」에서는 “令無壅滯” “解表利便” “制其沖逆”이라 하여 ‘利便’을 ‘便利’ ‘中達’을 ‘沖逆’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令其無壅滯” “解表利便” “制其中(沖逆)”이라 하여 ‘其’를 추가하면서 ‘中達’을 ‘中(沖逆)’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令無壅滯” “解表利便” “制其衝逆”이라 하여 ‘中達’을 ‘衝逆’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令其壅滯” “解表裏便” “制其中達”이라 하여 ‘無’를 ‘其’ ‘利’를 ‘裏’ ‘達’을 ‘運’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令無壅滯” “解表利便” “制其沖達”이라 하여 ‘中達’을 ‘沖達’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鬱證」에서 “張子和曰……土鬱奪之 謂下之 令無壅滯也, 金鬱泄之 謂溼泄 解表利小便也, 水鬱折之 謂抑之 制其沖逆也, 此治五鬱之大要耳.”라 한 것을

68)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79.

인용했으므로, ‘無’를 ‘其’ ‘利’를 ‘裏’ ‘利便’을 ‘便利’ ‘達’을 ‘運’ ‘中達’을 ‘中(冲逆)’ ‘冲達’ 등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中達’을 ‘冲逆’ ‘衝逆’이라 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므로 ‘令無窒碍’ ‘解表利便’ ‘制其衝逆’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金鬱泄而添泄’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金鬱泄而添泄’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金鬱泄而滲之’라 하여 ‘添泄’을 ‘滲之’라 했고, 『鍼經』에서는 ‘金鬱泄而滲泄’이라 하여 ‘添泄’을 ‘滲泄’이라 했다. 이 부분은 송巖이 『醫學正傳·鬱證』에서 ‘張子和曰……金鬱泄之 謂滲泄 解表利小便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鍼經』에서 ‘金鬱泄而滲泄’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水鬱折而抑之’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水鬱折而抑之’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水鬱抑而抑之’라 하여 ‘折’을 ‘抑’이라 했다. 이 부분은 송巖이 『醫學正傳·鬱證』에서 ‘張子和曰……水鬱折之 謂抑之 制其冲逆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折’을 ‘抑’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水鬱折而抑之’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佛鬱病而生之 患中未散’ : 다른 筆寫本에서는 ‘佛鬱病而生之 患中未散’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佛鬱患而病生之爲中未散’이라 하여 ‘病而生之患’을 ‘患而病生之爲’라 했고, 『鍼經』에서는 ‘一有佛鬱 諸病而生之 患中未散’이라 하여 ‘一有’·‘諸’를 추가했으며, 『察病』에서는 ‘一有脾鬱 諸病生之 患中未散’이라 하여 ‘一有’·‘諸’를 추가 ‘而’를 누락시키면서 ‘佛’을 ‘脾’라 했고, 『秘訣』에서는 ‘一有佛鬱 諸病生之 患中未散’이라 하여 ‘一有’·‘諸’를 추가하면서 ‘而’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송巖이 『醫學正傳·鬱證』에서 ‘所謂 氣血冲和 百病不生, 一有佛鬱 諸病生焉, 此發前人之所未發者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病而生之患’을 ‘患而病生之爲’ ‘佛’을 ‘脾’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되고, ‘一有’·‘諸’를 추가하면서 ‘而’를 누락시킨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一有佛鬱 諸病生之 患中未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濕鬱結而成痰 痰鬱而成癖 血鬱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氣鬱而成火熱’ : 『要覽』에서는 ‘濕鬱而成痰 痰鬱而成癖 血鬱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氣鬱而成火熱’이라 하여 ‘結’과 ‘而’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濕鬱結而成痰 痰鬱而成癖 血鬱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氣鬱而成火熱’이라 하여 ‘癥’을 ‘瘕’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濕鬱結而成痰 痰鬱結而成癖 血鬱結而成癥 食鬱結而成痞滿’이라 하여 痰鬱·血鬱·食鬱 등의 뒤에 ‘結’을 추가하면서 ‘氣鬱而成火熱’을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濕鬱結成痰 痰鬱成癖 血鬱成癥 食鬱成痞滿 氣鬱成火熱’이라 하여 ‘而’를 전부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濕鬱結而成痰 痰鬱而成癖 血鬱而成癥 食鬱而成痞 氣鬱而成熱’이라 하여 ‘滿’과 ‘火’를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濕鬱結而成痰 痰鬱而成癖 諸病生之 血鬱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氣鬱而成火熱’이라 하여 ‘諸病生之’를 추가하면서 ‘癥’을 ‘瘕’라 했다. 이 부분은 송巖이 『醫學正傳·鬱證』에서 ‘又如熱鬱而成痰 痰鬱而成癖 血鬱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此必然之理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癥’을 ‘瘕’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또한 유독 『秘訣』만 ‘諸病生之’를 추가한 것도 誤寫한 것이며, ‘結’·‘而’·‘滿’·‘火’ 등을 누락시킨 것 痰鬱·血鬱·食鬱 등의 뒤에 ‘結’을 추가한 것은 얼핏 보기에 그럴듯하나 각기 전체적인 五言節句·六言節句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痰鬱·血鬱의 뒤에 ‘結’을 추가하여 ‘濕鬱結而成痰 痰鬱結而成癖 血鬱結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氣鬱而成火熱’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氣血痰而多滯 先當順氣’ : 『鍼經』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氣血痰而多滯 先順其氣’라 하여 ‘當’을 누락시키면서 ‘其’를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氣痰而多滯 先當順氣’라 하여 ‘血’을 누락시켰으며, 『資料』에서는 ‘血鬱痰而多滯 先當順氣’라 하여 ‘氣’를 누락시키면서 ‘鬱’을 추가했고, 『察病』에서는 ‘熱

鬱而多滯 先當順氣"라 하여 '氣血痰'을 "熱鬱"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氣而痰而多滯 先當順氣"라 하여 '血'을 "而"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鬱證」에서 "又氣鬱而濕滯 濕滯而成熱 熱鬱而成痰 痰滯而血不行 血滯而食不消化 此六者 皆相因而爲病者也 是以治法皆當以順氣爲先 消積次之."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當' '血' '氣' 등을 누락시키면서 '其' '鬱' 등을 추가한 것과 '氣血痰'을 "熱鬱"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秘訣」에서 '血'을 "而"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氣血痰而多滯 先當順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食濕熱而成積 次治消化" : 「要覽」·「鍼經」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鍼灸」에서는 "次治消化 似脹非脹 鬱而未解"라 하여 '食濕熱而成積'을 누락시키면서 '似脹非脹 鬱而未解'를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息濕熱而成積 次治消化"라 하여 '食'을 "息"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次治消化"라 하여 '食濕熱而成積'을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食熱而成積 次治消火"라 하여 '濕'을 누락시키면서 '化'를 '火'라 했다. 이 부분도 舍巖이 「醫學正傳·鬱證」에서 "又氣鬱而濕滯 濕滯而成熱 熱鬱而成痰 痰滯而血不行 血滯而食不消化 此六者 皆相因而爲病者也 是以治法皆當以順氣爲先 消積次之."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食'을 "息" '化'를 "火"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다른 筆寫本과 달리 「鍼灸」에서 '似脹非脹 鬱而未解'를 추가한 것 「察病」에서 '食濕熱而成積'을 누락시킨 것 「秘訣」에서 '濕'을 누락시킨 것도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食濕熱而成積 次治消化"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八章 鬱門'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蓋先觀五行之氣 瀉官補母 後察六情之鬱 激君和臣, 木鬱達而吐之 令其條達, 火鬱發而汗之 令其疎散, 土鬱奪而下之 令無壅碍, 金鬱泄而滲泄 解表利便, 水鬱折而抑之 制其衝逆. 一有佛鬱 諸病生之 患中未散, 濕鬱結而成痰 痰鬱結而成癖 血鬱結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氣鬱而成火熱. 氣血痰而多滯 先當順氣, 食濕熱而成積 次治消化.

木鬱達之 虛也陰谷 曲阜補中封 經渠瀉

火鬱發之 實也陰谷 曲阜補大敦 少衝瀉丹田瀉

金鬱泄之 實也少府 魚際補經渠 復溜瀉

土鬱奪之 實也大敦 陷谷補陽谷 解谿瀉中脘正

水鬱折之 實也三里 委中補束骨 三間瀉

氣鬱散之 實也少府 魚際補經渠 三里瀉

熱鬱消之 虛也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痰鬱和之 虛也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食鬱降之 虛也陽谷 少府補大敦 臨泣瀉丹田 中脘迎正

濕鬱泄之 脾虛也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丹田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丹田瀉”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丹田正”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丹田瀉”를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經渠 復溜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渠 復溜瀉”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經渠 中封瀉”라 했다. 「鍼經」에서 “經渠 中封瀉”라 한 것은 肝正格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따르다면 앞에서 “金鬱泄之 實也”라 한 것에 어긋난다. 舍巖은 “金鬱泄之 實也”를 “少府 魚際補(肺勝格) 經渠 復溜瀉(腎勝格 A變形)⁶⁹”라는 肺腎俱實證으로 여겨 치료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經渠 復溜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大敦 陷谷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大敦 陷谷補”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大敦 隱白補”라 하여 脾勝格이라 했다. 이를 따르는 것도 무방하지만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大敦補(脾勝格) 陷谷補(胃勝格)”라 하면서 胃勝格 A變形인 “陽谷 解谿瀉⁷⁰”를 함께 사용했다. 舍巖은 “土鬱瀉之 實也”를 “大敦補(脾勝格) 陷谷補(胃勝格) 陽谷 解谿瀉(胃勝格 A變形)⁷¹”라는 脾胃俱實證으로 여겨 치료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大敦 陷谷補”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陽谷 解谿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陽谷 解谿瀉”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陽谷 陽谿瀉”라 했다. 「秘訣」에서 “陽谷 陽谿瀉”라 한 것은 大腸正格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따르다면 앞에서 “土鬱瀉之 實也”라 한 것에 어긋난다. 舍巖은 “土鬱瀉之 實也”를 “大敦補(脾勝格) 陷谷補(胃勝格) 陽谷 解谿瀉(胃勝格 A變形)⁷²”라는 脾胃俱實證으로 여겨 치료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陽谷 解谿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氣鬱散之 實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氣鬱散之 實也”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氣鬱散之 虛也”라 했다. 이를 따르다면 위의 鍼處方이 肺正格에 해당해야 하는데, “少府 魚際補(肺勝格) 經渠瀉(自經의 自穴을 瀉) 三里瀉(大腸勝格 A變形)⁷³”에 해당하므로 서로 어긋난다. 舍巖은 “氣鬱散之 實也”를 “少府 魚際補(肺勝格) 經渠瀉(自經의 自穴을 瀉) 三里瀉(大腸勝格 A變形)⁷⁴”라는 肺大腸俱實證으로 여겨 치료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氣鬱散之 實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丹田 中脘迎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丹田 中脘迎正”이라 했으나, 「鍼經」·「鍼灸」·「秘訣」 등에서는 “丹田 中脘迎正”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火鬱發之 實也……丹田瀉”라 한 것과 “土鬱瀉之 實也……中脘正”이라 한 것으로 보아 “丹田 中脘迎正”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濕鬱泄之 脾虛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濕鬱泄之 脾虛也”라 했으나, 「鍼經」·「鍼灸」에서는 “濕鬱泄之 虛也”라 하여 “脾”를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앞에서 전부 “虛也” “實也”라 한 것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다.

69) 金蓮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48~49.

70) 上揭書, pp. 33~39, 48~49.

71) 上揭書, pp. 33~39, 48~49.

72) 上揭書, pp. 33~39, 48~49.

73) 上揭書, pp. 33~39, 48~49.

74) 上揭書, pp. 33~39, 48~49.

그러므로 “濕鬱泄之虛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の ‘第八章 鬱門’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木鬱達之 虛也 陰谷 曲泉補中封 經渠瀉
- 火鬱發之 實也 陰谷 曲泉補大敦 少衝瀉丹田瀉
- 金鬱泄之 實也 少府 魚際補經渠 復溜瀉
- 土鬱奪之 實也 大敦 陷谷補陽谷 解谿瀉中脘正
- 水鬱折之 實也 三里 委中補束骨 三間瀉
- 氣鬱散之 實也 少府 魚際補經渠 三里瀉
- 熱鬱消之 虛也 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 痰鬱和之 虛也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 食鬱降之 虛也 陽谷 少府補大敦 臨泣瀉丹田 中脘迎正
- 濕鬱泄之 虛也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8-1. 醫學正傳 鬱證75)

內經曰 木鬱達之 火鬱發之 土鬱奪之 金鬱泄之 水鬱折之.

張子和白曰 木鬱達之 謂吐之 令其條達也 火鬱發之 謂汗之 令其疏散也 土鬱奪之 謂下之 令無壅碍也 金鬱泄之 謂滲泄 解表利小便也 水鬱折之 謂抑之 制其冲逆也 此治五鬱之大要耳.

所謂 氣血冲和 百病不生 一有怫鬱 諸病生焉 此發前人之所未發者也.

又如熱鬱而成痰 痰鬱而成癰 血鬱而成瘰 食鬱而成痞滿 此必然之理也.

又氣鬱而濕滯 濕滯而成熱 熱鬱而成痰 痰滯而血不行 血滯而食不消化 此六者 皆相因而爲病者也 是以治法皆當以順氣爲先 消積次之.

9. 「經濟要訣」第九章. 痰飲

蒸痰氣憤鬱 皆作肺濁 火熱結積 成爲胃滯, 以此 頭目眩暈 口眼歪動 正是心中之火 痛名曰鬱飲, 四肢遊風 似痛非痛 必引胃悶之熱 患號留飲, 齒頰瘙癢 牙床浮腫 此

75)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 85-86

肝弱而受邪 可謂支飲，噫氣吞酸 嘈雜嘔噦 是肝之達賊 必疑痰飲。用藥無效 手灸不痊，是以通五行之經絡 補母子虛，論八卦之道路 君聖臣賢。

“蓋痰氣憤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蓋痰氣憤鬱”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에서 “蓋痰飲氣憤鬱”이라 하여 ‘飲’을 추가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되고, 「秘訣」에서 “皆痰氣憤鬱”이라 하여 ‘蓋’를 ‘皆’ ‘憤’을 ‘臍’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蓋痰氣憤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火熱結積 咸爲胃清”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火熱結積 咸爲胃清”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火熱結作 咸爲胃清”이라 하여 ‘積’을 ‘作’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要覽」·「鍼經」에서 “火熱結積 咸爲胃清”이라 하여 ‘咸’을 ‘成’이라 한 것 「資料」에서 “火熱結積 咸爲胃清”이라 하여 ‘咸’을 ‘感’이라 한 것 등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火熱結積 咸爲胃清”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頭目眩暈 口眼嚮動”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頭目眩暈 口眼嚮動”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頭暈 口嚮嚮動”이라 하여 ‘目眩’을 누락시키면서 ‘眼’을 ‘嚮’라 했고, 「秘訣」에서는 “頭目眩暈 口眼嚮動”이라 하여 ‘嚮’를 ‘暈’이라 했다. 이 부분은 송巖이 「醫學正傳·痰飲」에서 “王隱君曰……或頭風目昏 眩暈耳鳴 或口眼嚮動”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目眩’을 누락시킨 것 ‘眼’을 ‘嚮’ ‘嚮’를 ‘暈’이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고, 또한 다른 筆寫本에서 “嚮”라 한 것도 “嚮”이라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頭目眩暈 口眼嚮動”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痛名曰懸飲”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痛名曰懸飲”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痛名懸飲”이라 하여 ‘曰’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뒤의 ‘患號留飲’ ‘可謂支飲’ ‘必疑痰飲’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痛名懸飲”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四肢遊風”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四肢遊風”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四肢流風”이라 하여 ‘遊’를 ‘流’라 했고, 「資料」에서는 “四支流風”이라 하여 ‘肢’를 ‘支’ ‘遊’를 ‘流’라 했다. 이 부분은 송巖이 「醫學正傳·痰飲」에서 “王隱君曰……或四肢游風腫硬 似痛非痛”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肢’를 ‘支’ ‘遊’를 ‘流’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四肢遊風”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必引胃間之熱 患號留飲” : 「經濟要訣」·「要覽」·「鍼經」 등에서는 “必引胃間之熱 患號留飲”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必引胃間之熱 患號曰留飲”이라 하여 ‘曰’을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必引胃間上熱之患 患號留飲”이라 하여 ‘之熱’을 “上熱之”라 했으며, 「察病」·「秘訣」에서는 “必胃間之熱 患號留飲”이라 하여 ‘引’을 누락시켰다. ‘必引胃間之熱 患號留飲’은 “正是心中之火 痛名懸飲” ‘此肝弱而受邪 可謂支飲’ ‘是肝之達賊 必疑痰飲’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曰’을 추가한 것 ‘之熱’을 “上熱之”라 한 것 ‘引’을 누락시킨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必引胃間之熱 患號留飲”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齒頰瘙癢” : 「鍼灸」·「資料」 등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齒頰瘙癢”이라 하여 ‘頰’을 ‘齧’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齒頰搔癢”이라 하여 ‘頰’을 ‘頰’ ‘瘙’을 ‘搔’라 했으며, 「察病」·「秘訣」 등에서는 “齒頰瘙癢”이라 하여 ‘頰’을 ‘頰’이라 했다. 이 부분은 송巖이 「醫學正傳·痰飲」에서 “王隱君曰……或爲齒頰痒痛 牙床浮腫而痒不一”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頰’을 ‘齧’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瘙’을 ‘搔’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며, ‘頰’을 ‘頰’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察病」·「秘訣」에서 “齒頰瘙癢”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此肝弱而受邪”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此肝弱而受邪”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此是肝弱受邪”라 했

는데, 이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嘔噦 是肝之逢賊 必疑痰飲” : 「要覽」과 「資料」에서는 “嘔噦 是肺之逢賊 必疑痰飲”이라 하여 ‘肝’을 ‘肺’ ‘疑’를 ‘疑’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嘔噦 是肺之逢賊 必疑痰飲”이라 하여 ‘噦’을 ‘噦’ ‘肝’을 ‘肺’라 했으며, 「鍼灸」·「察病」·「秘訣」 등에서는 “嘔噦 是肺之逢賊 必疑痰飲”이라 하여 ‘肝’을 ‘肺’라 했다. 여기서 “噦氣吞酸 嗜雜嘔噦……必疑痰飲”이라 하면서 다음의 辨證論治에서 “痰飲 肺濁 少府 魚際補 尺澤 陷谷瀉”라 했고, 또한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痰飲」에서 “王隱君曰……或噦氣吞酸 嗜雜嘔噦”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疑’를 ‘疑’ ‘噦’을 ‘噦’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肝’을 ‘肺’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鍼灸」·「察病」·「秘訣」 등에서 “嘔噦 是肺之逢賊 必疑痰飲”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手灸不痊”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手灸不痊”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手灸無痊”이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是以通五行之經絡”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以通五行之經絡”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是以通五行之經”이라 하여 ‘絡’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위의 “論八卦之道路”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絡’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補母寧子” : 「要覽」·「鍼經」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鍼灸」·「資料」에서는 “補母寧子”라 하여 ‘子寧’을 ‘寧子’라 했고, 「察病」·「秘訣」에서는 “補母瀉子”라 하여 ‘子寧’을 “瀉子”라 했다. 이것은 위의 ‘君聖臣賢’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고, 또한 第二十九章 腰痛에서 “上實者 補下而寧”이라 한 것 第三十六章 耳病에서 “此水補火瀉 而寧其本”이라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鍼灸」·「資料」에서 “補母寧子”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九章 痰飲’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蓋痰氣憤鬱 皆作肺濁 火熱結積 咸爲胃清, 以此 頭目眩暈 口眼蠕動 正是心中之火 痛名懸飲, 四肢遊風 似痛非痛 必引胃間之熱 患號留飲, 齒頰瘙痒 牙床浮腫 此肝弱而受邪 可謂支飲, 噦氣吞酸 嗜雜嘔噦 是肺之逢賊 必疑痰飲. 用藥無效 手灸不痊, 是以通五行之經絡 補母寧子, 論八卦之道路 君聖臣賢.

懸飲 心火 少府 太白補少海 陽谷瀉丹田迎 此抑官補身

留飲 胃清 陽谷 三里補臨泣 陷谷瀉此補身抑官

支飲 肝飲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痰飲 肺濁 少府 魚際補尺澤 陷谷瀉

熱痰大敦 隱白瀉

酒痰太白 太淵補大敦 隱白瀉

濕痰尺澤 陰陵泉補太白 太淵瀉

積痰三里 太白補大敦 陷谷瀉丹田迎 中脘補

風痰三里 曲池補魚際 陷谷瀉

‘少府 太白補 少海 陽谷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少府 太白補 少海 陽谷瀉”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少府 大都補 少海 陰谷瀉”라 하여 ‘太白’을 “大都” ‘陽谷’을 “陰谷”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少府 太白補 少海 陰谷瀉”라 하여 ‘陽谷’을 “陰谷”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少府 魚際補 少海 陰谷瀉”라 하여 ‘太白’을 “魚際” ‘陽谷’을 “陰谷”이라 했다. 『鍼經』에서 ‘太白’을 “大都”라 한 것은 脾正格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懸欽 心火”라 한 것과 어긋나고, 『秘訣』에서 ‘太白’을 “魚際”라 한 것은 肺勝格에 해당하므로 역시 “懸欽 心火”라 한 것과 어긋나며, 『鍼經』, 『鍼灸』, 『秘訣』 등에서 “陽谷”을 “陰谷”이라 한 것은 心正格에 해당하므로 “懸欽 心火”라 한 것과 합치한다. 그러므로 『鍼灸』에서 “少府補(自經의 自穴을 補) 太白補(心正格 A變形)⁷⁶⁾ 少海 陰谷瀉(心正格)”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此抑官補身” “此補身抑官” : 第二章 傷寒門 第三章 天地運氣門 第七章 火熱門 등과 마찬가지로 “此抑官補身” “此補身抑官”라 한 것 등은 들쭉날쭉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아마 후세의 醫家들이 筆寫하면서 그 뜻을 추리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부 생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支欽 肝欽” : 『鍼經』, 『資料』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支欽 肝陰”이라 하여 ‘欽’을 “陰”이라 했고, 『鍼灸』, 『察病』, 『秘訣』 등에서는 “支欽 肝弱”이라 하여 ‘欽’을 “弱”이라 했다. ‘欽’을 “陰”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지만, ‘支欽’ ‘肝欽’이라 하여 ‘欽’을 중복시키는 것보다 “支欽 肝弱”이라 하는 것이 지연스럽다. 그러므로 “支欽 肝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熱痰 大敦 隱白瀉” : 『經濟要訣』만 “熱痰 大敦 隱白瀉”라 했으나,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熱痰 大敦 隱白補 神門 太白瀉”라 하여 ‘瀉’를 “補”라 하면서 “神門 太白瀉”를 추가했다. 『經濟要訣』에서 “大敦 隱白瀉”라 한 것은 脾正格만 사용한 것이므로 熱痰이 心에 관련된다는 것에 어긋나고, 다른 筆寫本에서 “大敦 隱白補 神門 太白瀉”라 한 것은 “大敦 隱白補가 脾勝格 ‘神門 太白瀉가 心勝格으로 心脾俱實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熱痰 大敦 隱白補 神門 太白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丹田迎 中脘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丹田迎 中脘補”라 했으나, 第八章 鬱門에서 “丹田 中脘迎正”을 누락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유독 『鍼灸』만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丹田迎 中脘補”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原理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76) 金達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50~51.

의 '第九章 痰飲'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懸飲 心火 少府 太白補少海 陰谷瀉丹田迎

留飲 胃清 陽谷 三里補臨泣 陷谷瀉

支飲 肝弱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痰飲 肺濁 少府 魚際補尺澤 陷谷瀉

熱痰大敦 隱白補神門 太白瀉

酒痰太白 太淵補大敦 隱白瀉

濕痰尺澤 陰陵泉補太白 太淵瀉

積痰三里 太白補大敦 陷谷瀉丹田迎 中脘補

風痰三里 曲池補魚際 陷谷瀉

9-1. 醫學正傳 痰飲⁷⁷⁾

內經曰 諸氣憤鬱 皆屬肺金 蓋肺氣鬱則成熟 熱盛則生痰.

王隱君曰 痰證古今未詳 方書雖有懸飲 留飲 支飲 痰飲 諸飲之異 而莫知其爲病之源 或頭風目昏 眩暈耳鳴 或口眼蠕動 眉棱耳輪癢痒 或四肢游風腫硬 似痛非痛 或爲齒頰痒痛 牙床浮腫而痛痒不一 或噎氣吞酸 嗜雜嘔噦...其爲內外疾病 非止百端 皆痰之所致也.

丹溪曰 有熱痰 有濕痰 有酒痰 有食積痰 有風痰 有寒痰 有老痰.

10. 「經濟要訣」第十章. 咳嗽

夫咳者 有聲無痰 嗽者 無聲有痰也, 是故脾虛濕動而生痰 胃熱靜而作咳, 濕在心而熱痰 濕托肝而風嗽 濕居肺而氣咳 濕留腎而寒喘.

“是故脾虛濕動而生痰 胃熱靜而作咳” : 「要覽」·「鍼經」·「資料」 등에서는 “是故脾濕動而生痰 胃熱靜而作咳”라 하여 ‘虛’를 생략했고, 「鍼灸」에서는 “是故脾濕動而生痰 胃熱停而作咳”라 하여 ‘虛’를 생략하면서 ‘靜’을 ‘停’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是以脾虛動而生痰 胃熱靜而作咳”라 하여 ‘是故’를 “是以”라 하면서 ‘濕’을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是故脾虛濕動作咳”라 하여 ‘而生痰 胃熱靜而’를 누락시켰다. ‘靜’을 ‘停’ ‘是故’를 “是以”라 한 것과 ‘濕’ ‘而生痰 胃熱靜而’ 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되고, ‘虛’를 생략하여 “脾濕動而生痰 胃熱靜而作咳”라 한 것은 뒤의 ‘濕在心而熱痰’ ‘濕托肝而風嗽’ ‘濕居肺而氣咳’ ‘濕留腎而寒喘’ 등과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되어 적합하다. 그러므로 “是故脾濕動而生痰 胃熱靜而作咳”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濕在心而熱痰”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在心而熱痰”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濕在心熱痰”이라

77) 廣博,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88

했다. 이것은 ‘脾濕動而生痰’ ‘胃熱靜而作咳’ ‘濕托肝而風嗽’ ‘濕居肺而氣咳’ ‘濕留腎而寒喘’ 등과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濕在心而熱痰”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濕托肝而風嗽” “濕留腎而寒喘”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托肝而風嗽” “濕留腎而寒喘”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濕在肝而風嗽” “濕有腎而寒喘”이라 하여 ‘托’을 ‘在’ ‘留’를 ‘有’라 했다.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托’ “留”라 했을 뿐만 아니라, ‘托’을 ‘在’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로 생각되고 ‘留’를 ‘有’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로 보인다. 그러므로 “濕托肝而風嗽” “濕留腎而寒喘”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十章 咳嗽’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夫咳者 有聲無痰 嗽者 無聲有痰也, 是故脾濕動而生痰 胃熱靜而作咳, 濕在心而熱痰 濕托肝而風嗽 濕居肺而氣咳 濕留腎而寒喘.

濕在心 熱痰 虛也 天突斜 大敦 少衝補 太白 太谿瀉

濕在肝 風嗽 膝關 曲泉橫 大敦 湧泉補 太白 太衝瀉

濕在肺 氣咳 天突 陰谷 經渠補 尺澤 陰陵泉瀉

濕在腎 寒喘 經渠 復溜補 太白 太谿瀉

“濕在心 熱痰 虛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在心 熱痰 虛也”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濕在心 痰虛”라 하여 ‘熱’ ‘也’를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濕在心 熱痰咳”라 하여 ‘也’를 누락시키면서 ‘咳’를 추가했다. 提綱에서 “濕在心은 “熱痰” “濕托肝은 “風嗽” “濕居肺는 “氣咳” “濕留腎은 “寒喘”이라 한 것을 辨證論治한 것이므로, “濕在心 熱痰”이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天突斜” “膝關 曲泉橫” “天突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天突斜” “膝關 曲泉橫” “天突補”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전부 누락시켰고, 또한 「資料」에서는 “天突補” “膝關 曲泉橫” “天突補”라 하여 ‘斜’를 ‘補’라 했다. 이것은 “天突斜” “膝關 曲泉橫” “天突補”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太白 太衝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太白 太衝瀉”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尺澤 陰陵泉瀉”라 한 것은 舍巖鍼法の 肝病 治法에 적합하지 않고, 오로지 「察病」에서 “太白 太谿瀉”라 한 것은 腎正格에 해당하므로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太白 太衝瀉”라 했으므로, 그대로 두더라도 ‘曲泉橫(肝正格) 大敦 湧泉補(腎正格 A變形)⁷⁸⁾ 太白瀉(腎正格) 太衝瀉(腎正格 C變形)⁷⁹⁾ 혹은 ‘曲泉橫(肝正格) 大敦(肝經의 木井穴을 補) 湧泉補(腎正格 A變形)⁸⁰⁾ 太白瀉(腎正格) 太衝瀉(肝經의 原穴을

78) 金達鎬,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52.

79) 上掲書, pp. 33~39, 52.

80) 上掲書, pp. 33~39, 52.

瀉) 등으로 肝腎俱虛의 처방이 된다. 그러므로 “太白 太衝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濕在肺 氣咳”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在肺 氣咳”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濕在肺 氣嗽”라 하여 ‘咳’를 ‘嗽’라 했다. 이것은 提綱에서 ‘濕居肺는 “氣咳”라 한 것을 辨證論治한 것이므로, “濕在肺 氣咳”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提綱 부분과 합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十章 咳嗽’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濕在心 熱痰 天突斜大敦 少衝補太白 太谿瀉
- 濕在肝 風嗽膝關 曲泉橫大敦 湧泉補太白 太衝瀉
- 濕在肺 氣咳 天突陰谷 經渠補尺澤 陰陵泉瀉
- 濕在腎 寒喘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10-1. 醫學正傳咳嗽⁸¹⁾

河間曰 咳謂無痰而有聲 肺氣傷而不清也. 嗽謂無聲而有痰 脾濕動而生痰也.

大抵 裏秋之氣宜清肅 反動之 氣必上衝而爲咳 甚則動于脾濕 發而爲痰焉.

內經又曰 寒暑燥濕風火 六氣皆令人咳 惟濕病痰飲入胃 留之而不行 上入于肺 則爲咳嗽 假令濕在心經 謂之熱痰 濕在肝經 謂之風痰 濕在肺經 謂之氣痰 濕在腎經 謂之寒痰 爲患不同 宜隨證而治之.

11. 「經濟要訣」第十一章. 哮喘

大抵 哮喘者 喘急 喉中如水鷄聲 謂之哮喘, 喘者 氣促 連屬不能息 謂之喘, 是以熱在三焦 濕在胃中.

哮喘天突斜 丹田迎液門 解谿補中渚 陷谷瀉

“哮喘者 喘急”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哮喘者 喘急”이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哮喘者 喘息”이라 하여 ‘急’을 ‘息’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哮喘」에서 “大抵 哮喘以聲響名 喘以氣息言, 夫喘促喉中如水鷄聲者 謂之哮喘 氣促而連續不能以息者 謂之喘”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喘促’을 ‘喘急’ ‘氣促’을 ‘氣促’이라 하여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哮喘者 喘急”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喉中如水鷄聲 謂之哮喘, 喘者 氣促 連屬不能息 謂之喘”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喉中如水鷄聲 謂之哮喘, 喘者 氣促 連屬不能息 謂之喘”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喉中如水鷄鳴聲 謂喘”이라 하여 ‘鳴’을 추가하면서 ‘謂之哮喘’ ‘者 氣促 連屬不能息’ ‘之’ 등을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喉中如水鷄聲 謂之哮喘, 喘者 氣促 連屬不能息 謂之喘”이라 하여 ‘促’을 ‘促’ ‘屬’을 ‘續’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喉中如水鷄聲 謂之哮喘, 喘者 氣促

81) 虞博,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95.

連續不息 謂之喘"이라 하여 '屬'을 '續'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哮喘』에서 "夫喘促 喉中如水鷄聲者 謂之哮喘. 氣促 而連續不能以息者 謂之喘"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喘'을 추가하면서 '謂之哮喘' '者 氣促 連續不能息' '之' 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促'을 '捉'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이며, '屬'을 '續'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喉中如水鷄聲 謂之哮喘. 喘者 氣促 連續不能息 謂之喘"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以":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以"라 했으나, 『要覽』·『鍼經』에서는 "是故"라 했는데,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是以"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十日章 哮喘'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大抵 哮喘者 喘急 喉中如水鷄聲 謂之哮喘. 喘者 氣促 連續不能息 謂之喘. 是以熱在三焦 濕在胃中.

哮喘天突斜 丹田迎液門 解谿補中渚 陷谷瀉

11-1. 醫學正傳哮喘⁸²⁾

大抵 哮喘以聲響名 喘以氣息言 夫喘促喉中如水鷄聲者 謂之哮喘 氣促而連續不能以息者 謂之喘.

12. 「經濟要訣」第十二章. 瘧疾

內經曰 夏傷於暑 秋爲咳瘧, 先寒後熱 溫瘧 但熱不寒 瘧瘧 熱生 寒瘧.

"秋爲咳瘧": 『要覽』·『鍼灸』에서는 "秋爲瘧瘧"이라 하여 '咳'를 '瘧'라 했고, 『察病』·『秘訣』에서는 "秋爲瘧瘧"이라 하여 '咳'를 '瘧'이라 했으며, 『鍼經』·『資料』에서는 "秋爲咳瘧"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瘧證』에서 "內經曰 夏傷於暑 秋爲咳瘧"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要覽』·『鍼灸』에서 "秋爲瘧瘧"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先寒後熱 溫瘧": 『要覽』·『鍼經』·『鍼灸』·『資料』·『察病』, 등에서는 "先寒後熱 濕瘧"이라 하여 '溫'을 '濕'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先熱後寒 濕瘧"이라 하여 '寒'을 '熱' '熱'을 '寒' '溫'을 '濕'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瘧證』에서 "內經曰……先熱而後寒者 名曰溫瘧"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先熱後寒 濕瘧"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但熱不寒 瘧瘧":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但熱不寒 瘧瘧"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但熱無寒 瘧瘧"이라 하여 '不'을 '無'라 했고, 『秘訣』에서는 "但熱不寒 山川之惡氣 瘧瘧"이라 하여 '山川之惡氣'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瘧證』에서 "內經曰……其但熱而不寒者 名曰瘧瘧"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瘧瘧'을 '瘧瘧'이라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但熱不寒 瘧瘧"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82) 上掲書, p.101.

“熱生 寒瘧”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熱生 寒瘧”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先寒後熱者 寒瘧”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瘧證」에서 “內經曰……先寒而後熱者 名曰寒瘧”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秘訣」에서 “先寒後熱 寒瘧”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十二章 瘧疾’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夏傷於暑 秋爲瘧瘧, 先熱後寒 溫瘧 但熱不寒 瘧瘧 先寒後熱 寒瘧.

熱生 寒瘧通谷 液門補商陽 至陰瀉氣海迎

寒熱交作 溫瘧三里 太谿補支溝 崑崙瀉

熱生 瘧瘧臨泣 陷谷補俠谿 解谿瀉中脘迎

風生 咳瘧商陽 竅陰補委中 陽陵泉瀉

子午卯酉日 少陰瘧完骨 京骨補 鎮靜瀉中脘迎

寅申巳亥日 厥陰瘧陽池 丘墟補合谷 太衝瀉

辰戌丑未日 太陰瘧衝陽 合谷補承山 曲池瀉

“熱生 寒瘧” : 모든 筆寫本에서 “熱生 寒瘧”이라 했으나, 위의 提綱과 마찬가지로 “先寒後熱 寒瘧”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氣海迎”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氣海迎”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氣海迎”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寒熱交作 溫瘧” : 「要覽」·「鍼經」·「鍼灸」·「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寒熱交作 溫瘧”이라 하여 “溫”을 “濕”이라 했고, 「經濟要訣」에서는 “寒熱交作 溫瘧”이라 했는데, 모든 筆寫本에서 “寒熱交作”이라 했으므로, 위의 提綱에서 비록 “先熱後寒 溫瘧”이라 했더라도 「經濟要訣」에서 “寒熱交作 溫瘧”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熱生 瘧瘧”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熱生 瘧瘧”이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但熱不寒 瘧瘧”이라 했다. 위의 提綱에서 “但熱不寒 瘧瘧” “但熱無寒 瘧瘧” “但熱不寒 山川之惡氣 瘧瘧” 등이라 한 후 여기서는 갑자기 “熱生 瘧瘧”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察病」·「秘訣」에서 “但熱不寒 瘧瘧”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俠谿 解谿瀉 中脘迎” : 「要覽」·「資料」·「察病」 등에서는 “俠谿 解谿瀉 中脘迎”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俠谿 解谿瀉 中脘迎”이라 하여 “迎”을 “正”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俠谿 解谿瀉”라 하여 “中脘迎”을 누락

시켰으며, 『秘訣』에서는 “陽谷 解谿瀉 中腕瀉”라 하여 ‘俠谿’를 “陽谷” ‘迎’을 ‘瀉’라 했다. 다른 필사본에서는 모두 “中腕迎”이라 했으나, 『鍼經』에서 “迎”을 “正”이라 한 것과 『鍼灸』에서 ‘瘡瘡’의 ‘中腕迎’ ‘寒瘡’의 ‘氣海迎’ ‘少陰瘡’의 ‘中腕迎’ 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秘訣』에서 “迎”을 “瀉”라 한 것은 手技法이 같으므로 별문제가 없으며 또한 ‘俠谿’를 “陽谷”이라 한 것은 胃勝格 A變形⁸³⁾으로 적합할 것 같지만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俠谿瀉”라 했으므로, “俠谿 解谿瀉 中腕迎”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生 咳瘡” : 『要覽』·『鍼經』·『鍼灸』·『察病』·『秘訣』 등에서는 다 “風生 咳瘡”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위의 提綱에서 “秋爲瘡瘡”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風生 咳瘡”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提綱의 문장과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十二章 瘡疾’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先寒後熱 寒瘡通谷 液門補商陽 至陰瀉氣海迎
 寒熱交作 溫瘡三里 太谿補支溝 崑崙瀉
 但熱不寒 瘡瘡臨泣 陷谷補俠谿 解谿瀉中腕迎
 風生 瘡瘡商陽 竅陰補委中 陽陵泉瀉
 子午卯酉日 少陰瘡完骨 京骨補 鎮靜瀉中腕迎
 寅申巳亥日 厥陰瘡陽池 丘墟補合谷 太衝瀉
 辰戌丑未日 太陰瘡衝陽 合谷補承山 曲池瀉

12-1. 醫學正傳瘡證⁸⁴⁾

內經曰 夏傷于暑 秋爲瘡瘡 又曰 先寒而後熱者 名曰寒瘡 先熱而後寒者 名曰溫瘡 其但熱而不寒者 名曰瘡瘡.

丹溪曰 瘡瘡皆生於風 瘡瘡者老瘡也 以其隔二日一作 夫三日一作者 邪入于三陰經也 作于子午卯酉日者 少陰瘡也 作于寅申巳亥日者 厥陰瘡也 作于辰戌丑未日者 太陰瘡也.

丹溪活套云 如于子午卯酉日發 寒熱嘔吐 舌乾口燥 此少陰經瘡也 如于辰戌丑未日發 寒熱嘔吐 不嗜食 或腹滿自利 此太陰經瘡也 如于寅申巳亥日發 惡寒發熱 寒多熱少 或腹痛引陰 如淋狀 善恐 此厥陰經瘡也.

13. 『經濟要訣』第十三章. 痢疾

83) 金達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53.

84)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04.

凡病者 行血則後濃自愈 和氣則後重快除, 腹痛宜和 身重除濕, 身冷自汗 補火而溫陰土, 風邪外束 治濕而汗, 表病宜發 裏症和解, 在上者湧湧 在下者渴渴. 是故瀉脾 痛屬腎 激心火以開肺. 先水瀉後瀉血 脾傳腎臟, 先瀉血而後瀉 腎傳臟弱.

“行血則後濃自愈” : 「要覽」·「鍼經」·「察病」 등에서는 “行血則便濃自愈”라 하여 ‘後’를 ‘便’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行血則後濃自愈”라 하여 ‘濃’을 ‘膿’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秘訣」에서는 “行血則便濃息愈”라 하여 ‘後’를 ‘便’ ‘自’를 ‘息’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河間曰 行血則便膿自愈”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行血則便膿自愈”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和氣則後重快除” : 「要覽」·「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에서는 “調氣則後重快止”라 하여 ‘和’를 ‘調’ ‘除’를 ‘止’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和氣則後重自快”라 하여 ‘快除’를 ‘自快’라 했고, 「資料」에서는 “和氣則後重自除”라 하여 ‘快’를 ‘自’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和風則後重快除”라 하여 ‘氣’를 ‘風’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河間曰……和氣則後重自除”라 한 것을 인용하되 ‘自’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快除’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和氣則後重快除”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腹痛宜和 身重除濕” : 「要覽」에서는 “腹痛宜利 身重除濕”이라 하여 ‘和’를 ‘利’라 했고, 「鍼經」에서는 “腹痛宜於 身重除濕”이라 하여 ‘和’를 ‘於’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身重除濕”이라 하여 ‘腹痛宜和’를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腹痛則宜和 身重則除濕”이라 하여 ‘則’을 추가했으며, 「察病」에서는 “腹痛宜和 身重除濕”이라 하여 ‘除’를 ‘際’라 했고, 「秘訣」에서는 “腹痛身重 宜於除濕”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河間曰……又曰 腹痛則宜和 身重則除濕”이라 한 것을 인용했고, 「資料」를 제외한 모든 筆寫本에서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고 있으므로, “腹痛宜和 身重除濕”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邪外束” : 「要覽」·「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鍼灸」·「秘訣」에서는 “風邪外來”라 하여 ‘束’을 ‘來’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전부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河間曰……風邪外束宜汗之”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風邪外束”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表病宜發 裏症和解” : 「要覽」에서는 “太陰表病宜發 裏病和解”라 하여 ‘太陰’을 추가하면서 ‘症’을 ‘病’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表病宜發表 裏症和解”라 하여 ‘發’을 ‘發表’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전부 누락시켰고, 「察病」에서는 “表病宜發 理症和解”라 하여 ‘裏’를 ‘理’라 했으며, 「鍼經」·「秘訣」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河間曰……在表者發之 在裏者下之”라 한 것을 인용하되, ‘病’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症’이라 하면서 ‘下之’를 ‘和解’라 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太陰’을 추가한 것 ‘症’을 ‘病’ ‘發’을 ‘發表’라 한 것 전부 누락시킨 것 ‘裏’를 ‘理’라 한 것 등은 모두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表病宜發 裏症和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在上者湧湧 在下者渴渴” : 「鍼經」·「察病」·「秘訣」 등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在上者湧 在下者瀉”라 하여 ‘湧湧’을 ‘湧’ ‘渴渴’을 ‘瀉’라 했고, 「鍼灸」에서는 “在上者湧之 在下者渴之”라 하여 ‘湧湧’을 ‘湧之’ ‘渴渴’을 ‘渴之’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전부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河間曰……在上者涌之 在下者渴之”라 한 것을 인용했으나, 「辭源」에 의하면 ‘渴’은 ‘口乾思飲’ ‘急迫함을 비유한 것’ ‘水乾涸’ ‘水之反流’ 등을 뜻하고 ‘渴’은 ‘負擔’ ‘乾涸’ ‘窮盡’ ‘亡’ 등을 뜻하며⁸⁵⁾, 대개 형상을 표현할 경우에 동일한 글자를 중복시키므로, “在上者湧湧 在下者渴渴”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

85) 商務印書館 編輯部, 辭源 第三分冊,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4, pp. 1851, 2341~2342.

다.

“瀉屬脾”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瀉屬脾”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瀉屬於脾”라 했고, 「資料」에서는 전부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夫古方以瀉痢 滾同論治 朱紫混淆 殊不知 瀉屬脾而痢屬腎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瀉屬脾”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激心火以調肺” : 「要覽」·「鍼灸」에서는 “激心火以補肺”라 하여 ‘調’를 ‘補’라 했고, 「鍼經」에서는 “激心火以潤肺”라 하여 ‘調’를 ‘潤’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전부 누락시켰고, 「察病」·「秘訣」에서는 “激心火以動肺”라 하여 ‘調’를 “動”이라 했다. 第七章 火熱門에서 “激旺水而制離” 第八章 鬱門에서 “激君和臣” 第十六章 嘔吐門에서 “激坎令離” 등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激’의 對句로 ‘補’ ‘瀉’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調’를 ‘補’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되고, ‘調’를 ‘潤’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로 생각되며, ‘調’를 ‘動’이라 한 것은 표현에 어색함이 있다. 그러므로 “激心火以調肺”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先水瀉後濃血” “先濃血而後瀉” : 「要覽」에서는 “先水瀉後濃血” “先濃血而後瀉”라 하여 ‘而’를 누락시키면서 ‘水’를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先水瀉而後濃血” “先濃血而後瀉水”라 하여 ‘而’ ‘水’를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先水瀉後膿血” “先膿血而後瀉泄”이라 하여 ‘濃’을 전부 ‘膿’이라 하면서 ‘而’를 생략 ‘泄’을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전부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先水瀉而後濃血” “先濃血而後水瀉”라 하여 ‘而’ ‘水’를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先水瀉後膿血” “先膿血而後水瀉”라 하여 ‘濃’을 전부 ‘膿’이라 하면서 ‘水’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丹溪曰 先水瀉而後膿血者 此脾傳腎 賊邪 難愈 先膿血而後水瀉者 此腎傳脾 微邪 易愈”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先水瀉而後膿血” “先膿血而後水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脾傳腎賊” “腎傳脾弱” : 「要覽」·「秘訣」에서는 “脾傳腎賊” “腎傳脾弱”이라 하여 ‘膿’을 ‘脾’라 했고, 「鍼經」에서는 “脾傳腎賊” “腎傳脾弱 屬脾實也”라 하여 “屬脾實也”를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脾傳腎賊” “腎傳脾弱 屬脾實”이라 하여 “屬脾實”을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전부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痢」에서 “丹溪曰 先水瀉而後膿血者 此脾傳腎 賊邪 難愈 先膿血而後水瀉者 此腎傳脾 微邪 易愈”라 한 것을 인용했고, 또한 「難經·五十難」에서 “病有虛邪 有實邪 有賊邪 有微邪 有正邪 何以別之? 然 從後來者爲虛邪 從前來者爲實邪 從所不勝來者爲賊邪 從所勝來者爲微邪 自病者爲正邪”라 했으므로, “脾傳腎賊” “腎傳脾微”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十三章 痢疾’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凡痢者 行血則便膿自愈 和氣則後重快除, 腹痛宜和 身重除濕, 身冷自汗 補火而溫陰土, 風邪外束 治濕而汗, 表病宜發 裏症和解, 在上者湧湧 在下者渴渴. 是故瀉屬脾 痢屬腎 激心火以調肺. 先水瀉而後膿血 脾傳腎賊, 先膿血而後水瀉 腎傳脾微.

屬脾實 陽谷 隱白補神門 太白瀉經渠正斜

痢屬腎虛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脾傳腎賊 少府 經渠補大都 太白瀉

腎傳膽弱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屬脾實」 「痢屬腎虛」 : 「要覽」에서는 「腎傳膽弱 屬脾實」 「痢屬腎虛」라 하여 「腎傳膽弱」을 추가했고, 「鍼經」·「察病」·「秘訣」에서는 「膽弱 屬脾實」 「痢屬腎虛」라 하여 「膽弱」을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腎傳膽弱 脾實」 「痢屬腎虛」라 하여 「腎傳膽弱」을 추가하면서 「屬」을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腎傳脾 微邪」 「虛痢 腎虛」라 하여 「屬脾實」을 「腎傳脾 微邪」 「痢屬腎虛」를 「虛痢 腎虛」라 했다. 이것은 위의 提綱에서 「瀉屬脾 痢屬腎 激心火以調脾」라 했으므로, 「膽弱 屬脾實」 「痢屬腎虛」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뒤에서 「痢屬腎虛」라 했기 때문에, 「瀉屬脾實」 「痢屬腎虛」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經渠正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渠正斜」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經渠斜」라 하여 「正」을 생략했고, 「鍼灸」에서는 전부 누락시켰다. 「經渠穴」은 바로 아래 橈骨動脈이 지나가기 때문에 直刺(正)하면 위험하므로, 비록 舍巖이 「經渠正斜」라 했더라도 「經渠斜」라 修訂하는 것이 합당하고, 「鍼灸」에서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脾傳腎賊」 「腎傳膽弱」 : 「要覽」에서는 「脾傳腎賊」 「腎傳脾弱」이라 하여 「膽」을 「脾」라 했고, 「鍼經」·「鍼灸」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資料」에서는 「脾傳腎 賊邪」 「瀉痢 脾虛」라 했고, 「察病」에서는 「脾傳腎賊」 「瀉屬脾虛」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脾傳腎賊」 「腎傳脾虛」라 하여 「膽弱」을 「脾虛」라 했다. 이것은 위의 提綱에서 「脾傳腎賊」 「腎傳脾微」라 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大都 太白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大都 太白瀉」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大敦 太白瀉」라 하여 「大都」를 「大敦」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大敦 隱白瀉」라 하여 「大都」를 「大敦」 「太白」을 「隱白」이라 했다. 「鍼灸」에서 「大敦 太白瀉」라 한 것을 따르려면 「少府補(脾正格) 經渠補(腎正格) 大敦瀉(脾正格) 太白瀉(腎正格)」로써 앞에서 「脾傳腎賊」이라 한 것에 합치하고, 「秘訣」에서 「大敦 隱白瀉」라 한 것도 「少府補(脾正格) 經渠補(腎正格) 大敦瀉(脾正格) 隱白瀉(脾正格)」로써 앞에서 「脾傳腎賊」이라 한 것에 합치한다. 그러나 다른 筆寫本에서 다 「太白瀉」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隱白瀉」라 하여 脾正格은 3穴을 사용하면서 腎正格은 1穴만 사용했으므로, 「鍼灸」에서 脾正格은 2穴을 사용하면서 腎正格은 2穴을 사용하여 균형을 맞게 한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大敦瀉 太白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提綱의 문장과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十三章 痢疾」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瀉屬脾實 陽谷 隱白補神門 太白瀉經渠斜

痢屬腎虛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脾傳腎賊 少府 經渠補太敦 太白瀉

腎傳脾微 少府 大都補太敦 隱白瀉

13-1. 醫學正傳痢⁸⁶⁾

內經曰 溲而便膿血 知氣行而血止也 故河間闡明其說 所謂和氣則後重自除。

河間曰 行血則便膿自愈 和氣則後重自除 又曰 腹痛則宜和 身重則除濕 身冷自汗以熱藥溫之 風邪外束宜汗之 又曰 在表者發之 在裏者下之 在上者涌之 在下者竭之。

夫古方以瀉痢 滾同論治 朱紫混淆 殊不知 瀉屬脾 而痢屬腎也。

丹溪曰 先水瀉而後膿血者 此脾傳腎 賊邪 難愈 先膿血而後水瀉者 此腎傳脾 微邪 易愈。

13-2. 難經五十難⁸⁷⁾

五十難曰 病有虛邪 有實邪 有賊邪 有微邪 有正邪 何以別之?

然, 從後來者爲虛邪 從前來者爲實邪 從所不勝來者爲賊邪 從所勝來者爲微邪 自病者爲正邪 何以言微? 假令心病, 中風得之爲虛邪 傷暑得之爲正邪 飲食勞倦得之爲實邪 傷寒得之爲微邪 中混得之爲賊邪。

14. 「經濟要訣」第十四章. 噎膈

經曰 三陽結而噎膈 三陽建而平膈, 大腸金濁 補胃土而金生, 小腸火燥 養臟木而洗心.

噎膈不下 丹田迎 中院正三里 陽陵泉瀉

大腸噎肺濁三里 曲池補通谷 解谿瀉

小腸噎心燥後谿 臨泣補通谷 前谷瀉

三陽噎虛冷商陽 至陰補三里 委中瀉

“三陽結而噎膈” : 「秘訣」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鍼經」·「鍼灸」에서는 “三陽結而噎膈”이라 하여 ‘膈’을 ‘噎’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三陽結而噎膈”이라 하여 ‘膈’을 ‘隔’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三陽結而”라 하여 ‘噎膈’을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舍巖이 「醫學正傳·噎膈」에서 “內經曰 三陽結 謂之膈”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膈’을 ‘噎’ ‘隔’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하면서 글자체가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噎膈’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이다. 그러므로 “三陽結而噎膈”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三陽建而平膈” : 「要覽」에서는 “三陰滯而平膈”이라 하여 ‘三陽’을 “三陰” ‘建’을 “滯”라 했고, 「鍼經」·「鍼

86)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16.

87) 扁鵲原著 稍書撰, 欽定四庫全書·難經本義 1卷, 北京, 商務印書館, p. 489.

灸」에서는 “三陰建而平膈”이라 하여 ‘三陽’을 “三陰” ‘膈’을 “膈”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三陰結而平膈”이라 하여 ‘三陽’을 “三陰” ‘建’을 “結” ‘膈’을 “膈”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三陰逆而平膈”이라 하여 ‘三陽’을 “三陰” ‘建’을 “逆” ‘膈’을 “膈”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三陰建而平膈”이라 하여 ‘三陽’을 “三陰”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噎膈」에서 “內經曰 三陽結 謂之膈. 子和云 三陽者 大·小腸·膀胱也 結 謂熱結也.”라 한 것을 인용했고 또한 「素問·陰陽別論」에서 “三陽結 謂之隔 三陰結 謂之水”라 했으므로, ‘三陽’을 “三陰” ‘建’을 “滯” ‘膈’을 “膈” ‘建’을 “結·逆” ‘膈’을 “隔”이라 한 것 등은 다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三陽建而平膈”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補胃土而生金” “養臍木而洗心” : 「資料」, 「察病」, 「秘訣」 등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補胃土而生金” “養臍木而洗心”이라 하여 ‘金生’을 “生金”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補胃土而生金” “養肝木而洗心”이라 하여 ‘金生’을 “生金”이라 하면서 ‘臍’을 “肝”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補胃土而安金” “養臍木而洗心 氣結胸膈者 是也”라 하여 ‘金生’을 “安金”이라 하면서 “氣結胸膈者 是也”를 추가했다. ‘補胃土而生金’과 ‘養臍木而洗心’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補胃土而生金” “養臍木而洗心”이라 하는 것이 적합하고, 「醫學正傳·噎膈」에서 “子和云 三陽者 大·小腸·膀胱也”라 했으므로 “補胃土” “養臍木”이라 했다. 그러므로 ‘金生’을 “生金”이라 한 것은 합당하고, 유독 ‘臍’을 “肝” ‘金生’을 “安金”이라 한 것과 “氣結胸膈者 是也”를 추가한 것 등은 誤寫로 생각된다.

“噎膈不下” : 「要覽」, 「鍼經」, 「鍼灸」 등에서는 “噎膈不下”라 하여 ‘膈’을 “膈”이라 했고, 「資料」, 「察病」 등에서는 “噎膈不下”라 하여 ‘膈’을 “隔”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噎膈」에서 “內經曰 三陽結 謂之膈”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膈’을 “膈” “隔”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噎膈不下”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通谷 解谿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通谷 解谿瀉”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陽谷 解谿瀉”라 하여 ‘通谷’을 “陽谷”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陽谷 陽谿瀉”라 하여 ‘通谷’을 “陽谷” ‘解谿’를 “陽谿”이라 했다. 「察病」에서 “陽谷 解谿瀉”라 한 것은 胃勝格 A變形⁸⁸⁾으로 앞에서 “大腸噎 肺濁 三里 曲池補(大腸正格)”라 한 것에 어긋나고, 「秘訣」에서 “陽谷 陽谿瀉”라 한 것은 역시로 大腸正格에 맞춘 것으로 보이며,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三里 曲池補(大腸正格) 通谷瀉(三焦正格) 解谿瀉(胃經의 火經穴을 瀉)”라 했으므로, “通谷 解谿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三陽噎 虛冷”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三陽噎 虛冷”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膀胱噎 虛冷”이라 하여 ‘三陽’을 “膀胱”이라 했다. 뒤의 “商陽 至陰補(膀胱正格) 三里 委中瀉(膀胱正格)”으로 보면 “膀胱噎”도 적합하지만, 다른 筆寫本에서 다 “三陽噎 虛冷”이라 했으므로 “三陽噎 虛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提綱과 辨證論治의 문장이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の ‘第十四章 噎膈’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

88) 金達錫, 舍巖鍼法の 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56.

되어야 한다.

經曰 三陽結而噎膈 三陽建而平膈, 大腸金濁 補胃土而生金, 小腸火燥 養膽木而洗心,
 噎膈不下 丹田迎 中脘正三里 陽陵泉瀉
 大腸噎肺濁 三里 曲池補通谷 解谿瀉
 小腸噎心燥 後谿 臨泣補通谷 前谷瀉
 三陽噎虛冷 商陽 至陰補三里 委中瀉

14-1. 素問陰陽別論⁸⁹⁾

三陽結 謂之隔 三陰結 謂之水.

14-2. 醫學正傳噎膈⁹⁰⁾

內經曰 三陽結 謂之隔.

子和云 三陽者 大小腸膀胱也 結 謂熱結也.

15. 「經濟要訣」第十五章. 飢逆

內經曰 諸逆衝上 皆屬火, 丹溪曰 飢病氣逆 以其氣 自臍下直衝上 出於口之名也.
 此病有五 飢氣逆 金濁弱也.

肺飢 金濁 三里 曲池補陽谿 解谿瀉

心飢逆 火燥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冷飢逆 水瀆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濕飢逆 土敗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第十五章 飢逆”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第十五章 飢逆”이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第十五章 呃逆”이라 하여 ‘飢’을 ‘呃’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飢逆」을 인용했으므로 “第十五章 飢逆”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諸逆衝上 皆屬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諸逆衝上 皆屬火”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諸逆衝上 皆屬於火”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飢逆」에서 “內經曰 諸逆衝上 皆屬於火. 丹溪曰 飢病氣逆也 以其氣 自臍下直衝上 出于口之名也.”라 한 것 가운데 “內經曰 諸逆衝上 皆屬火”를 인용하여 뒤의 ‘丹溪曰 飢病

89)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素問 陰陽別論 第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7.

90) 吳博, 醫學正傳 噎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28.

氣逆 以其氣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諸逆衝上 皆屬火”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丹溪曰”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丹溪曰”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누락시켰는데,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 飢逆」에서 “丹溪曰 飢病氣逆也 以其氣 自臍下直衝上 出于口之名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丹溪曰”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飢病氣逆”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飢病氣逆”이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飢病逆”이라 하여 ‘氣’를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飢病氣逆”이라 하여 ‘飢’을 “呃”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 飢逆」에서 “丹溪曰 飢病氣逆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飢病氣逆”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以其氣自臍下直衝上 出於口之名也” : 「要覽」에서는 “其氣自臍下直衝上 出於口之名也”라 하여 ‘以’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以其自臍下直衝上 出於口之名也”라 하여 ‘氣’를 누락시켰으며, 「鍼灸」에서는 “以氣自臍下直衝上 出於口之名也”라 하여 ‘其’를 누락시켰고, 「資料」· 「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秘訣」에서는 “以其氣自臍下 直上衝於口之名也”라 하여 ‘衝上’을 “上衝”이라 하면서 ‘出’을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 飢逆」에서 “丹溪曰 飢病氣逆也 以其氣 自臍下直衝上 出于口之名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以其氣自臍下直衝上 出於口之名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飢氣逆 金濁弱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飢氣逆 金濁弱也”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氣逆 金濁也”라 하여 ‘飢’· ‘弱’을 누락시켰는데, “飢氣逆 金濁弱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肺飢” “心飢逆” “冷飢逆” “濕飢逆”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肺飢” “心飢逆” “冷飢逆” “濕飢逆”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肺飢” “心飢” “冷飢逆” “濕飢逆”이라 하여 ‘心飢逆’을 “心飢”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肺逆” “心逆” “冷逆” “濕逆”이라 하여 ‘肺飢’을 “肺逆”이라 하면서 ‘飢’을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氣呃逆” “心呃逆” “冷呃逆” “濕呃逆”이라 하여 ‘肺飢’을 “氣呃逆”이라 하면서 ‘飢’을 “呃”라 했다. 이 부분은 提綱에서 “此病有五 飢氣逆”이라 한 것과 관련되므로, ‘心飢逆’을 “心飢”이라 한 것 ‘肺飢’을 “肺逆”이라 한 것 ‘飢’을 누락시킨 것 ‘肺飢’을 “氣呃逆”이라 한 것 ‘飢’을 “呃”라 한 것 등은 다 誤寫로 생각되며, “心飢逆” “冷飢逆” “濕飢逆” 등 이라 했으나 “肺飢”이라 한 것은 對句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肺飢逆” “心飢逆” “冷飢逆” “濕飢逆”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水瀉” : 「要覽」· 「鍼經」· 「鍼灸」· 「資料」· 「察病」 등에서는 다 “水瀉”이라 하여 ‘瀉’을 “瀉”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水瀉”이라 하여 ‘瀉’을 “瀉”이라 했다. 「辭源」에 의하면 ‘瀉’은 ‘往來搖動’ ‘震動不安· 動搖’ ‘放縱’ ‘廢壞· 毀壞’ 등의 뜻으로 쓰인다고 했으므로⁹¹⁾, “瀉”이라 하거나 “瀉”이라 하는 것보다 “瀉”이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水瀉”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陽谿 解谿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陽谿 解谿瀉”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陽谿 解谿瀉”라 하여 ‘陽谿’를 “陽谿”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陽谿 陽谷瀉”라 하여 ‘解谿’를 “陽谿”이라 했다. 「察病」에서 “陽谿 解谿瀉”라 한 것을 따르다면 胃勝格 A變形⁹²⁾에 해당하여 “肺飢 金濁 三里 曲池補(大腸正格)”이라 한 것에 어긋나고, 「秘訣」에서 “陽谿 陽谷瀉”라 한 것은 大腸正格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陽谿 陽谷瀉”라 한 것처럼 「秘訣」에서는 第三章 天地運氣門의 ‘六庚之年’에서 “陽谿 解谿補”를 “陽谿 陽谷補” 第八章 鬱門의 ‘土鬱寡之’에서 “陽谿 解谿瀉”를 “陽谿 陽谿瀉” 第十二章 痞疾門의 ‘瘵瘵’에서 ‘依谿 解谿瀉’를 “陽谿 解谿瀉” 第十四章 啞隔門의 ‘大腸啞’에서 “通谿 解谿瀉”를 “陽谿 陽谿瀉” 등으로 다른 筆寫本들과 달리 自意的으로 수정했

91) 商務印書館 編輯部, 辭源 第三分冊,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4, p. 2711.

92) 金達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57.

으로, “三里 曲池補(大腸正格) 陽谿瀉(大腸正格) 解谿瀉(大腸正格 C變形)”⁹³⁾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逆(風哕逆) 木傷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없었으나, 「察病」에서는 “風逆 木傷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를 추가했고, 「秘訣」에서도 “風哕逆 木傷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提綱에서 “此病有五 飢氣逆”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提綱과 辨證論治의 문장이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原理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の ‘第十五章 飢逆’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諸逆衝上 皆屬火, 丹溪曰 飢病氣逆 以其氣 自臍下直衝上 出於口之名也. 此病有五 飢氣逆 金濁弱也.

肺飢逆金濁 三里 曲池補陽谿 解谿瀉
 心飢逆火燥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冷飢逆水蕩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濕飢逆土敗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風飢逆 木傷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15-1. 醫學正傳飢逆⁹⁴⁾

內經曰 諸逆衝上 皆屬于火.

丹溪曰 飢病氣逆也 以其氣 自臍下直衝上 出于口之名也.

16. 「經濟要訣」第十六章. 嘔吐

經曰 嘔者 屬於膈火, 吐者 出於傷脾, 噦屬胃口 物腐燒司之鄉, 濕在脾屬 滯積都熱之地. 是以激感令離 補土實金, 以通三焦順下 以啓五行調中, 迎丹田者 未信 送碧海之精裝.

93) 上掲書, pp. 33~39, 57.

94) 虞博,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32.

嘔 屬火實也 陰谷 少海補大敦 少衝瀉

吐者 脾弱也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噦者 胃虛也 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經曰」: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曰」이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屬於膈火」: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屬於膈火」라 했으나, 「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屬於膈火」라 하여 「膈」을 「隔」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嘔吐」에서 「河間曰 胃膈熱甚則爲嘔」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膈」을 「隔」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屬於膈火」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噦屬胃口」 「濕在脾膈」: 「要覽」·「鍼灸」·「秘訣」 등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鍼經」에서는 「噦屬胃口」 「以濕在脾膈」이라 하여 「以」를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噦屬胃口」 「濕在脾膈」이라 하여 「膈」을 「隔」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噦屬於胃口」 「濕在脾膈」이라 하여 「於」를 추가하면서 「膈」을 「隔」이라 했다. 「噦屬胃口」와 「濕在脾膈」은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以」 「於」 등을 추가한 것은 이에 어긋나고, 「膈」을 「隔」이라 한 것은 위의 「屬於膈火」에서 말한 바와 같이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噦屬胃口」 「濕在脾膈」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物腐摠司之鄉」 「滯積都熱之地」: 「要覽」에서는 「物腐惣司之鄉」 「滯積都熱之地」라 하여 「摠」을 「惣」 「熱」을 「塾」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物腐惣司之」 「滯積都塾之地」라 하여 「摠」을 「惣」 「熱」을 「塾」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物腐摠司之鄉」 「滯積都塾之地」이라 하여 「熱」을 「塾」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物腐摠司之鄉」 「滯積都塾之地」라 하여 「司」를 「歸」 「熱」을 「塾」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物腐摠司之鄉」 「滯積都塾之地」라 하여 「熱」을 「塾」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物腐總司之鄉」 「滯積都塾之地」라 하여 「摠」을 「總」 「熱」을 「塾」이라 했다. 「摠」을 「惣」이라 한 것은 第一章 中風門에서 「摠上大略」을 「惣上大略」이라 한 것과 같이 「惣」의 譌字이니 발음이 같음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고, 「摠」을 「總」이라 한 것은 서로 통할 수 있으나 아래의 「醫學正傳·嘔吐」에서 「胃者摠司也」라 했으므로 「摠」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다른 筆寫本에서는 다 「司」라 했으나 「歸」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熱」 「塾」 「塾」 「塾」 「塾」 등이라 한 것은 다 「熱」이라 해야 할 것을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物腐摠司之鄉」 「滯積都熱之地」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激感令離」: 「要覽」에서는 「激坎平離」라 하여 「感」을 「坎」 「令」을 「平」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激感令腐」라 하여 「離」를 「腐」라 했으며, 「鍼灸」·「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激坎令離」라 하여 「感」을 「坎」이라 했다. 「令」을 「平」 「離」를 「腐」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感」을 「坎」이라 한 것은 적당하다. 그러므로 「激坎令離」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補土實金」: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補土實金」이라 했으나, 「要覽」·「鍼經」에서는 「補土生金」이라 하여 「實」을 「生」이라 했다. 第十四章 噎膈門에서 「經曰 補胃土而生金」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實」을 「生」이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要覽」·「鍼經」에서 「補土生金」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以通三焦順下 以啓五行調中」: 「要覽」·「鍼經」·「鍼灸」 등에서는 「通三焦以順下 啓五行以調中」이라 하

여 '以'를 '三焦'와 '五行'의 뒤에 배치했고, 『資料』에서는 "通三焦以順下 啓五行以調"라 하여 '以'를 '三焦'와 '五行'의 뒤에 배치하면서 '中'을 누락시켰으며, 『察病』·『秘訣』에서는 "通三焦而順下 啓五行而調中"이라 하여 '以'를 '而'라 하면서 '三焦'와 '五行'의 뒤에 배치하고 '中'을 "平"이라 했다. '中'을 누락시킨 것과 '中'을 "平"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以' '而'를 '三焦'와 '五行'의 뒤에 배치한 것은 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要覽』·『鍼經』·『鍼灸』·『資料』 등에서 '以'를 '三焦'와 '五行'의 뒤에 배치하여 "通三焦以順下 啓五行以調中"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迎丹田者未信 送碧海之歸裝』: 『要覽』·『秘訣』 등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鍼經』·『鍼灸』 등에서는 "迎丹田者未信 送碧海歸裝"이라 하여 '之'를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迎丹田未信 送碧海之歸裝"이라 하여 '者'를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迎丹田者未信 送碧海之歸裝"이라 하여 '海'를 누락시켰다. '迎丹田者未信'과 '送碧海之歸裝'은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之' '者' '海' 등을 누락시킨 것은 이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迎丹田者未信 送碧海之歸裝"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嘔屬火實也』: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嘔屬火實也"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嘔者火實"이라 하여 '屬'을 '者'라 하면서 '也'를 누락시켰다. 아래에서 "吐者脾弱也" "噦者胃虛也"라 하여 다 五言節句를 이루게 했으므로 여기서도 "嘔屬火實也"라 하여 五言節句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嘔屬火實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吐者脾弱也』: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吐者脾弱也"라 했으나, 『察病』·『秘訣』 등에서는 "吐者脾虛也"라 하여 '弱'을 '虛'라 했다. 第二章 傷寒門에서 "夏熱感者 心弱" 第四章 中暑門에서 "暑者 心弱" 第九章 痰飲門에서 "肝弱而受邪" 第十五章 經逆門에서 "金瀉弱也" 第二十六章 頭痛門에서 "頸項痛 肝弱" 第二十八章 腹痛門에서 "腎弱 冷痛" 第三十章 脇痛門에서 "肝弱逢金" 第三十四章 痛風門에서 "筋痺肝弱"·"脈痺小腸弱" 등이라 한 것을 미루어 보면 "吐者脾弱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十六章 嘔吐'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嘔者 屬於膈火, 吐者 出於傷脾, 噦屬胃口 物腐摠司之鄉, 濕在脾膈 滯積都熟之地, 是以激坎令離 補土生金, 通三焦以順下 啓五行以調中, 迎丹田者未信 送碧海之歸裝.

嘔屬火實也陰谷 少海補大敦 少衝瀉
吐者脾弱也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噦者胃虛也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16-1. 醫學正傳嘔吐⁹⁵⁾

95) 虞搏, 醫學正傳 嘔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23.

內經曰 諸嘔吐酸 暴注下迫 皆屬於火.

東垣曰 夫嘔吐噎 三者俱屬於胃 胃者摠司也 以其氣血多少爲異耳.

河間曰 胃膈熱甚則爲嘔 火氣炎上之象也 吐證有三 氣·積·寒也 皆從三焦論之.

17. 「經濟要訣」第十七章. 吞酸

內經曰 諸吐吞酸 皆是寒熱交作 不能順下 故也. 又曰 酸者 肝木之味, 故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自甚 故吞酸也, 如飲食熱 則易於酸 是以肝熱 則口酸也.

食熱酸中院正丹田迎氣海瀆

心熱酸大敦 少衝補曲泉 少海瀆

肝熱酸陰谷 曲泉補豐道 中封瀆

“皆是寒熱交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皆是寒熱交作”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皆是寒熱而交作”이라 하여 ‘而’를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又曰 酸者”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又曰 酸者”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又口酸者”라 하여 ‘曰’을 ‘口’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吞酸」에서 “內經曰 諸嘔吐酸 皆屬於熱 惟李東垣 獨以爲寒 誠一偏之見也. 河間 原病式曰 酸者肝木之味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曰’을 ‘口’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故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自甚 故吞酸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資料」에서는 “故由火盛 金不能平木 則肝自甚 故吞酸也”라 하여 ‘制’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故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者自甚 故吞酸也”라 하여 ‘者’를 추가했으며, 「察病」에서는 “故由火盛制金 不能平木”이라 하여 “則肝自甚 故吞酸也”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吞酸」에서 “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木自甚 故爲酸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制’ ‘則肝自甚 故吞酸也’ 등을 누락시킨 것과 ‘者’를 추가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故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自甚 故吞酸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如飲食熱 則易於酸 是以肝熱 則口酸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資料」에서는 “如飲食熱 易於酸 是以肝熱 則口酸也”라 하여 ‘則’을 누락시켰고, 「察病」에서는 “則口酸也”라 하여 “如飲食熱 則易於酸 是以肝熱”을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如飲食熱 則易爲酸 是故肝熱 則口酸也”라 하여 ‘於’를 ‘爲’ ‘以’를 ‘故’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吞酸」에서 “如飲食熱 則易于酸矣. 是以肝熱 則口酸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則’ ‘如飲食熱 則易於酸 是以肝熱’ 등을 누락시킨 것과 ‘於’를 ‘爲’ ‘以’를 ‘故’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如飲食熱 則易於酸 是以肝熱 則口酸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の '第十七章 吞酸'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諸吐吞酸 皆是寒熱交作 不能順下 故也. 又曰 酸者 肝木之味, 故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自甚 故吞酸也, 如飲食熱 則易於酸 是以肝熱 則口酸也.

食熱酸中脘 正丹田迎氣海瀉

心熱酸大敦 少衝補曲泉 少海瀉

肝熱酸陰谷 曲泉補靈道 中封瀉

17-1. 醫學正傳吞酸⁹⁶⁾

內經曰 諸嘔吐酸 皆屬于熱 惟李東垣 獨以爲寒 誠一偏之見也.

河間 原病式曰 酸者肝木之味也 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木自甚 故爲酸也 如飲食熱 則易于酸矣 是以肝熱 則口酸也.

18. 「經濟要訣」第十八章. 嘈雜暖氣

凡胃 水穀之海 無物不受. 若夫得麵·魚腥·水果·生冷 以烹飪和調 粘滑難化物 姿食無節.

嘈雜 傷脾 痞滿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暖氣 反胃 膈噎中脘 陽谷補臨泣 陷谷瀉

“若夫得麵·魚腥·水果·生冷”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若夫得麵·魚腥·水果·生冷”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若夫得麵·魚腥·水·生冷”이라 하여 ‘果’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若夫得麵·魚腥·水果·生冷物”이라 하여 ‘物’을 추가시켰으며, 「秘訣」에서는 “若濕麵·魚腥·水果·生冷”이라 하여 ‘夫得’을 “濕”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嘈雜暖氣」에서 “內經曰……若夫濕麵魚腥 水果生冷”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果’를 누락시킨 것과 ‘物’을 추가시킨 것은 謄寫가 분명하고, ‘若夫得麵’도 “若夫濕麵”이라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若夫濕麵·魚腥·水果·生冷”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以烹飪和調 粘滑難化物 姿食無節” : 「要覽」에서는 “以烹飪和調 粘滑難化 姿食無節”이라 하여 ‘物’을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以烹飪和調 粘滑難化物 姿食無節次之也”라 하여 “次之也”를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以烹飪和調 粘滑難化之物 資食無節”이라 하여 ‘之’를 추가하면서 “姿”를 “資”라 했고, 「資料」에서는 “以烹飪和調 粘滑難化物 資食節”이라 하여 “姿”를 “資”라 하면서 “無”를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以烹飪和調 粘滑難化物 恣食無節”이라 하여 “姿”를 “恣”라 했고, 「秘訣」에서는 “以及烹飪和調 粘滑難化物 恣食無節”이라 하여

96)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34.

‘以’를 ‘以及’이라 하면서 ‘姿’를 ‘恣’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嗜雜噯氣』에서 “以及烹飪調和 粘滑難化等物 恣食無節”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物’·‘無’를 누락시킨 것 ‘次之也’·‘之’를 추가한 것 ‘姿’를 ‘資’라 한 것 등은 다 誤寫가 분명하고, ‘以’를 ‘以及’ ‘姿’를 ‘恣’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以及烹飪和調 粘滑難化物 恣食無節”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噯氣 反胃 隔噯”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噯氣 反胃 隔噯”이라 했으나, 『資料』에서는 “噯氣 反胃 噯隔”이라 하여 “隔噯”을 “噯隔”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噯氣 反胃 隔噯”이라 하여 “隔噯”을 “膈噯”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嗜雜噯氣』에서 “故謂嗜雜噯氣 吞酸痞滿 甚則爲翻胃膈噯 卽此之由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秘訣』에서 “噯氣 反胃 膈噯”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十八章 嗜雜·噯氣’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凡胃 水穀之海 無物不受, 若夫濕麵·魚腥·水果·生冷 以及烹飪和調 粘滑難化物 恣食無節.

嗜雜 傷脾 痞滿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噯氣 反胃 膈噯中脘 陽谷補臨泣 陷谷瀉

18-1. 醫學正傳嗜雜噯氣⁹⁷⁾

內經曰 胃爲水穀之海 無物不受. 若夫濕麵魚腥 水果生冷 以及烹飪調和 粘滑難化等物 恣食無節 故謂嗜雜噯氣 吞酸痞滿 甚則爲翻胃膈噯 卽此之由也.

19. 『經濟要訣』第十九章. 腫脹

內經曰 濕腫滿於脾胃 熱冷脹於心肝. 脾虛不能制水 水終漬於妄行 心實自竅濁金 金始濁於失走, 通身易浮 名曰水腫. 四肢漸泮 號爲熱脹 在胸腹 冷氣衝於面目. 引天運於升降 量地氣於補瀉, 醫能虛實 病何到骨!

濕滿 胃敗氣海迎陽谷補臨泣 陷谷瀉

熱脹 心竅丹田塞 陰谷 曲泉補太白 神門瀉

氣脹 肺實膏肓補 少府 勞宮補湧泉 然谷瀉

97) 上揭書, p. 136.

水腫 腎溢水分科 太白 太谿補經渠 復溜瀉

數脈 肺濁中院正 神門 太淵補魚際 大都瀉

“濕腫滿於脾胃”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腫滿於脾胃”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濕腫滿於脾”라 하여 ‘胃’를 누락시켰는데, 뒤의 문장들이 ‘濕腫滿於脾胃’ ‘熱冷脹於心肝’ ‘脾虛不能制水’ ‘水終瀆於妄行’ ‘心實自姿濁金’ ‘金始濁於失走’ 등과 같이 다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胃’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水終瀆於妄行” : 「要覽」·「察病」·「秘訣」 등에서는 “水終瀆於妄行”이라 했으나, 「鍼經」·「資料」에서는 “火終瀆於妄行”이라 하여 ‘水’를 ‘火’ ‘瀆’를 ‘瀆’라 했고, 「鍼灸」에서는 “火終瀆於妄行”이라 하여 ‘水’를 ‘火’ ‘瀆’를 ‘瀆’라 했다. 이 부분은 舍岩이 「醫學正傳·腫脹」에서 “夫脾虛不能制水 水瀆妄行”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水’를 ‘火’ ‘瀆’를 ‘瀆’·‘瀆’ 등이라 한 것은 다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水終瀆於妄行”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心實自姿濁金” : 「要覽」·「鍼經」·「資料」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灸」에서는 “心實自姿濁金”이라 하여 ‘姿’를 ‘憑’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心實自姿濁金”이라 하여 ‘姿’를 ‘恣’라 했고, 「秘訣」에서는 “心實自姿觸金”이라 하여 ‘姿’를 ‘恣’ ‘濁’을 ‘觸’이라 했다. 第十八章 嗜雜·噯氣的 ‘恣食無節’과 마찬가지로 ‘姿’를 ‘恣’라 해야 적합하므로 ‘恣’를 ‘姿’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하면서 글자체도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恣’를 ‘憑’ ‘濁’을 ‘觸’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心實自姿濁金”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通身易浮 名曰水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通身易浮 名曰水腫”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通身易浮 名水腫”이라 하여 ‘曰’을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뒤의 ‘四肢漸彌 號爲熱脹’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曰’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通身易浮 名曰水腫”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四肢漸彌 號爲熱脹”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四肢漸彌 號爲熱脹”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四肢漸彌 號爲脹”이라 하여 ‘熱’을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四肢漸彌 號謂熱脹”이라 하여 ‘漸彌’을 ‘衛彌’ ‘爲’를 ‘謂’라 했다. ‘熱’을 누락시킨 것파 ‘漸彌’을 ‘衛彌’ ‘爲’를 ‘謂’라 한 것 등은 다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四肢漸彌 號爲熱脹”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在胸腹 冷氣衝於面目”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在胸腹 冷氣衝於面目”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熱脹在胸腹 冷氣衝於面目”이라 하여 ‘熱脹’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在胸腹冷氣 上衝於面目”이라 하여 ‘上’을 추가했다. 다른 것은 대부분 對句를 이루게 했으나 ‘在胸腹 冷氣衝於面目’은 對句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鍼經」에서 ‘上’을 추가하여 “在胸腹冷氣 上衝於面目”이라 한 것처럼 對句를 이루게 한다면 상당히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在胸腹冷氣 上衝於面目”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引天運於升降”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引天運於升降”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天運於升降”이라 하여 ‘引’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뒤의 ‘量地氣於補瀉’와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引’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引天運於升降”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醫能虛實 病何到骨!”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醫能虛實 病何到骨!”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醫能知虛實 可以治之”라 하여 ‘知’를 추가하면서 ‘病何到骨’을 “可以治之”라 했다. ‘醫能虛實’과 ‘病何到骨’은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知’를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다른 필사본은 다 “病何到骨!”이라

했으나 “可以治之”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醫能虛實 病何到骨!”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陽谷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陽谷補”라 했으나, 「要覽」·「秘訣」에서는 “解谿 陽谷補”라 하여 “解谿”를 추가했다. 第三章 天地運氣門의 ‘六甲之年’에서 “經渠 復溜補 太白瀉” 第五章 濕症門의 ‘外傷濕者’에서 “陽谷補 臨泣 陷谷瀉” 第二十七章 胃脘痛門의 ‘脾痛’에서 “少府 大都補 隱白瀉” 등이라 한 것처럼 때에 따라 한 개의 ‘穴’만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解谿’를 추가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陽谷補”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丹田奪”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丹田奪”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少府 勞宮補 湧泉 然谷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少府 勞宮補 湧泉 然谷瀉”라 했으나, 「要覽」·「鍼經」·「察病」 등에서는 “少府 勞宮迎 湧泉 然谷瀉”라 하여 ‘補’를 “迎”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少府 勞宮補 湧泉 陰谷瀉”라 하여 ‘然谷’을 “陰谷”이라 했다. 「靈樞·小鍼解」에서 “迎而奪之者 瀉也. 追而濟之者 補也.”⁹⁸⁾라 한 것처럼 ‘迎’은 ‘瀉’이므로, 이를 따르다면 少府瀉는 肝勝格 혹은 肺正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迎’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또 다른 筆寫本에서 다 “然谷瀉”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陰谷瀉”라 한 것도 誤寫로 생각된다.

“脾虛不能制水 水終漬於妄行 心實自恣濁金 金始濁於失走, 通身易浮 名曰水腫, 四肢漸滿 號爲熱脹 在胸腹冷氣衝於面目.”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濟要訣”과 文章의 배치가 동일했으나, 「秘訣」에서는 “脾虛不能制水 水終漬於妄行 通身易浮 名曰水腫, 心實自恣濁金 金始濁於失走 四肢漸滿 號爲熱脹, 在胸腹冷氣衝於面目.”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腫脹」에서 “內經曰 諸濕腫滿 皆屬於脾 又曰 諸腹脹大 皆屬於熱, 夫脾虛不能制水 水漬妄行 故通身面目手足皆浮而腫 名曰水腫.”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心實自恣濁金 金始濁於失走 四肢漸滿 號爲熱脹, 在胸腹冷氣 上衝於面目”이라 한 것을 추가하면서 ‘水腫’과 ‘脹滿’을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脾虛不能制水 水終漬於妄行 通身易浮 名曰水腫, 心實自恣濁金 金始濁於失走 四肢漸滿 號爲熱脹, 在胸腹冷氣 上衝於面目.”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의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의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의 ‘第十九章 腫脹’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濕腫滿於脾胃 熱冷脹於心肝, 脾虛不能制水 水終漬於妄行 通身易浮 名曰水腫, 心實自恣濁金 金始濁於失走 四肢漸滿 號爲熱脹, 在胸腹冷氣 上衝於面目, 引天運於升降 量地氣於補瀉, 醫能虛實 病何到骨!

濕滿 胃敗氣海迎陽谷補臨泣 陷谷瀉

熱脹 心實丹田奪 陰谷 曲泉補太白 神門瀉

98)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靈樞 小鍼解 第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72.

氣脹 肺實膏肓補 少府 勞宮補湧泉 然谷瀉
 水脹 腎溢水分科 太白 太谿補經渠 復溜瀉
 穀脹 肺濁中脘正 神門 太淵補魚際 大都瀉

19-1. 醫學正傳腫脹⁹⁹⁾

內經曰 諸濕腫滿 皆屬於脾 又曰 諸腹脹大 皆屬於熱.
 夫脾虛不能制水 水漬妄行 故通身面目手足皆浮而腫 名曰水腫.

20. 「經濟要訣」第二十章. 積聚

夫積者 五臟之陰 聚者 六腑之陽, 陰沈而伏 陽浮而動. 是故 積者 其始發有滯處 其痛不離其部, 聚者 始終無根本 而發動無定位. 以此 無定者乘六 有滯者始五.

“是故”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故”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是以”라 하여 ‘故’를 “以”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其始發有滯處”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其始發有滯處”라 했으나, 「要覽」·「察病」에서는 “其始發有常處”라 하여 ‘滯’를 “常”이라 했다. 앞뒤의 문장에서 “積者……有滯處……, 聚者……無定位……無定者……有滯者……”라 했으므로, “常”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其始發有滯處”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發動無定位”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發動無定位”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發動無定處”라 하여 ‘位’를 “處”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積聚」에서 “聚者 陽氣也, 其始發無根本 痛發無所定位.”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處”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發動無定位”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以此 無定者乘六 有滯者始五” : 「要覽」에서는 “以此 無定者乘六 有常者始五”라 하여 ‘滯’를 “常”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以無定位者 爲六聚 有滯者 是五積也”라 하여 ‘此’·‘乘’ 등을 누락 ‘位’·‘爲’·‘聚’·‘積’·‘也’ 등을 추가하면서 ‘始’를 “是”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以此 無定者乘六 有滯者治五”라 하여 ‘始’를 “治”라 했고, 「資料」에서는 “積有五 聚有六”이라 하여 ‘以此’를 누락시키면서 간략하게 했으며, 「察病」에서는 “以此 無定者乘 有滯者治五臟”이라 하여 ‘六’을 누락 ‘臟’을 추가하면서 ‘乘’을 “乘” ‘始’를 “治”라 했고, 「秘訣」에서는 “以此 無定者乘六 有滯者治也”라 하여 ‘五’를 누락 ‘也’를 추가하면서 ‘始’를 “治”라 했다. 위의 ‘其始發有滯處’에서 말한 바와 같이 ‘滯’를 “常”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無定者乘六’과 ‘有滯者始五’는 五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此’·‘乘’·‘六’·‘五’ 등을 누락시킨 것과 ‘位’·‘爲’·‘臟’·‘聚’·‘積’·‘也’ 등을 추가한 것은 다 誤寫로 생각되며, 「察病」·「資料」에서 ‘以此’를 누락시킨 것과 「資料」에서 “積有五 聚有六”이라 하여 간략하게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고, ‘始’를 “是”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이며, ‘始’를

99) 虞搏, 醫學正傳 腫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40.

“治”乘을 “乘”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以此 無定者乘六 有滯者始五”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二十章 積聚’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經濟要訣」을 따라야 한다.

夫積者 五臟之陰 聚者 六腑之陽, 陰沈而伏 陽浮而動. 是故 積者 其始發有滯處 其痛不離其部, 聚者 始終無根本 而發動無定位. 以此 無定者乘六 有滯者始五.

肝積 食積 在左脇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心積 伏梁 在臍上 大敦 少衝補陰谷 氣海瀉

脾積 痞氣 在胃中脘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肺積 息贍 在右脇 太白 太淵補勞宮 魚際瀉

腎積 奔豚 在臍下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天應穴 中脘正丹田迎氣海 天樞 鎮靜 三陰交正或斜

“肝積 食積” : 「要覽」에서는 “肝積 痞氣”라 하여 “食積”을 “痞氣”라 했고, 「鍼經」에서는 “肝積 痞”라 하여 “食積”을 “痞”라 했으며, 「鍼灸」·「察病」·「秘訣」 등에서는 “肝積 肥氣”라 하여 “食積”을 “肥氣”라 했고, 「資料」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積聚」에서 “肝之積 名曰肥氣 在左脇下”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食積”을 “肥氣”라 한 것은 적합하고, “食積” “痞氣” “痞” 등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肝積 肥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在臍上”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在臍上”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在命骨”이라 하여 “臍上”을 “命骨”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積聚」에서 “心之積 名曰伏梁 起臍上 大如臂 上至心下”라 한 것을 인용했고, 나머지 네 가지 “積”을 “在左脇(肝積)” “在右脇(肺積)” “在胃中(脾積)” “在臍下(腎積)” 등이라는 部位로 표현했으므로, “命骨”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在臍上”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陰谷 氣海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谷 氣海瀉”라 했으나, 「鍼經」·「察病」·「秘訣」 등에서는 “陰谷 少海瀉”라 하여 “氣海”를 “少海”라 했다. “陰谷 少海瀉”는 心正格에 해당하고, 肝積의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는 肝正格 脾積의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는 脾正格 肺積의 “太白 太淵補 勞宮 魚際瀉”는 肺正格과 肺正格 〇變形¹⁰⁰⁾ 腎積의 “經渠 復溜補 太白 太谿瀉”는 腎正格 등을 사용하면서 “天應穴 中脘正 丹田迎 氣

100) 金達錫, 舍巖鍼法の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60.

海 天樞 鎮靜 三陰交正或斜” 등의 穴을 함께 사용하라고 했으므로, “陰谷 少海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脾積 痞氣 在胃中脘”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脾積 痞氣 在胃中脘”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脾積 痞氣 在胃中”이라 하여 ‘脘’을 생략했고, 『鍼經』에서는 “脾積 肥氣 在胃中脘”이라 하여 ‘痞氣’를 “肥氣”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脾積 痞氣 在胃中脘”이라 하여 ‘胃’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송암이 『醫學正傳·積聚』에서 “脾之積 名曰痞氣 在胃脘右側”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在左脇’ ‘在臍上’ ‘在右脇’ ‘在臍下’ 등과 對句를 이루게 했으므로, “在胃中”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痞氣’를 “肥氣”라 한 것과 ‘胃’를 누락시킨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要覽』에서 “脾積 痞氣 在胃中”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肺積 息賁 在右脇” : 『鍼灸』·『秘訣』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肺積 食積 在右脇”이라 하여 ‘息賁’을 “食積”이라 했고, 『鍼經』·『察病』에서는 “肺積 食賁 在右脇”이라 하여 ‘息賁’을 “食賁”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肺積 痞 在右脇”이라 하여 ‘息賁’을 “痞”라 했다. 이 부분은 송암이 『醫學正傳·積聚』에서 “肺之積 名曰息賁 在右脇下”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食積” “食賁” “痞” 등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肺積 息賁 在右脇”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腎積 奔豚 在臍下” : 『鍼灸』·『資料』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腎積 奔豚 在臍下”라 하여 ‘豚’을 “遯”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腎積 奔豚 臍下衝心”이라 하여 ‘在臍下’를 “臍下衝心”이라 했으며, 『察病』·『秘訣』에서는 “腎積 奔豚 發小腹”이라 하여 ‘在臍下’를 “發小腹”이라 했다. 이 부분은 송암이 『醫學正傳·積聚』에서 “腎之積 名曰奔豚 在小腹上至心下”라 한 것을 인용했고 “在左脇” “在右脇” “在胃中” “在臍上” “在臍下” 등이라 표현했으므로, “遯” “臍下衝心” “發小腹” 등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腎積 奔豚 在臍下”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三陰交正或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三陰交正或斜”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三陰交斜”라 하여 ‘正或’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氣海’ ‘天樞’ ‘鎮靜’ ‘三陰交’ 등의 穴들 가운데 直刺(正)하거나 혹은 斜刺(斜)하라고 한 것이므로, ‘正或’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송암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송암鍼法』 筆寫本 第二十章 積聚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肝積 肥氣 在左脇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心積 伏梁 在臍上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脾積 痞氣 在胃中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肺積 息賁 在右脇 太白 太淵補勞宮 魚際瀉
 腎積 奔豚 在臍下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天應穴 中脘正丹田迎氣海 天樞 鎮靜 三陰交正或斜

20-1. 醫學正傳積聚(101)

難經曰 積者陰氣也 聚者陽氣也 故陰沈而伏 陽浮而動 故積者 五臟所生 聚者 六腑所成也 夫所謂積者 陰氣也 其始發有常處 其痛不離其部 謂聚者 陽氣也 其始發無根本 痛發無所定位。

是故肝之積 名曰肥氣 在左脇下 如覆杯 有頭足 久不愈 令人發咳逆痰瘧 連歲不已

心之積 名曰伏梁 起臍上 大如臂 上至心下 久不愈 令人煩心

脾之積 名曰痞氣 在胃脘右側 覆大如盤 久不愈 令人四肢不收 發黃疸 飲食不為肌膚

肺之積 名曰息賁 在右脇下 大如覆杯 久不愈 令人洒淅寒熱 喘咳 發肺癰

腎之積 名曰奔豚 在小腹上至心下 若豚狀 或上或下無時 久不愈 令人喘逆 骨痿 少氣。

21. 「經濟要訣」第二十一章. 虛損

經曰 虛損 飲食飽者也 汗出於胃, 驚而奪精, 疾走 汗出於腎, 恐懼 汗出於肝, 惚體勞苦 汗出於肺 元氣殘弱是也.

“虛損 飲食飽者也 汗出於胃” : 「經濟要訣」·「鍼經」·「鍼灸」 등에서는 “虛損 飲食飽者也 汗出於胃”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虛損者 飲食失飽者也 汗出於胃”라 하여 ‘者’ ‘失’을 추가했고, 「察病」·「秘訣」에서는 “虛損 飲食飽者 汗出於胃”라 하여 ‘也’를 생략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虛損」에서 “內經曰 飲食飽甚 汗出于胃”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虛損 飲食飽甚 汗出於胃”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驚而奪精” : 「經濟要訣」·「要覽」·「鍼經」·「鍼灸」 등에서는 “驚而奪精”이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驚而奪精 汗出於心”이라 하여 ‘汗出於心’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醫學正傳·虛損」에서 “內經曰……驚而奪精 汗出于心”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察病」·「秘訣」에서 “驚而奪精 汗出於心”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疾走 汗出於腎” : 「經濟要訣」·「鍼經」·「鍼灸」 등에서는 “疾走 汗出於腎”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疾走 汗出於腎”이라 하여 ‘疾’을 ‘痰’이라 했고, 「察病」·「秘訣」에서는 “持重遠行 汗出於腎”이라 하여 ‘疾走’를 “持重遠行”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虛損」에서 “內經曰……持重遠行 汗出于腎”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察病」·「秘訣」에서 “持重遠行 汗出於腎”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恐懼 汗出於肝” : 「經濟要訣」·「要覽」·「鍼經」·「鍼灸」 등에서는 “恐懼 汗出於肝”이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疾走恐懼 汗出於肝”이라 하여 ‘恐懼’를 “疾走恐懼”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虛損」에서 “內經曰……疾走恐懼 汗出于肝”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察病」·「秘訣」에서 “疾走恐懼 汗出於肝”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惚體勞苦 汗出於肺” : 「經濟要訣」·「鍼灸」에서는 “惚體勞苦 汗出於肺”라 했으나, 「要覽」·「鍼經」에서는 “惚體勞苦 汗出於肺”라 하여 ‘惚’을 ‘惚’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搖體勞苦 汗出於肺”라 하여 ‘惚’을 “搖”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搖體勞苦 汗出於脾”라 하여 ‘惚’을 “搖” ‘肺’를 “脾”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虛損」에서 “內經曰……搖體勞苦 汗出于脾”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秘訣」에서 “搖體勞苦 汗出於脾”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101) 虞搏, 醫學正傳 腫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147-148.

“元氣殘弱是也” : 「經濟要訣」·「要覽」·「鍼經」·「鍼灸」, 등에서는 “元氣殘弱是也”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元氣淺弱是也”라 하여 “殘”을 “淺”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元氣殘弱 肺汗是也”라 하여 “肺汗”을 추가했다. 辨證論治에서 “氣弱肺汗”을 설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秘訣」에서 “元氣殘弱 肺汗是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資料」에서는 “內經曰 元氣虛者 汗出也. 搖體勞苦 汗出於肺. 驚而奪精 汗出於心. 飲食飽甚 汗出於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이라 했다. 이것은 「醫學正傳·虛損」의 내용 다른 필사본 등과 전혀 다르므로, 誤寫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송암鍼法」 筆寫本 ‘第二十一章 虛損’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虛損 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 元氣殘弱 肺汗是也.

奪精胃汗 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持重心汗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疾走腎汗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恐懼肝汗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氣弱肺汗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膏肓腧 肺腧 四花穴 中院 丹田迎

“奪精 胃汗” “持重 心汗” “疾走 腎汗” “恐懼 肝汗” “氣弱 肺汗” : 「鍼經」·「鍼灸」·「資料」, 등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奪精 胃汗” “持重 心汗” “疾走 腎汗” “恐懼 肝汗” “氣弱 肝汗”이라 하여 “肺”를 “肝”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飲食飽 胃汗” “驚而奪精 心汗” “持重 腎汗” “恐懼 肝汗” “氣弱 肺汗”이라 하여 “奪精”을 “飲食飽” “持重”을 “驚而奪精” “疾走”를 “持重” 등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飲食飽 胃汗” “驚而奪精 心汗” “持重 腎汗” “恐懼 肝汗” “氣弱 肺汗”이라 하여 “奪精”을 “飲食飽” “持重”을 “驚而奪精” “疾走”를 “持重” 등이라 하면서 “搖體勞苦 脾汗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를 추가했다. 이것은 提綱에서 “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 元氣殘弱 肺汗是也.”라 했으므로, “飽甚 胃汗” “奪精 心汗” “持重 腎汗” “恐懼 肝汗” “勞苦 脾汗” “氣弱 肺汗” 등이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飽甚 胃汗” “奪精 心汗” “持重 腎汗” “恐懼 肝汗” “勞苦 脾汗” “氣弱 肺汗” 등이라 하고, “勞苦 脾汗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를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勞苦 脾汗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 : 다른 필사본에서는 없었으나 유독 「秘訣」만 “勞苦 脾汗 少府 大

都補 大敦 隱白瀉'를 추가했다. 提綱에서 '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 元氣殘弱 肺汗是也.'라 하여 五臟과 胃의 虛損證에 대해 언급했으나, 辨證施治에서 '勞苦 脾汗'에 관한 것을 생략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추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膏肓腧 肺腧 四花穴 中腕 丹田迎'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膏肓腧 肺腧 四花穴 中腕 丹田迎'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已上等症 膏肓腧 肺腧 四花穴 中腕 丹田迎'이라 하여 '已上等症'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又 膏肓腧 肺腧 四花穴 中腕 丹田迎'이라 하여 '又'를 추가했으며, 「察病」에서는 '膏肓腧 肺腧 四花穴 中腕 丹田迎'을 누락시켰다. '已上等症' '又'를 추가한 것과 '膏肓腧 肺腧 四花穴 中腕 丹田迎'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提綱과 辨證論治의 문장이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二十一章 虛損'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飽甚胃汗 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奪精心汗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持重腎汗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恐懼肝汗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氣弱肺汗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勞苦脾汗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膏肓腧 肺腧 四花穴 中腕 丹田迎

21-1. 素問經脈別論¹⁰²⁾

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

21-2. 醫學正傳虛損¹⁰³⁾

內經曰 飲食飽甚 汗出于胃, 驚而奪精 汗出于心, 持重遠行 汗出于腎, 疾走恐懼 汗出于肝, 搖體勞苦 汗出于脾.

22. 「經濟要訣」第二十二章. 勞極

102)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素問 經脈別論 第二十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67.

103) 虞博,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54.

經曰 陰自勞者爲勞 陽盡動者爲極，靜則精藏 動則消亡，飲食自倍 腸胃之乃懣，勞役太甚 形氣之衰敗。此則嗜飲無節 起居不時 傷七情而罔極 勞六慾而何知？眞元枯渴 元氣衰弱 云其火動也，咳嗽遺精 是鬼交之外賊，蒸熱怱惚 茲神魔之內傷。

「陰自勞者爲勞 陽盡動者爲極」：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自勞者爲勞 陽盡動者爲極」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陰自虛者爲勞 陽盡動者爲極」이라 하여 「勞」를 「虛」라 했고, 「資料」에서는 「陰自勞者爲勞 陰盡動者爲極」이라 하여 「陽」을 「陰」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陰自勞者爲勞 陽自動者爲極」이라 하여 「盡」을 「自」라 했다. 「陰自勞者爲勞」와 「陽盡動者爲極」은 서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勞」를 「虛」 「陽」을 「陰」이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陰自勞者爲勞 陽盡動者爲極」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飲食自倍 腸胃之乃懣」：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飲食自倍 腸胃之乃懣」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飲食自倍 傷胃乃懣」라 하여 「腸」을 「傷」이라 하면서 「之」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飲食自倍 減腸胃之內備」라 하여 「減」을 추가하면서 「乃」를 「內」 「懣」을 「備」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飲食自倍 自胃之乃懣」라 하여 「腸」을 「自」라 했고, 「察病」에서는 「飲食自倍 腸胃之乃備」라 하여 「懣」을 「備」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勞極」에서 「內經曰……飲食自倍 腸胃乃傷」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뒤의 「勞役太甚 形氣之衰敗」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之」를 누락시킨 것과 「減」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腸」을 「傷」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이며, 「乃」를 「內」 「懣」을 「備」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腸」을 「自」라 한 것도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飲食自倍 腸胃之乃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形氣之衰敗」： 「要覽」·「鍼灸」·「察病」에서는 「形氣衰敗」라 하여 「之」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資料」에서는 「形氣之衰」라 하여 「敗」를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形體氣衰敗」라 하여 「體」를 추가하면서 「之」를 누락시켰다. 이것은 앞의 「腸胃之乃懣」와 五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之」 「敗」를 누락시킨 것과 「體」를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形氣之衰敗」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傷七情而罔極 勞六慾而何知?」：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傷七情而罔極 勞六慾而何知?」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傷七情而罔覺 勞六慾而何知?」라 하여 「極」을 「覺」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傷七情而勞六慾何知?」라 하여 「罔極」 「而」를 누락시켰다. 「傷七情而罔極」과 「勞六慾而何知」는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罔極」 「而」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極」을 「覺」이라 한 것도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傷七情而罔極 勞六慾而何知?」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元氣衰弱」：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元氣衰弱」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氣血衰弱」이라 하여 「元氣」를 「氣血」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元氣衰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云其火動也」： 「要覽」에서는 전부 누락시켰고, 「鍼經」·「鍼灸」·「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云其火動」이라 하여 「也」를 누락시켰다. 이것은 앞의 「眞元枯渴」 「元氣衰弱」 등과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鍼經」·「鍼灸」·「資料」·「察病」·「秘訣」 등에서 「云其火動」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蒸熱怱惚 茲神魔之內傷」： 「要覽」·「資料」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鍼經」에서는 「蒸熱怱惚 茲神魔之內傷」이라 하여 「魔」를 「魔」라 했고, 「鍼灸」에서는 「蒸熱怱惚 茲神魔鬼之內傷」이라 하여 「魔」를 「魔鬼」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蒸熱怱惚 茲神魔內傷」이라 하여 「怱」을 「怱」 「魔」를 「魔」라 하면서 「之」를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蒸熱怱惚 茲神魔之內傷」이라 하여 「怱」을 「怱」이라 했다. 「怱」을 「怱」이라 한 것은 서로 통하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魔'을 '魔'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로 생각된다. 또한 '蒸熱怳惚 茲神魔之內傷'은 앞의 '咳嗽遺精 是鬼交之外賊'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之'를 누락시킨 것과 '魔'을 '魔鬼'라 한 것은 이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蒸熱怳惚 茲神魔之內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 第二十二章 勞極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陰自勞者爲勞 陽盡動者爲極, 靜則精藏 動則消亡, 飲食自倍 腸胃之乃懣, 勞役太甚 形氣之衰敗, 此則嗜飲無節 起居不時 傷七情而罔極 勞六慾而何知? 眞元枯竭 元氣衰弱 云其火動, 咳嗽遺精 是鬼交之外賊, 蒸熱怳惚 茲神魔之內傷.

傷七情大敦 陰谷 經渠 太白 少府補三里 陽池瀉

勞六慾經渠 太白 少府補氣海 心俞瀉

元氣衰弱 太白 太淵補支溝 然谷瀉

鬼交期門 日月 膻中補太白 太谿瀉

神壓 臨泣 後谿補通谷 前谷瀉

怳惚丹田迎 氣海斜 陽谿補 太白瀉

勞瘵 腰眼 四膠補 膏肓斜 瘵蟲穿

眞元枯竭 經渠 通谷補陽谷 陽池瀉中院正

遺精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傷七情 大敦 陰谷 經渠 太白 少府補 三里 陽池瀉":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傷七情 大敦 陰谷 經渠 太白 少府補 三里 陽池瀉"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傷七情陰火 大敦 陰谷 經渠 太白 少府補 三里 曲池瀉"라 하여 '陰火'를 추가하면서 '陽池'를 '曲池'라 했고, 「鍼灸」에서는 "傷七情 大敦 陽谷 經渠 太白 少府補 三里 陽池瀉"라 하여 '陰谷'을 '陽谷'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傷七情 大敦 陰谷 經渠 太白 少府補 三里 曲池瀉"라 하여 '陽池'를 '曲池'라 했다. 다른 筆寫本에서 다 "傷七情"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陰火'를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大敦補는 心正格 또는 肝經 自經의 自穴을 補한 것 陰谷補는 肝正格 또는 腎經 自經의 自穴을 補한 것 經渠補는 腎正格 또는 肺經 自經의 自穴을 補한 것 太白補는 肺正格 또는 脾經 自經의 自穴을 補한 것 少府補는 脾正格 또는 心經 自經의 自穴을 補한 것이므로 '陰谷'을 '陽谷'이라 한 것은 誤寫

가 확실하다. 三里瀉는 膀胱正格 三焦勝格 小腸勝格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나 陽池瀉는 三焦經의 原穴을 瀉한 것이므로 三里瀉는 三焦勝格으로 여기는 것이 적합하다. 만약 「鍼經」과 「資料」에서 “三里 曲池瀉”라 한 것을 따른다면, 이것은 大腸勝格 A變形¹⁰⁴에 해당하여 ‘傷七情은 大腸實證에 속해야 하므로 “大敦 陰谷 經渠 太白 少府補”라 하여 五臟의 正格 또는 自經의 自穴을 補한 것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三焦經과 관련시켜 “三里瀉(三焦勝格) 陽池瀉(三焦經의 原穴을 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氣海 心俞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氣海 心俞瀉”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氣海 少衝瀉”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氣海 心俞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元氣衰弱 太白 太淵補 支溝 然谷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元氣衰弱 太白 太淵補 支溝 然谷瀉”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전부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元氣衰弱 太白 太淵補 支溝 然谷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神魔”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神魔”이라 했으나, 「鍼經」·「鍼灸」·「秘訣」 등에서는 “神魔”라 했다. 이것은 위의 提綱에서 “蒸熱恍惚 茲神魔之內傷”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神魔”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恍惚 丹田迎 氣海斜 陽谿補 太白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恍惚 丹田迎 氣海斜 陽谿補 太白瀉”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전부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恍惚 丹田迎 氣海斜 陽谿補 太白瀉”라 하여 “祝”을 “恍” 陽谿를 “陽谷”이라 했으며, 「察病」·「秘訣」에서는 “恍惚 丹田迎 氣海斜 陽谿補 太白瀉”라 하여 “祝”을 “恍”이라 했다. 「要覽」에서 전부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祝”을 “恍”이라 한 것은 위의 提綱에서 “蒸熱恍惚 茲神魔之內傷”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호 통용되므로 별문제가 없으며,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陽谿”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陽谷”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陽谿補(大腸勝格) 太白瀉(肺勝格 A變形)¹⁰⁵”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腰眼 四膠補 膏肓斜 瘕蠱奪” : 「要覽」·「資料」에서는 “腰眼 四膠補 膏·肺斜 瘕蠱奪”이라 하여 “膏肓”을 “膏·肺”라 했고, 「鍼經」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鍼灸」에서는 “腰眼 四膠補 膏·肺斜 瘕蠱奪”이라 하여 “四膠”를 “四膠” “膏肓”을 “膏·肺”라 했고, 「察病」에서는 전부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腰眼 四膠(四膠)補 膏肓 肺俞補 瘕蠱奪”이라 하여 “四膠”를 “四膠(四膠)” “膏肓斜”를 “膏肓 肺俞補”라 했다. 유독 「察病」만 전부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要覽」·「鍼灸」·「資料」·「秘訣」 등에서 “膏肓”을 “膏·肺” 혹은 “膏肓斜”를 “膏肓 肺俞補”라 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四膠”를 “四膠” “四膠(四膠)”라 한 것은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다만 「秘訣」의 ‘해설’에서 “四膠는 卽入膠穴일 것이니 습하여 下復(下腹部)을 主리한 腎氣에 主力한 것이오,……瘕蠱穴은 무슨 穴인지 많은 經書에 記載된 바 없으니 說明을 略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四膠”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고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原理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二十二章 勞極’의 辨

104) 金達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62.

105) 上揭書, pp. 33~39, 62~63.

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傷七情大敦 陰谷 經渠 太白 少府補三里 陽池瀉
勞六慾經渠 太白 少府補氣海 心俞瀉
元氣衰弱 太白 太淵補支溝 然谷瀉
鬼交期門 日月 臆中補太白 太谿瀉
神疲 臨泣 後谿補通谷 前谷瀉
恍惚 丹田迎 氣海斜 陽谿補太白瀉
勞瘵 腰眼 四膠補膏肓 肺俞斜瘵蠱奪
眞元枯竭 經渠 通谷補陽谷 陽池瀉中脘正
遺精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22-1. 醫學正傳勞極(106)

內經曰 陰虛生內熱. 又曰 陰氣者 靜則神藏 躁則消亡 飲食自倍 腸胃乃傷 又曰 有所勞倦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而胃氣熱 熱氣薰胸中 故內熱.

今也 嗜欲無節 起居不時 七情六欲之火 時動乎中 飲食勞倦之過 屢傷乎體 漸而至于眞水枯竭 陰火上炎 而發 蒸蒸之燥熱 或寒熱進退 似瘧非瘧 古方名曰蒸病 大抵不過咳嗽 發熱 咯血 吐痰 白濁 白淫 遺精 盜汗或心神恍惚 夢與鬼交 婦人則月閉不通 日漸羸羸 漸成勞極之候.

23. 「經濟要訣」第二十三章. 霍亂

凡霍亂者 歲運之不調 人身之失攝, 輕則腹痛 冷氣觸於脾土, 重則轉筋 熱症積於心火, 增寒壯熱 頭痛眩暈 乾嘔暴泄 四肢麻痺, 引清風而上升 使濁氣而下降, 霍八路 補瀉五行.

霍亂 悶亂 心熱陰谷 少海補陽谷 少府瀉中脘正

轉筋心熱 四關迎 十宣瀉丹田正

心胸滿 吐血 腸鳴 三里補 氣海瀉中脘正

暴泄三里 少府補大敦 隱白瀉

106) 吳博,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61.

頭痛呼吸喘鳴天突 丹田迎 鎮靜瀉

霍亂已死 而有暖氣者通四關 瀉三里

“凡霍亂者”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凡霍亂者”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經曰霍亂者”라 하여 ‘經曰’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熱症積於心火” : 유독 『經濟要訣』만 “熱症積於心火”라 했으나,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熱蒸積於心火”라 하여 ‘症’을 “蒸”이라 했는데, 이것은 『經濟要訣』에서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誤寫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熱蒸積於心火”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增寒壯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增寒壯熱”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憎寒壯熱”이라 하여 ‘增’을 ‘憎’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霍亂』에서 “陳無擇曰 霍亂者……憎寒壯熱”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增’을 ‘憎’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憎寒壯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乾嘔暴泄”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乾嘔暴泄”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乾嘔暴瀉”라 하여 ‘泄’을 “瀉”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乾嘔暴泄”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霍入路 補瀉五行” : 『要覽』에서는 “霍亂入路 補瀉五行”이라 하여 ‘亂’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霍入路 補瀉五行”이라 하여 ‘入’을 “入”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補瀉五行”이라 하여 ‘霍入路’를 누락시켰고, 『資料』·『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秘訣』에서는 전부 누락시켰다. ‘入’을 “入”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霍入路’를 누락시킨 것과 전부 누락시킨 것도 誤寫가 확실하며, ‘亂’을 추가하여 뒤의 ‘補瀉五行’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要覽』에서 “霍亂入路 補瀉五行”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轉筋 心熱 四關迎 十宣瀉 丹田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轉筋 心熱 四關迎 十宣瀉 丹田正”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轉筋 肝熱 四關通 十宣瀉 丹田正”이라 하여 ‘心熱’을 “肝熱” ‘迎’을 “通”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轉筋 肝熱 四關迎 十宣瀉 丹田正”이라 하여 ‘心熱’을 “肝熱”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轉筋 心熱 丹田迎 四關 又十宣”이라 했다. 위의 提綱에서 “重則轉筋 熱蒸積於心火”라 했으므로, “轉筋 心熱 四關迎 十宣瀉 丹田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心胸滿 吐血 腸鳴 三里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心胸滿 吐血 腸鳴 三里補”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心胸滿 吐血 商陽補”라 하여 ‘腸鳴’을 누락시키면서 ‘三里’를 “商陽”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暴泄”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暴泄”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暴泄 脾熱”이라 하여 ‘脾熱’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許任의 『鍼灸經驗方·霍亂』에서 “暴泄”이라 한 것을 인용했고, 또한 뒤의 침구치료 처방이 脾正格이니 『秘訣』에서 “暴泄 脾熱”이라 한 것을 따른다면 위에서 ‘霍亂 悶亂’은 “心熱”이라 하면서 心勝格을 사용한 것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暴泄”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頭痛 呼吸喘鳴 天突 丹田迎”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頭痛 呼吸喘鳴 天突 丹田迎”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頭痛 呼吸喘鳴 天突斜 丹田迎”이라 하여 ‘天突迎’을 “天突斜”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또 『秘訣』만 “頭痛 呼吸喘急 天突 丹田迎”이라 하여 ‘鳴’을 “急”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舍巖이 許任의 『鍼灸經驗方·霍亂』에서 “霍亂 頭痛 胸膈 呼吸喘鳴”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鳴’을 “急”이라 한 것은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頭痛 呼吸喘鳴 天突 丹田迎”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通四關 瀉三里” : 『鍼經』·『秘訣』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鍼灸』·『資料』·『察病』 등

에서는 “通四關 三里”라 하여 ‘瀉’를 생략했다. 이것은 “通四關 三里”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提綱과 辨證論治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誤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 ‘第二十三章 霍亂’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凡霍亂者 歲運之不調 人身之失攝，輕則腹痛 冷氣觸於脾土，重則轉筋 熱蒸積於心火，愴寒壯熱 頭痛眩暈 乾嘔暴泄 四肢麻痺，引清風而上升 使濁氣而下降，霍亂八路 補瀉五行。

霍亂 悶亂 心熱陰谷 少海補陽谷 少府瀉中脘正

轉筋心熱 四關迎 十宣瀉丹田正

心胸滿 吐血 腸鳴 三里補 氣海瀉中脘正

暴泄三里 少府補大敦 隱白瀉

頭痛 呼吸喘鳴 天突 丹田迎 鎮靜瀉

霍亂已死 而有暖氣者通四關 三里

23-1. 醫學正傳霍亂107)

內經曰 歲土不及 風乃大行 民病飧泄霍亂 體重腹痛 筋骨繇復。

陳無擇曰 霍亂者 心腹卒痛 嘔吐下利 愴寒壯熱 頭痛眩暈 先心痛則先吐 先腹痛則先利 心腹齊痛吐利并作 甚則轉筋 入腹則死。

仲景曰 又當引清氣上升 使濁氣下降 無有不安。

23-2. 許任鍼灸經驗方霍亂108)

霍亂 悶亂中脘 鍼 亦能治霍亂吐瀉

轉筋 霍亂

霍亂 心胸滿痛 吐食 腸鳴中脘

暴泄

乾嘔

霍亂 遺矢

霍亂 頭痛 胸痛 呼吸喘鳴下三里

107)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08.

108) 許任, 韓國醫學大系 第38卷 許任鍼灸經驗方, 서울, 羅江出版社, 1988, pp. 556-557.

震亂已死 而有暖氣者

24. 「經濟要訣」第二十四章. 泄瀉

經曰 濕勝濡泄 春夏痛, 暴注下迫 乃屬於脾熱, 水液澄澈 皆出於寒. 是故濕本多盛五泄 從經脈於補瀉, 冷好生病 熱蒸於升降, 赤泄爲熱 白瀉是寒.

濡泄 腎傷經渠 陰谷補太白 太濕瀉

暴泄 脾傷少府 大都補大敦 瀉白瀉

濕泄 胃傷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熱泄 心燥少府 行間補大敦 少衝瀉

氣泄 肺傷太白 太濕補少府 魚際瀉

冷泄 肝傷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濕勝濡泄 春夏痛” : 「要覽」·「鍼經」·「秘訣」 등에서는 “濕勝濡泄 春傷夏痛”이라 하여 ‘傷’을 추가했고, 「資料」·「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鍼灸」에서는 “濕盛濡泄 春傷夏痛”이라 하여 ‘勝’을 ‘盛’이라 하면서 ‘傷’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泄瀉」에서 “內經曰 濕勝則濡泄 又曰 春傷于風 夏必泄泄”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勝’을 ‘盛’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傷’을 추가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濕勝濡泄 春傷夏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暴注下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暴注下迫”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暴泄下迫”이라 하여 ‘注’를 “泄”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泄瀉」에서 “內經曰……又曰 暴注下迫 皆屬於熱”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注’를 “泄”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暴注下迫”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故濕本多盛五泄”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故濕本多盛五泄”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是故濕本多生五泄”이라 하여 ‘盛’을 ‘生’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濕本多成病”이라 하여 ‘是故’를 누락시키면서 ‘盛五泄’을 “成病”이라 했으며, 「鍼灸」·「察病」에서는 “是故濕本多成五泄”이라 하여 ‘盛’을 ‘成’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泄瀉」에서 “叔和云 濕多成五泄”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뒤의 “從經脈於補瀉”의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盛’을 ‘生’이라 한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유독 「資料」만 ‘是故’를 누락시킨 것도 誤寫가 분명하며, ‘盛’을 ‘成’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鍼灸」·「察病」에서 “是故濕本多成五泄”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冷好生病”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冷好生病”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冷本好生八病”라 하여 ‘本’ ‘八’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冷始好生病”라 하여 ‘始’를 추가했다. 이것은 “冷好生病”라 한 것을 따르는 것

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熱蒸於升降” : 「鍼經」·「鍼灸」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資料」에서는 “熱蒸積於升降”이라 하여 ‘積’을 추가했고, 「察病」·「秘訣」에서는 “退熱蒸於升降”이라 하여 ‘退’를 추가했다. 이것은 ‘第二十三章 霍亂’에서 “熱蒸積於心火”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要覽」·「資料」에서 “熱蒸積於升降”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赤澁爲熱 白濁是寒”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赤澁爲熱 白濁是寒”이라 했으나, 「要覽」·「鍼經」에서는 “赤澁爲熱 白濁爲寒”이라 하여 ‘是’를 “爲”라 했고, 「察病」에서는 “赤濕爲熱 白濁是寒”이라 하여 ‘澁’을 “濕”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泄瀉」에서 “原病式曰 大抵瀉利 小便清白不澁爲寒 赤澁爲熱”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澁’을 “濕”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是’를 “爲”라 한 것은 적합하지만 ‘爲’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是”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赤澁爲熱 白濁是寒”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太白 太淵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유독 「鍼灸」만 “太白 太谿瀉”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經渠補(腎正格) 陰谷補(腎正格 B-1變形 혹은 自經의 自穴을 補)¹⁰⁹⁾ 太白瀉(腎正格) 太淵瀉(腎正格 C變形)¹¹⁰⁾”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暴泄 脾傷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유독 「鍼灸」만 전부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舍巖鍼法の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二十三章 霍亂’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濕勝濡泄 春傷夏痛 暴注下迫 乃屬於脾熱 水液澄澈 皆出於寒 是故濕本多成五泄 從經脈於補瀉 冷好生痢 熱蒸積於升降 赤澁爲熱 白濁是寒.

- 濡泄 腎傷經渠 陰谷補太白 太淵瀉
- 暴泄 脾傷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 濕泄 胃傷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 熱泄 心燥少府 行間補大敦 少衝瀉
- 氣泄 肺傷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 冷泄 肝傷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24-1. 醫學正傳泄瀉¹¹¹⁾

109) 金達鎭, 舍巖鍼法の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64.

110) 上揭書.

111) 虞搏, 醫學正傳 泄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11.

內經曰 濕勝則濡泄 又曰 春傷于風 夏必飧泄 又曰 暴注下迫 皆屬於熱 又曰 諸病水液 澄澈清冷 皆屬於寒 叔和云 濕多成五泄 原病式曰 大抵瀉利 小便清白不澁爲寒 赤澁爲熱

25. 「經濟要訣」第二十五章. 眩暈

內經曰 風掉眩而屬肝 濕腫滿而寄脾, 風氣流行 必入脾土, 濕冷欲去 可到於腎水. 此則木賊破土 是飧泄·精弱 土官殺水 茲養恐, 眩暈·冒昧殆同 痙塞定知痿黃. 雖爲氣化之所使 終作病深之起端, 是以虛則難免晦朔之患 實則必然弦望之痛, 陰火居下而衝上 益治老人, 濕痰據上而流下 加給少年. 此症若坐舟車 如坐雲霧, 先預鑄於順其氣 以絕風痰 後當治以降火 快痊眩暈.

風眩 肝實經渠 中封補少府 行間瀉

濕眩 脾實 大敦補 少府瀉中院正

痰眩 肺實少府 魚際補太白 太淵瀉

眩暈鎮靜(三里)迎 既濟(氣海)瀉血會(關俞)補 風池瀉

“風掉眩而屬肝 濕腫滿而寄脾” : 「要覽」·「秘訣」에서는 “諸風掉眩皆屬肝 諸濕腫滿而起脾”라 하여 ‘諸’를 추가하면서 ‘而’를 ‘皆’ ‘寄’를 ‘起’라 했고, 「鍼經」에서는 “風掉眩而屬肝 濕腫滿而起脾”라 하여 ‘寄’를 ‘起’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風掉眩屬肝 濕腫滿於寄脾”라 하여 앞의 ‘而’를 누락시키면서 뒤의 ‘而’를 ‘於’라 했고, 「資料」에서는 “諸風掉眩屬肝 濕腫滿而氣脾”라 하여 ‘諸’를 추가 ‘而’를 누락시키면서 ‘寄’를 ‘氣’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風掉眩而屬肝 濕腫滿而氣脾”라 하여 ‘寄’를 ‘氣’라 했다. ‘風掉眩而屬肝’과 ‘濕腫滿而寄脾’는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諸’를 추가한 것과 ‘而’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而’를 ‘皆’ ‘於’라 한 것도 誤寫로 생각되며, ‘寄’를 ‘氣’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寄’를 ‘起’라 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鍼經」에서 “風掉眩而屬肝 濕腫滿而起脾”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氣流行 必入脾土” : 「要覽」·「鍼灸」·「察病」, 등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에서는 “風氣流行 必入於脾土”라 하여 ‘於’를 추가했으며, 「資料」에서는 “風氣流行 必入於脾土”라 하여 ‘氣’를 누락시키면서 ‘於’를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風起流行 必入於脾土”라 하여 ‘氣’를 ‘起’라 하면서 ‘於’를 추가했다. ‘風氣流行 必入脾土’는 다음의 ‘濕冷欲去 可到於腎水’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氣’를 누락시킨 것은 이에 어긋나고, ‘於’를 추가한 것은 적합하며, 또한 ‘氣’를 ‘起’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鍼經」에서 “風氣流行 必入於脾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濕冷欲去 可到於腎水”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冷欲去 可到於腎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濕冷

欲去 何到於腎水"라 하여 '可'를 "何"라 했고, 「鍼灸」에서는 "濕冷欲去 可到腎水"라 하여 '於'를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濕冷欲去 可倒於腎水"라 하여 '到'를 "倒"라 했다. '濕冷欲去 可到於腎水'는 위의 '風氣流行 必入於脾土'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於'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可'를 "何"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또한 '倒'는 「동아 漢韓大辭典」에 의하면 '넘어지다' '죽다' '꺼꾸로' '거스르다' 등의 뜻이고¹¹²⁾ 「辭源」에 의하면 '倒下' '更換' '顛倒' '達逆' '傾出' 등의 뜻이므로¹¹³⁾, '到'를 "倒"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하면서 글자체도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濕冷欲去 可到於腎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炘泄·精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炘泄·精弱"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전부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是故炘泄於精弱"이라 하여 '故' '於'를 추가했으며, 「秘訣」에서는 "炘泄而精弱"이라 하여 '是'를 누락시키면서 '而'를 추가했다. 전부 누락시킨 것 '故'·'於'를 추가한 것 '是'를 누락시키면서 '而'를 추가한 것 등은 다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是炘泄·精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茲善恐" : 「要覽」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에서는 "茲善怒"라 하여 '恐'을 "怒"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전부 누락시켰고, 「資料」·「察病」에서는 "茲於善恐"이라 하여 '於'를 추가했으며, 「秘訣」에서는 "茲而善恐"이라 하여 '而'를 추가했다. 앞에서 "土官殺水"라 하여 腎에 연계시켜 '善恐'이라 했으므로 '恐'을 "怒"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또한 이것은 앞의 '炘泄精弱' '土官殺水' 등과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於'를 추가하거나 '而'를 추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여기서는 '而'를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茲而善恐"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眩暈·冒昧殆同"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眩暈·冒昧殆同"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冒昧殆同"이라 하여 '眩暈'을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於眩暈·冒昧殆同"이라 하여 '於'를 추가했으며, 「秘訣」에서는 "蓋眩暈·冒昧殆同"이라 하여 '蓋'를 추가했다. '眩暈冒昧殆同'은 뒤의 '痙塞定知痿黃'과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眩暈'을 누락시킨 것 '於'·'蓋'를 추가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眩暈·冒昧殆同"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痙塞定知痿黃"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痙塞定知痿黃"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痙塞定知痿黃"이라 하여 '塞'을 "寒"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痙塞定知痿黃"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終作病深之起端"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終作病深之起端"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終非病深之起端"이라 하여 '作'을 "非"라 했고, 「察病」에서는 "終作病心之氣端"이라 하여 '深'을 "心" '起'를 "氣"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終作病甚之起端"이라 하여 '深'을 "甚"이라 했다. '作'을 "非"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이고, '深'을 "心"·"甚" '起'를 "氣"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終作病深之起端"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以虛則難免晦朔之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以虛則難免晦朔之患"이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是故虛則難免晦朔之患"라 하여 '以'를 "故"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서로 통하지만 "是以虛則難免晦朔之患"이라 한 多數의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實則必然弦望之痛"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實則必然弦望之痛"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實則必然

112)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漢韓大辭典, 서울, (주)동아출판사, 1994, p. 133.

113) 商務印書館 編輯部, 辭源 第一分冊,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4, p. 230.

眩望之痛이라 하여 '眩'을 '眩'이라 했다. '眩望'은 '晦朔'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眩'을 '眩'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하면서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實則必然眩望之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陰火居下而衝上 益治老人」: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火居下而衝上 益治老人」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陰火居下而衝上 溢治老人」이라 하여 '益'을 '溢'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陰火居下而通上 蓋治老人」이라 하여 '衝'을 '通' '益'을 '蓋'라 했다. '衝上'과 '流下' '益治老人'과 '加給少年'은 서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衝'을 '通'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益'을 '溢' '蓋'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陰火居下而衝上 益治老人」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濕痰據上而流下 加給少年」: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痰據上而流下 加給少年」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濕痰據上而流 加給少年」이라 하여 '下'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濕痰凝上而流下 加信少年」이라 하여 '據'를 '凝' '給'을 '信'이라 했다. 이것은 위의 「陰火居下而衝上 益治老人」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下'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據'를 '凝' '給'을 '信'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濕痰據上而流下 加給少年」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此症若坐舟車 如坐雲霧」: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此症若坐舟車 如坐雲霧」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此症如坐舟中 如坐雲霧」라 하여 '若'을'如' '車'를 '中'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此症若坐舟車 如在雲霧」라 하여 '坐'를 '在'라 했다. '車'를 '中'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유독 「要覽」만 '若'을'如'라 한 것과 유독 「秘訣」만 '坐'를 '在'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此症若坐舟車 如坐雲霧」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先預歸於順其氣 後當治以降火」: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先預歸於順其氣 後當治以降火」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先預起於順其氣 後當治而降火」라 하여 '歸'를 '起' '順'을 '順' '以'를 '而' 등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 발음의 동일한 등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또한 「先預歸於順其氣」의 「後當治以降火」는 對句를 이루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先預歸於順其氣 後當治以降其火」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眩暈 鎮靜迎 既濟瀉 血會補 風池瀉」: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眩暈 鎮靜迎 既濟瀉 血會補 風池瀉」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諸眩暈 鎮靜迎 既濟瀉 血會補 風池瀉」라 하여 '諸'를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眩暈 鎮靜迎 既濟瀉 百會補 風池瀉」라 하여 '血會'를 '百會'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眩暈 鎮靜迎 既濟瀉 膈俞補 風池瀉」라 하여 '血會'를 '膈俞'라 했다. 유독 「要覽」만 '諸'를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유독 「資料」만 '血會'를 '百會'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또한 '八會穴' 가운데 '血會'는 '膈俞穴'이므로 '血會'를 '膈俞'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眩暈 鎮靜迎 既濟瀉 血會補 風池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火量 三焦實 通谷 液門補 天井 支溝瀉」: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이 부분이 없었으나, 유독 「秘訣」만 「火量 三焦實 通谷 液門補 天井 支溝瀉」라 한 것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연구·고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 '第二十五章 眩暈'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風掉眩而屬肝 濕腫滿而起脾，風氣流行 必入於脾土，濕冷欲去 可到於腎水，此則木賊破土 是飧泄·精弱 土官殺水 茲而善恐，眩暈·冒昧殆同 痙塞定知痿黃，雖爲氣化之所使 終作病深之起端，是以虛則難免晦朔之患 實則必然弦望之痛，陰火居下而衝上 益治老人，濕痰據上而流下 加給少年，此症若坐舟車 如坐雲霧，先預歸於順其氣 以絕風痰 後當治以降其火 快痊眩暈。

風眩 肝實經渠中封補 少府行間瀉

濕眩 脾實大敦補 少府瀉中脘正

痰眩 肺實少府魚際補 太白太淵瀉

眩暈 鎮靜迎 既濟瀉血會補 風池瀉

(火量 三焦實 通谷液門補 天井支溝瀉)

25-1. 醫學正傳眩暈¹¹⁴⁾

內經曰 諸風掉眩皆屬肝木 又曰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民病飧泄食減 甚則忽忽善怒 眩冒癩疾。

26. 「經濟要訣」第二十六章. 頭痛

經曰 沐中風 而爲頭面多汗，春迎病 而作頸項甚痛，夏熱耳鳴 病在心而痰厥，秋寒骨痛 冷居肺而汗，肝傷氣痛 如癩 心似狂，入腎寒濕 定痛，半面在痰 風熱眞患 偏頭痛，眞頭痛 而腦盡手足寒者 死，厥逆痰 所犯骨肉冷者 難治。是故陰病補陽 陽病補陰。

“沐中風”：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沐中風”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沐中風”이라 하여 ‘沐’을 ‘休’라 했고, 『鍼灸』에서는 “沐後風”이라 하여 ‘中’을 ‘後’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沐後中風”이라 하여 ‘後’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頭痛』에서 “內經曰 新沐中風 則爲首風”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뒤의 ‘春迎病’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沐’을 ‘休’라 한 것은 글자체가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고, ‘中’을 ‘後’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며, ‘後’를 추가하여 對句에 어긋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沐中風”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春迎病 而作頸項甚痛”：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春迎病 而作頸項甚痛”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春迎病 作頸項甚痛”이라 하여 ‘而’를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春迎病者 頸項甚痛”이라 하여 ‘者’를 추가하면서 ‘而作’을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春迎病 而頸項甚痛”이라 하여 ‘作’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앞의 ‘沐中風 而爲頭面多汗’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而’ ‘而作’ ‘作’ 등을 누락시킨 것과 ‘者’를 추가한 것은 다

114) 虞搏, 醫學正傳 眩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71.

이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春迎病 而作頸項甚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冷居肺而汗 肝傷氣痛” : 『要覽』·『鍼灸』·『資料』 등에서는 “冷居肺而汗 傷氣痛”이라 하여 ‘肝’을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冷居肺 而傷氣痛”이라 하여 ‘汗’ ‘肝’을 누락시켰으며, 『察病』·『秘訣』에서는 “冷居肺而肝傷 氣痛”이라 하여 ‘汗’을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앞뒤 문장의 관계로 보아 “冷居肺而肝傷 氣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氣痛如癩 心似狂”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氣痛如癩 心似狂”이라 했으나, 『要覽』·『鍼經』에서는 “氣痛如癩 心痛似狂”이라 하여 ‘痛’을 추가했고, 『察病』·『秘訣』에서는 “氣痛如癩 心疼似狂”이라 하여 ‘疼’을 추가했다. ‘心似狂’은 앞의 ‘氣痛如癩’과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痛’이나 ‘疼’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察病』·『秘訣』에서 “氣痛如癩 心疼似狂”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入腎寒濕”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入腎寒濕”이라 했으나, 『鍼灸』·『資料』·『秘訣』 등에서는 “人腎寒濕”이라 하여 ‘入’을 ‘人’이라 했다. 이 부분은 송암이 『醫學正傳·頭痛』에서 “如氣上不下 頭痛癩疾者 下虛上實也 甚則入腎 寒濕頭痛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入’을 ‘人’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風熱眞患 偏頭痛” : 오직 『鍼經』만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要覽』·『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風熱眞患偏頭”라 하여 ‘痛’을 누락시켰으며, 『鍼灸』에서는 “風熱宜患偏頭”라 하여 ‘眞’을 ‘宜’라 하면서 ‘痛’을 누락시켰다. ‘眞’을 ‘宜’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대부분 ‘痛’을 누락시켰다. 그러므로 “風熱眞患偏頭”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眞頭痛”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眞頭痛”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전부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송암이 『醫學正傳·頭痛』에서 “如眞頭痛者 甚則腦盡痛 手足寒至節者 死不治”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전부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眞頭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腦盡手足寒者 死” : 오직 『察病』만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要覽』·『鍼經』·『資料』·『秘訣』 등에서는 “腦盡手足寒者 易死”라 하여 ‘易’을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腦盡手足寒者 易”라 하여 ‘死’를 누락시키면서 ‘易’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송암이 『醫學正傳·頭痛』에서 “如眞頭痛者 甚則腦盡痛 手足寒至節者 死不治”라 한 것을 인용하여 뒤의 ‘所犯骨肉冷者 難治’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死’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易’을 추가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腦盡手足寒者 易死”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厥逆疼 所犯骨肉冷者 難治” : 『要覽』에서는 “厥逆疼 而所犯骨肉冷者 難治”라 하여 ‘疼’을 ‘疹’이라 하면서 ‘而’를 추가했고, 『鍼經』·『秘訣』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鍼灸』에서는 “厥逆疼 骨肉冷者 難治”라 하여 ‘所犯’을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厥逆疹 所犯骨肉冷者 難”이라 하여 ‘疼’을 ‘疹’이라 하면서 ‘治’를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厥逆疹 所犯骨肉冷者 難治”라 하여 ‘疼’을 ‘疹’이라 했다. 이 부분은 송암이 『醫學正傳·頭痛』에서 “有厥逆頭痛者 所犯大寒內至骨髓 髓者以腦爲主 腦逆 故令頭痛齒亦痛也”라 한 것을 인용하여 앞의 ‘眞頭痛 而腦盡手足寒者 易死’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而’를 추가한 것은 적합하고, ‘疼’을 ‘疹’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며, ‘所犯’ ‘治’ 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厥逆疼 而所犯骨肉冷者 難治”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故”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故”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是以”라 하여 “是故”를 “是以”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陰病補陽 陽病補陰”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病補陽 陽病補陰”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陰病補陽 陽病補陰 可也”라 하여 ‘可也’를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二十六章 頭痛’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沐中風 而爲頭面多汗, 春迎病 而作頸項甚痛, 夏熱耳鳴 病在心而痰厥, 秋寒骨痛 冷居肺而肝傷, 氣痛如癩 心疼似狂, 入腎寒濕 定痛, 半面在痰 風熱眞患偏頭, 眞頭痛 而腦盡手足寒者 易死, 厥逆痰 而所犯骨肉冷者 難治. 是故陰病補陽 陽病補陰.

沐後頭痛 肺冷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頸項痛 肝弱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骨痛 腎傷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痰厥 耳鳴風池 懸鍾補風府 啞門瀉)→누락됨

偏頭痛風池 懸鍾瀉左治右 右治左

眞頭痛 中院補 氣海瀉八邪 勞宮連下

“沐後頭痛 肺冷”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沐後頭痛 肺冷”이라 했으나 유독 「要訣」만 “沐浴頭痛 肺冷”이라 하여 ‘後’를 “浴”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沐後頭痛 肺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痰厥 耳鳴 風池 懸鍾補 風府 啞門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痰厥 耳鳴 風池 懸鍾補 風府 啞門瀉”라 한 것이 있었으나, 유독 「經濟要訣」만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痰厥 耳鳴 風池 懸鍾補 風府 啞門瀉”라 한 것을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偏頭痛 風池 懸鍾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偏頭痛 風池 懸鍾瀉”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偏頭痛 懸鍾瀉”라 하여 ‘風池’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偏頭痛 風池 懸鍾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八邪 勞宮連下” : 「要覽」·「鍼灸」·「資料」·「察病」 등에서는 “連下八邪 勞宮”이라 하여 ‘連下’가 앞에 있었고, 「鍼經」에서는 “八邪 勞宮瀉”라 하여 ‘連下’를 “瀉”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八邪瀉 連下勞宮”이라 하여 ‘瀉’를 추가하면서 ‘連下’를 ‘勞宮’의 앞에 두었다. 이것은 “連下八邪 勞宮”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眉稜骨痛 通谷 液門補 臨泣 中渚 陽池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없었으나, 유독 「秘訣」만 “眉稜骨

痛 通谷 液門補 臨泣 中渚 陽池瀉"라 한 것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通谷 液門補(三焦勝格) 臨泣·中渚瀉(三焦勝格 A變形)¹¹⁵⁾ 陽池瀉(三焦經의 原穴을 瀉)"라 하여 '肩稜骨痛'을 三焦實證으로 여겼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고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한 단락 전체를 누락시키거나 부분적으로 誤寫한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 '第二十六章 頭痛'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沐後頭痛 肺冷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頸項痛 肝弱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骨痛 腎傷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痰厥 耳鳴風池 懸鍾補風府 啞門瀉
 偏頭痛風池 懸鍾瀉左治右 右治左
 眞頭痛中脘補 氣海瀉連下八邪 勞宮
 (肩稜骨痛 通谷 液門補臨泣 中渚 陽池瀉)

26-1. 醫學正傳頭痛¹¹⁶⁾

內經曰 新沐中風 則爲首風 又曰 首風之狀 頭面多汗 惡風。
 東垣曰 金匱眞言論曰 東風生于春 病在肝 臉在頸項 故春氣者 病在頭
 頭痛耳鳴 九竅不利者 腸胃之所生 乃氣虛頭痛也
 心煩頭痛者 病在膈中 乃濕熱頭痛也
 如氣上不下 頭痛癩疾者 下虛上實也甚則入腎 寒濕頭痛也
 如頭半寒痛者 此偏頭痛也
 如眞頭痛者 甚則腦盡痛 手足寒至節者 死不治
 有厥逆頭痛者 所犯大寒內至骨髓 髓者以腦爲主 腦逆 故令頭痛齒亦痛也。

27. 「經濟要訣」第二十七章. 胃脘痛

內經曰 胃脘者 心痛, 冷濕乃脾病 水冷裏胃, 是脹肝而然. 痛濕勝忌 脘可被鬱而不發 肝官入脾 是土敗木賊之患, 臆愈至胃 必爲君憂臣傷之憂, 病名胃脘 治當肝臟.

胃痛 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中脘正

115) 金達鎭,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33~39.

116) 虞搏, 醫學正傳 頭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73.

(臍痛少府 大都補 隴白瀉丹田迎)→누락됨

「胃脘者 心痛」: 「要覽」·「鍼經」·「資料」·「察病」 등에서는 「胃脘者 心痛」이라 했으나, 「秘訣」에서는 「胃脘痛者 心痛」이라 하여 「痛」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胃脘痛(俗呼爲心痛)」에서 「經所謂胃脘當心而痛 今俗呼爲心痛者」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秘訣」에서 「胃脘痛者 心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冷濕乃脾病 水冷喜胃 是隔肝而然」: 「要覽」에서는 「冷濕乃脾病 水冷喜胃 是隔間而然」이라 하여 「冷」을 「令」 「肝」을 「間」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冷濕乃脾病 水冷喜胃 是隔間而連」이라 하여 「肝」을 「間」 「然」을 「連」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冷濕乃脾病 水冷喜胃 是隔間而然」이라 하여 「隔」을 「隔」 「肝」을 「間」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冷濕乃脾病 水冷喜胃 是隔間而連」이라 하여 「隔」을 「隔」 「肝」을 「間」 「然」을 「連」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冷濕乃脾病 水冷 是隔肝而然」이라 하여 「喜胃」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第三十三章 脚氣門에서 「脾好生濕 胃喜作熱」이라 한 것과 관련되므로 「冷」을 「令」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고, 「然」을 「連」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또한 「資料」·「察病」에서 「隔肝」이라 했다면 적합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隔間」 혹은 「隔間」이라 했으므로, 「冷濕乃脾病 水冷喜胃 是隔間而然」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痛濕勝忌 脘可被鬱而不發」: 「要覽」·「鍼經」·「察病」에서는 「通濕勝忌 脘可被鬱而不發」이라 하여 「痛」을 「通」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通濕已 被鬱而不發」이라 하여 「痛」을 「通」 「忌」를 「已」라 하면서 「勝」 「脘可」 등을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濕勝 脘可被鬱」이라 하여 「痛」 「忌」 「而不發」 등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뒤의 「肝官入脾 是土敗木賊之患」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勝」 「脘可」 「痛」 「忌」 「而不發」 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또한 「忌」를 「已」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며, 「痛」을 「通」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要覽」·「鍼經」·「察病」에서는 「通濕勝忌 脘可被鬱而不發」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肝官入脾 是土敗木賊之患」: 「要覽」·「資料」·「察病」 등에서는 「肝官入脾 定是土敗木賊之患」이라 하여 「定」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肝官入脾 定是土破木賊之患」이라 하여 「定」을 추가하면서 「敗」를 「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肝官入脾 正是土敗木賊之患」이라 하여 「正」을 추가 했고, 「秘訣」에서는 「肝官入脾 定是土敗木賊之患」이라 하여 「定」을 추가하면서 「敗」를 「敢」이라 했다. 이것은 앞의 「痛濕勝忌 脘可被鬱而不發」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定」 「正」 등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또한 「敗」를 「破」 「敢」 등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經濟要訣」에서 「肝官入脾 是土敗木賊之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臍命至胃 必爲君憂臣傷之憂」: 「要覽」·「鍼灸」에서는 「臍命至胃 必爲君遇臣傷之憂」라 하여 「憂」를 「遇」라 했고, 「鍼經」에서는 「臍命至胃 必爲君遇傷之患」이라 하여 「命」을 「命」 「憂」를 「遇」 「憂」를 「患」 등이라 하면서 「臣」을 누락시켰으며, 「資料」에서는 「臍命至胃 必爲君憂臣憂」라 하여 「命」을 「命」이라 하면서 「傷之」를 누락시켰고, 「察病」·「秘訣」에서는 「臍命至胃 必爲君遇臣傷之憂」라 하여 「命」을 「命」 「憂」를 「遇」라 했다. 이것은 앞의 「痛濕勝忌 脘可被鬱而不發」 「肝官入脾 是土敗木賊之患」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臣」 「傷之」 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命」을 「命」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며, 「憂」를 「患」이라 한 것도 誤寫로 생각된다. 또한 「憂」를 「遇」라 한 것은 「君遇臣傷之憂」라 하여 「君(臍)이 臣(胃)을 손상시키는 憂(질한·고통·근심)를 만난다」고 해석되므로 적합하다. 만약 「遇」라 하지 않고 「患」라 했다면 「必

爲君患臣傷之憂(반드시 君이 어리석어 臣을 손상시키는 災患이 된다)라 하여 통할 수 있으나 “遇”라 했으므로 ‘爲’는 衍文이고, 또한 앞의 句節과 對句를 이루게 했으니 “必君遇臣傷之憂”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膽俞至胃 必君遇臣傷之憂”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病名胃脘 治當肝膽” : 「要覽」, 「鍼灸」, 「資料」 등에서는 “病名胃脘 治當肝膽”이라 하여 ‘肝膽’을 “膽肝”이라 했고, 「鍼經」, 「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秘訣」에서는 “病名曰胃脘痛 治當肝膽”이라 하여 ‘曰’ ‘痛’을 추가했다. 이 부분의 ‘病名胃脘’과 ‘治當肝膽’은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曰’ ‘痛’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또한 ‘肝膽’을 “膽肝”이라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으나 韻律上 “當治肝膽”이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病名胃脘 治當肝膽”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胃脘痛者 心痛, 冷濕乃脾病 水冷喜胃, 是膈間而然. 痛濕勝忌 脘可被鬱而不發, 肝官入脾”라 해야 할 것을 「鍼灸」에서는 “木氣被鬱發 則太過, 故民病 胃脘當心而通 上支兩脇嗝咽不通, 是故肝官入脾”라 했는데, 이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胃痛 陽谷 解谿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胃痛 陽谷 解谿補”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胃病 陽谿補”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脾痛 少府 大都補 隱白瀉 丹田迎”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脾痛 少府 大都補 隱白瀉 丹田迎”이 있었으나 유독 「經濟要訣」만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한 단락 전체를 누락시킨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二十七章 胃脘痛’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胃脘痛者 心痛, 冷濕乃脾病 水冷喜胃, 是膈間而然. 通濕勝忌 脘可被鬱而不發, 肝官入脾 是土敗木賊之患, 膽俞至胃 必君遇臣傷之憂, 病名胃脘 治當肝膽.

胃痛 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中脘正

脾痛 少府 大都補隱白瀉丹田迎

27-1. 醫學正傳胃脘痛(俗呼爲心痛)117)

內經曰 木鬱之發 民病胃脘當心而痛 蓋木氣被鬱 發則太過 故民病有土敗木賊之候也.

胃之上口 名曰賁門 賁門與心相連 故經所謂胃脘當心而痛 今俗呼爲心痛者 未達此義耳.

28. 筆寫本第二十八章. 腹痛

117) 虞搏, 醫學正傳 胃脘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80.

內經曰 腹無熱痛，因寒邪則必有疼痛。心虛者火痛 胃虛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是寒邪入腸也。

大腸不足 三里 曲池補陽谷 陽谿瀉

火鬱痛 心經不足大敦 少衝補陰谷 曲泉瀉

胃虛 濕痛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肺濁 氣痛少府 魚際補尺澤 曲泉瀉

腎弱 冷痛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肝衰 鬱痛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血虛 小腸痛臨泣 三間補通谷 後谿瀉

“心虛者火痛 胃虛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是寒邪入腸也。”：「要覽」에서는 “心虛者火痛 胃虛者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腹痛，是寒邪入腸也.”라 하여 ‘胃虛’를 “胃虛者”라 하면서 ‘血虛腹痛’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心虛者火痛 胃虛者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者腸痛 是也.”라 하여 ‘胃虛’를 “胃虛者”라 하면서 ‘血虛者腸痛’을 추가 ‘寒邪入藏’을 辨證論治의 ‘大腸不足’ 앞에 배치했으며, 「鍼灸」에서는 “心虛者火痛 胃虛者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腸痛.”이라 하여 ‘胃虛’를 “胃虛者”라 하면서 ‘血虛腸痛’을 추가 ‘是也’를 누락 ‘寒邪入藏’을 辨證論治의 ‘大腸不足’ 앞에 배치했고, 「資料」에서는 “心虛者火痛 胃虛者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腸痛 是也.”라 하여 ‘血虛腸痛’을 추가하면서 ‘寒邪入藏’을 辨證論治의 ‘大腸不足’ 앞에 배치했으며, 「察病」에서는 “心虛則火痛 胃虛者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小腸痛 是也.”라 하여 ‘者’를 “則” ‘胃虛’를 “胃虛者”라 하면서 ‘血虛小腸痛’을 추가 ‘寒邪入腸’을 辨證論治의 ‘大腸不足’ 앞에 배치했고, 「秘訣」에서는 “心虛者火痛 胃虛者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小腸痛 是也.”라 하여 ‘胃虛’를 “胃虛者”라 하면서 ‘血虛小腸痛’을 추가 ‘寒邪入臟’을 辨證論治의 ‘大腸不足’ 앞에 배치했다. 전체를 “心虛者” “胃虛者” “肺濁者” “腎弱者” “肝衰者” “血虛者” 등이라 하거나 “心虛” “胃虛” “肺濁” “腎弱” “肝衰” “血虛” 등이라 하여 통일시키는 것은 적합하지만, 동일한 필사본에서 ‘者’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통일되지 못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또한 辨證論治에서 “血虛 小腸痛”이라 한 것이 있으니 ‘血虛腸痛’ ‘血虛者腸痛’ ‘血虛小腸痛’ 가운데 한 가지를 추가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적합하므로, “心虛火痛 胃虛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腸痛 是也”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寒邪入腸’ ‘寒邪入藏’ ‘寒邪入臟’ 등을 提綱의 마지막 또는 辨證論治의 ‘大腸不足’ 앞에 배치했으나, 이것은 辨證論治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心虛火痛 胃虛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腸痛 是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寒邪入腸也. 大腸不足”：「要覽」에서는 “是寒邪入腸也. 大腸不足”이라 했고, 「鍼經」, 「資料」에서는 “是也. 寒邪入藏 大腸不足”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寒邪入藏. 大腸不足”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是也 寒邪入腸. 大腸不足”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是也 寒邪入臟. 大腸不足”이라 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

이 「察病」에서 “是也 寒邪入腸 大腸不足”이라 한 것을 따르되 ‘是也.’를 提綱에 ‘寒邪入腸’을 辨證論治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是也. 寒邪入腸 大腸不足”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火鬱痛 心經不足 大敦 少衝補 陰谷 曲泉瀉” : 「要覽」·「察病」·「秘訣」 등에서는 “火鬱 心經不足 大敦 少衝補 陰谷 曲泉瀉”라 하여 ‘痛’을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心虛 火痛 大敦 少衝補 陰谷 曲泉瀉”라 하여 ‘火鬱痛 心經不足’을 “心虛 火痛”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火鬱痛 心經不足 大敦 少府補 陰谷 曲泉瀉”라 하여 ‘少衝’을 “少府”라 했고, 「資料」에서는 “火鬱痛 心經不足 大敦 少衝補 陰谷 少海瀉”라 하여 ‘曲泉’을 “少海”라 했다. ‘火鬱痛 心經不足’은 앞의 ‘寒邪入腸 大腸不足’과 연계시켜 말한 것이므로, ‘痛’을 누락시킨 것과 ‘火鬱痛 心經不足’을 “心虛 火痛”이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리고 ‘少衝’을 “少府”라 한 것을 따르다면 ‘少府補’는 脾正格 肺勝格 肝正格 A變形¹¹⁸⁾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여 “火鬱痛 心經不足”이라 한 것에 어긋나므로 誤寫가 분명하다. 만약 ‘曲泉’을 “少海”라 한 것을 따르다면 心正格에 해당하므로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第八章 鬱門의 ‘火鬱發之 心實’에서 “陰谷 曲泉補 大敦 少衝瀉” 第十七章 吞酸門의 ‘心熱酸(心虛)’에서 “大敦 少衝補 少海 曲泉瀉” 第十九章 腫脹門의 ‘熱脹 心實’에서 “陰谷 曲泉補 太白 神門瀉” 등이라 한 것처럼 心正格·心勝格의 變形에서 ‘曲泉’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少海”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火鬱痛 心經不足 大敦 少衝補(心正格) 陰谷瀉(心正格) 曲泉瀉(心正格 C變形)”¹¹⁹⁾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尺澤 曲泉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尺澤 曲泉瀉”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尺澤 曲澤瀉”라 하여 ‘曲泉’을 “曲澤”이라 했는데, ‘曲澤’은 心包正格에 해당하므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少府 魚際補(肺勝格) 尺澤瀉(肺勝格) 曲泉瀉(肺勝格 C變形)”¹²⁰⁾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肝衰 鬱痛”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肝衰 鬱痛”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肝弱 鬱痛”이라 하여 ‘衰’를 “弱”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通谷 後谿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通谷 前谷瀉”라 했으나, 유독 「經濟要訣」만 “通谷 後谿瀉”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송암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송암鍼法の 原理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송암鍼法」 筆寫本 ‘第二十八章 腹痛’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腹無熱痛. 因寒邪則必有疼痛. 心虛火痛 胃虛濕痛 肺濁氣痛 腎弱冷痛 肝衰鬱痛 血虛腸痛 是也.

寒邪入腸 大腸不足 三里 曲池補陽谷 陽谿瀉

火鬱痛 心經不足大敦 少衝補陰谷 曲泉瀉

胃虛 濕痛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118) 金達鎭, 송암鍼法の 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119) 上掲書, pp. 33~39, 67.

120) 上掲書, pp. 33~39, 67.

肺濁 氣痛少府 魚際補尺澤 曲泉瀉
 腎弱 冷痛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肝衰 鬱痛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血虛 小腸痛臨泣 三間補通谷 前谷瀉

28-1. 醫學正傳腹痛¹²¹⁾

內經曰 寒氣入經而稽遲 泣(與澁通)而不行 客于脈外則血少 客于脈中則氣不通 故卒然而痛云云.
 東垣曰 腹中諸痛 皆由勞役過甚 飲食失節 中氣不足 寒邪乘虛而客入之 故卒然而作大痛 經云得熱則止.

29. 「經濟要訣」第二十九章. 腰痛

凡人之腰痛 皆係於膀胱, 鍼刺當瀉 必補大腸. 項脊如錘 是臆之所傷, 筋骨似折 云心之損悲, 屈痛伸欠 可謂腎虛之氣, 張弓弩弦 是肺傷之禍. 濕痛養火, 上實者 補下而寧. 冷腰激金, 下虛者 上瀉而愈.

項脊如錘 臆傷 通谷 俠谿補商陽 竅陰瀉

筋骨如折 大腸傷 三里 曲池補陽谷 陽谿瀉

屈伸 腎傷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張弓弩弦 肺傷 太白 太谿補少府 魚際瀉

“皆係於膀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皆係於膀胱”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皆繫於膀胱”이라 하여 ‘係’를 ‘繫’라 했는데, ‘繫’라 한 것을 따르더라도 별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係’라 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鍼刺當瀉 必補大腸”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鍼刺當瀉 必補大腸”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鍼刺當瀉 委中 必補大腸”이라 하여 ‘委中’을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鍼刺當瀉 必補太陽”이라 하여 ‘大腸’을 “太陽”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鍼刺當治 必補大腸”라 하여 ‘瀉’를 “治”라 했다. 유독 「要覽」만 ‘委中’을 추가한 것 유독 「鍼灸」만 ‘大腸’을 “太陽”이라 한 것 유독 「秘訣」만 ‘瀉’를 “治”라 한 것 등은 다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鍼刺當瀉 必補大腸”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項脊如錘 是臆之所傷”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項脊如錘 是臆之所傷”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項脊如錘 是臆之所傷”이라 하여 ‘錘’를 “鐘”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項脊如錘 是臆之所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121) 虞博, 醫學正傳 腹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84.

“筋骨似折 云心之損悲”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筋骨似折 云心之損悲”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筋骨似折 心之損非”라 하여 ‘云’을 누락시키면서 ‘悲’를 ‘非’라 했고, 『鍼灸』에서는 “筋骨如折 大腸熱痛”이라 하여 ‘似’를 ‘如’ ‘云心之損悲’를 “大腸熱痛”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筋骨似折 云心之損之損悲”라 하여 ‘損之’를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筋骨似折 去心之損悲”라 하여 ‘云’을 ‘去’라 했다. 이것은 ‘項脊如鍾 是髓之所傷’ ‘屈痛伸欠 謂腎虛之氣’ ‘張弓弩弦 是肺傷之禍’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云’을 누락시킨 것 ‘云心之損悲’를 “大腸熱痛”이라 한 것 ‘損之’를 추가한 것 등은 다 誤寫가 분명하다. 또한 ‘悲’를 ‘非’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고, ‘云’을 ‘去’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리고 유독 『鍼灸』만 ‘似’를 ‘如’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筋骨似折 云心之損悲”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나 여기서는 “筋骨似折 云心之損悲”라 하고 辨證論治에서는 “筋骨如折 大腸傷”이라 하면서 大腸正格(三里 曲池補 陽谷 陽谿瀉)을 사용한 것은 “心이 悲(肺·大腸)를 손상시킨 것이라 한다”고 했으므로 辨證論治에서 바로 “筋骨如折 大腸傷”이라 한 것이다.

“屈痛伸欠 可謂腎虛之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屈痛伸欠 可謂腎虛之氣”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屈伸痛欠 可謂腎虛之氣”라 하여 ‘屈痛伸欠’을 “屈伸痛欠”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屈痛刺痛 腎虛之氣”라 하여 ‘屈痛伸欠’을 “屈痛刺痛”이라 하면서 ‘可謂’를 누락시켰다. 이것은 다음의 ‘張弓弩弦 實是肺傷之禍’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可謂’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유독 『鍼經』만 “屈痛伸欠”이라 한 것과 『鍼灸』만 “屈痛刺痛”이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屈痛伸欠 可謂腎虛之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張弓弩弦 是肺傷之禍” : 『要覽』·『資料』·『察病』 등에서는 “張弓弩弦 實是肺傷之禍”라 하여 ‘實’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張弓弩弦 實是肺傷”이라 하여 ‘之禍’를 누락시켰으며, 『鍼灸』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秘訣』에서는 “張局弩弦 實是肺臟之禍”라 하여 ‘弓’을 ‘局’ ‘弦’을 ‘強’ ‘傷’을 ‘臟’ 등이라 했다. 이것은 ‘屈痛伸欠 可謂腎虛之氣’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實’을 추가한 것은 적합하고, ‘之禍’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확실하며, ‘弓’을 ‘局’ ‘弦’을 ‘強’ ‘傷’을 ‘臟’ 등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要覽』·『資料』·『察病』 등에서 “張弓弩弦 實是肺傷之禍”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濕痛養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痛養火”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秋濕痛養火”라 하여 ‘秋’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위의 ‘冷腰激金’과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濕痛養火”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下虛者 上清而愈”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下虛者 上清而愈”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下虛者 上補而愈”라 하여 ‘清’을 ‘補’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下虛者 上清而愈”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項脊如鍾 髓傷”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項脊如鍾 髓傷”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項脊如鍾 髓傷”이라 하여 ‘鍾’을 ‘鍾’이라 한 것은 提綱의 ‘項脊如鍾 是髓之所傷’에서 ‘鍾’을 ‘鍾’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項脊如鍾 髓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筋骨如折 大腸傷”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筋骨如折 大腸傷”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筋骨似折 大腸傷”이라 하여 ‘如’를 ‘似’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筋骨如折 大腸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屈伸 腎傷”：「要覽」·「鍼經」·「鍼灸」·「資料」 등에서는 “屈伸刺痛 腎傷”이라 하여 ‘刺痛’을 추가했고, 「察病」·「秘訣」 등에서는 “屈身刺痛 腎傷”이라 하여 ‘伸’을 ‘身’이라 하면서 ‘刺痛’을 추가했다. 이것은 ‘項脊如錘’ ‘筋骨如折’ ‘張弓弩弦’ 등과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刺痛’을 추가한 것은 적합하고, ‘伸’을 ‘身’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屈伸刺痛 腎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太白 太淵瀉”：오로지 「要覽」만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鍼灸」·「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太白 太谿瀉”라 하여 “太淵”을 “太谿”라 했다. 만약 “太淵瀉”라 한 것을 따른다면 脾勝格 A變形¹²²⁾에 해당하여 “屈伸刺痛 腎傷”이라 한 것에 어긋나므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太白 太谿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 ‘第二十九章 腰痛’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凡人之腰痛 皆係於膀胱，鍼刺當瀉 必補大腸，項脊如錘 是膽之所傷，筋骨似折 云心之損悲，屈痛伸欠 可謂腎虛之氣，張弓弩弦 實是肺傷之禍，濕痛養火，上實者 補下而寧，冷腰激金，下虛者 上清而愈。

項脊如錘 膽傷 通谷 俠谿補商陽 竅陰瀉
筋骨如折 大腸傷 三里 曲池補陽谷 陽谿瀉
屈伸刺痛 腎傷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張弓弩弦 肺傷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29-1. 醫學正傳腰痛¹²³⁾

內經曰 足太陽脈令人腰痛 引項脊背如重狀。

30. 「經濟要訣」第三十章. 脇痛

夫脇痛者 心肺三焦位也，且眈眈而不見 肝弱逢金，耳聾而無聞 肺傷遇火，心田牽而吸塞 寒冷蔽於心竅，脾上鬱而呼絕 濕熱拍於胃口，當補主病 必瀉客邪。

122) 金達鎬, 舍巖鍼法の 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33~39.

123) 虞搏, 醫學正傳 腰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90.

左脇痛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右脇痛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心下牽大敦 少衝補 魚際瀉

臍中鬻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夫脇痛者 心肺三焦位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夫脇痛者 心肺三焦位也”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夫脇痛者 心肺三焦之位”라 하여 ‘之’를 추가하면서 ‘也’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目眩眩而不見” “耳聾聾而無聞” : 「要覽」·「鍼灸」에서는 “目眩眩無見” “耳聾聾而無聞”이라 하여 ‘而’를 누락시키면서 ‘不見’을 “無見” “無聞”을 “不聞”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目莊莊無見” “耳聾聾而無聞”이라 하여 ‘而’를 누락시키면서 ‘眩眩’을 “莊莊” ‘不見’을 “無見” “無聞”을 “不聞”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目眩眩無見” “耳聾聾無聞”이라 하여 ‘而’를 다 누락시키면서 ‘不見’을 “無見” “無聞”을 “不聞”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目眩眩而不見” “耳聾聾不聞”이라 하여 ‘而’를 누락시키면서 “無聞”을 “不聞”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目眩眩而不見” “耳聾聾而無聞”이라 하여 “無聞”을 “不聞”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脇痛」에서 “內經曰……虛則目眩眩無所見 耳無所聞”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하되 “目眩眩而不見” “耳聾聾而無聞”이라 하여 “無가 중복되지 않게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而’를 누락시킨 것과 ‘眩眩’을 “莊莊”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또한 ‘不見’을 “無見” “無聞”을 “不聞”이라 한 것도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目眩眩而不見” “耳聾聾而無聞”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肺傷遇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肺傷遇火”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肺傷偶火”라 하여 ‘遇’를 “偶”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肺傷遇火”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心田牽而吸塞 寒冷蔽於心竅”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心田牽而吸塞 寒冷蔽於心竅”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心中牽而吸塞 寒冷蔽於心竅”라 하여 ‘田’을 “中”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心田牽而吸塞 寒冷閉於心竅”라 하여 ‘蔽’를 “閉”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心胃牽而吸塞 寒冷蔽於心竅”라 하여 ‘田’을 “胃” ‘塞’을 “寒”이라 했다. ‘田’을 “中” ‘田’을 “胃” ‘塞’을 “寒” 등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蔽’를 “閉”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心田牽而吸塞 寒冷蔽於心竅”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脾上鬻而呼絕”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脾上鬻而呼絕”이라 했으나, 「鍼灸」·「秘訣」에서 “脾土鬻而呼絕”이라 하여 ‘上’을 “土”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脾上鬻而呼絕”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濕熱拍於胃口” : 오로지 「經濟要訣」만 “濕熱拍於胃口”라 했고, 「要覽」·「鍼經」·「鍼灸」·「資料」 등에서는 “濕熱觸於胃口”라 하여 ‘拍’을 “觸”이라 했으며, 「察病」·「秘訣」에서는 “濕熱獨於胃口”라 하여 ‘拍’을 “獨”이라 했다. ‘拍’을 “觸”이라 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고, “獨”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하여 ‘觸’을 誤寫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濕熱觸於胃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心下牽 大敦 少衝補 魚際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心下牽 大敦 少衝補 魚際瀉”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心下牽 大敦 少衝補 魚際 曲泉 少海瀉”라 하여 “曲泉 少海”를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心火牽 大敦

少衝補 魚際瀉라 하여 '下'를 '火'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心下牽痛 大敦 少衝補 魚際瀉"라 하여 '痛'을 추가했다. '心下牽'은 '左脇痛' '右脇痛' '脾中鬱'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痛'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下'를 '火'라 한 것도 誤寫로 보이며, 유독 『鍼經』만 "曲泉 少海"를 추가한 것도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心下牽 大敦 少衝補 魚際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脾中鬱』: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脾中鬱"이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脾上鬱"이라 하여 提綱에서 "脾上鬱"이라 한 것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提綱의 "心下牽"을 "心下牽"이라 하여 心窩部를 가리켰으니 다시 "脾上"이라 한다면 동일한 위치로 誤認할 수 있으므로, "脾中鬱"이라 하여 위치를 구별했다. 그러므로 "脾中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舍巖鍼法의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章 脇痛'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夫脇痛者 心肺三焦位也。目眈眈而不見 肝弱逢金，耳朦朦而無聞 肺傷遇火，心下牽而吸塞 寒冷蔽於心竅，脾上鬱而呼絕 濕熱壅於胃口，當補主病 必瀉客邪。

- 左脇痛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 右脇痛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 心下牽大敦 少衝補 魚際瀉
- 脾中鬱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30-1. 醫學正傳脇痛(124)

內經曰 肝病者 兩脇下痛引小腹 令人善怒 虛則目眈眈無所見 耳無所聞 又或歲木太過而木氣自甚 或歲金有餘而木氣被鬱 皆令人脇痛。

31. 「經濟要訣」第三十一章. 諸氣

先觀七情之長短 後察九氣之善惡，喜則氣緩 怒則氣上 憂者氣沈而思結 悲者氣消而驚亂 恐氣下而寒氣收 勞者泄云終。夫人身之正氣 與精血爲配 血主脈內 氣行經外，呼吸皆行於三才 血氣并行於一身。以此瀆沈乎百骸之內 循環於九竅之中，內無七情之所傷 外非六情之所感，君子行之無憂 何氣之有哉！噫！時人 五志之火 無時不起

124) 虞搏, 醫學正傳 脇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 194~195.

十味之偏 無日不傷, 是以補以七情 溫以九氣.

“後察九氣之善惡”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後察九氣之善惡”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察九氣之善惡”이라 하여 ‘後’를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앞의 ‘先觀七情之長短’과 七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後’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後察九氣之善惡”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憂者氣沈而思結 悲者氣消而驚亂 恐氣下而寒氣收 勞者泄云終” : 『要覽』에서는 “憂者氣沈而思結 悲者氣消而驚者氣亂 恐者氣下而寒收 勞者氣泄而云”이라 하여 ‘驚亂’을 “驚者氣亂” ‘恐氣下’를 “恐者氣下” ‘寒氣收’를 “寒收” ‘泄云終’을 “氣泄而云”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憂者氣沈而思結 悲者氣消而驚亂 恐氣下而寒收 勞者泄云”이라 하여 ‘寒氣收’를 “寒收” ‘泄云終’을 “泄云”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憂者氣沈而思結 悲者氣消而驚亂 恐氣下而寒氣收 勞者泄云”이라 하여 ‘恐’를 “怒” ‘泄云終’을 “泄云”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憂者氣沈思結 悲者氣消而驚亂 恐氣下而寒收 勞者泄云”이라 하여 ‘氣沈而思結’의 ‘而’를 누락시키면서 ‘寒氣收’를 “寒收” ‘泄云終’을 “泄云”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憂者氣沈而思氣結 悲者氣消而驚氣亂 恐者氣下而寒氣收”라 하여 ‘思結’을 “思氣結” ‘驚亂’을 “驚氣亂”이라 하면서 ‘勞者泄云終’을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전체를 “憂則氣沈 思則氣結 悲則氣消 驚則氣亂 恐則氣下 寒則氣收 勞則氣耗”라 했다. 이것은 전부 七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하여 “憂者氣沈而思結 悲者氣消而驚亂 恐者氣下而寒收 勞者氣泄而云終”이라 한 것으로 보이므로, ‘恐氣下’를 “恐者氣下” ‘寒氣收’를 “寒收” 등이라 한 것은 합당하고, ‘驚亂’을 “驚者氣亂” ‘泄云終’을 “氣泄而云”·“泄云” ‘恐’를 “怒” ‘思結’을 “思氣結” ‘驚亂’을 “驚氣亂” 등이라 한 것과 ‘而’ ‘勞者泄云終’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독 『秘訣』만 “憂則氣沈 思則氣結 悲則氣消 驚則氣亂 恐則氣下 寒則氣收 勞則氣耗”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憂者氣沈而思結 悲者氣消而驚亂 恐者氣下而寒收 勞者氣泄而云終”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夫人身之正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夫人身之正氣”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夫身之正氣”라 하여 ‘人’을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夫人身者正氣”라 하여 ‘之’를 “者”라 했다. ‘人身之正氣’는 舍巖이 『醫學正傳·諸氣』에서 “夫人身之正氣 如血爲配”라 한 것을 인용하여 뒤의 ‘與精血爲配’와 五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人’을 누락시킨 것과 ‘之’를 “者”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夫人身之正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血主脈內” : 오직 『經濟要訣』만 “血主脈內”라 했고,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血注脈內”라 하여 ‘主’를 “注”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諸氣』에서 “血行脈中 氣行脈外”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主’를 “注”라 한 것이 적당하다. 그러므로 “血注脈內”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呼吸皆行於三才”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呼吸皆行於三才”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呼呼吸行於三才”라 하여 ‘吸’을 “呼”라 했고, 『資料』에서는 “呼吸皆行於三災”라 하여 ‘才’를 “災”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呼吸皆行於三寸”이라 하여 ‘才’를 “寸”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諸氣』에서 “一呼脈行三寸 一吸脈行三寸”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吸’을 “呼” ‘才’를 “災”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才’를 “寸”이라 한 것은 적당하다. 그러므로 『察病』에서 “呼吸皆行於三寸”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血氣併行於一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血氣併行於一身”이라 했으나, 『鍼灸』·『秘訣』에서는 “血氣併行於一身”이라 하여 ‘并’을 “併”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諸氣』에서 “氣血併行 周流乎一身之中”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血氣併行於一身”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以此灌沈乎百骸之內 循環於九竅之中”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以此灌沈乎百骸之內 循環於九竅之中”

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以此灌漑乎百骸 循環於九竅”라 하여 ‘之內’ ‘之中’을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諸氣」에서 “灌漑乎百骸之內 循環無端”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之內’ ‘之中’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또한 모두 ‘沈’이라 한 것도 ‘漑’라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以此灌漑乎百骸之內 循環於九竅之中”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外非六情之所感” : 「要覽」·「察病」에서는 “外非六慾之所感”이라 하여 ‘情’을 ‘慾’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外非九氣之所感”이라 하여 ‘六情’을 ‘九氣’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外無六情之所感”이라 하여 ‘非’를 ‘無’라 했고, 「資料」에서는 “外無六慾之所感”이라 하여 ‘非’를 ‘無’ ‘情’을 ‘慾’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外非六氣之所感”이라 하여 ‘六情’을 ‘六氣’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諸氣」에서 “若內無七情之所傷 外無六淫之所感 何氣病之有哉”라 한 것을 인용하되 ‘無’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內無七情之所傷 外非六淫之所感”이라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情’을 ‘慾’ ‘非’를 ‘無’ ‘六情’을 ‘九氣’ ‘六氣’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또한 ‘六情’을 ‘六淫’이라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外非六淫之所感”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時人”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時人”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時人之”라 하여 ‘之’를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時人”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十味之偏”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十味之偏”이라 했으나, 「資料」에서는 “十味之便”이라 하여 ‘偏’을 ‘便’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十味之編”이라 하여 ‘偏’을 ‘編’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五味之偏”이라 하여 ‘十味’를 ‘五味’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諸氣」에서 “其不善攝生者 五志之火無時不起 五味之偏 無日不傷”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偏’을 ‘便’ ‘編’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리고 유독 「秘訣」만 “五味”라 했으나 다른 필사본에서는 모두 “十味”라 했는데, ‘十’이라는 것은 ‘ 전부 ’ ‘ 일체 ’ ‘ 완전함 ’ 등의 뜻이 있으므로 ‘五味’보다 포함하는 뜻이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十味之偏”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以補以七情 溫以九氣” : 「資料」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要覽」·「鍼經」·「秘訣」 등에서는 “是故補而七情 溫而九氣”라 하여 ‘是以’를 “是故”라 하면서 ‘以’를 다 “而”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是故補以七情 溫以九氣”라 하여 ‘是以’를 “是故”라 했고, 「察病」에서는 “是以補以七情 瀉以九氣”라 하여 ‘溫’을 ‘瀉’라 했다. ‘以’가 중복되므로 ‘是以’를 “是故”라 한 것은 적합하지만 ‘以’를 “而” ‘溫’을 ‘瀉’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鍼灸」에서 “是故補以七情 溫以九氣”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一章 諸氣’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先觀七情之長短 後察九氣之善惡, 喜則氣緩 怒則氣上 憂者氣沈而思結 悲者氣消而驚亂 恐者氣下而寒收 勞者氣泄而云終. 夫人身之正氣 與精血爲配 血注脈內 氣行經外, 呼吸皆行於三寸 血氣并行於一身. 以此灌漑乎百骸之內 循環於九竅之中, 內無七情之所傷 外非六淫之所感, 君子行之無憂 何氣之有哉! 噫! 時人 五志之火 無時不起 十味之偏 無日不傷, 是故補以七情 溫以九氣.

怒 氣上 太衝補經渠瀉

喜 氣緩 太白溫三里瀉

思 氣結 間使鍼氣海灸

悲 氣消 上腕灸腰俞鍼

驚 氣亂 太衝補少府瀉

恐 氣下 腎俞灸行間鍼瀉

寒 氣收 丹田氣海灸 百壯

勞 氣耗 三陰交肺俞灸

“怒 氣上”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怒 氣上”이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怒 氣上衝”이라 하여 ‘衝’을 추가했다. “怒 氣上”은 ‘喜 氣緩’ ‘思 氣結’ ‘悲 氣消’ ‘驚 氣亂’ ‘恐 氣下’ ‘寒 氣收’ ‘勞 氣耗’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衝’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怒 氣上”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喜 氣緩 太白溫 三里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喜 氣緩 太白溫 三里瀉”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喜 氣亂 太白溫 三里瀉”이라 하여 ‘緩’을 “亂”이라 한 것은 위의 提綱에서 “喜則氣緩”이라 한 것에 어긋나므로 誤寫가 분명하고, 유독 「秘訣」만 “喜 氣緩 太白補 三里瀉”라 하여 ‘溫’을 “補” ‘瀉’을 “瀉”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喜 氣緩 太白溫 三里瀉”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思 氣結 間使鍼 氣海灸”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思 氣結 間使鍼 氣海灸”라 했으나, 유독 「要覽」만 “思 氣結 行間鍼 氣海灸”라 하여 ‘間使’를 “行間”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思 氣結 間使鍼 氣海灸”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悲 氣消 上腕灸 腰俞鍼”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悲 氣消 上腕灸 腰俞鍼”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悲 氣消 上腕灸 腰俞灸”라 하여 ‘腰俞鍼’을 “腰俞灸”라 했고, 「察病」에서는 “悲 氣消 上腕灸 腰俞瀉”라 하여 ‘鍼’을 “瀉”라 했는데, ‘鍼’을 “瀉” ‘灸’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悲 氣消 上腕灸 腰俞鍼”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恐 氣下 腎俞灸 行間鍼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恐 氣下 腎俞灸 行間鍼瀉”라 했으나, 「鍼經」·「資料」에서는 “恐 氣下 腎俞灸 行間瀉”라 하여 ‘鍼’을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恐 氣下 腎俞灸 行間瀉”라 하여 ‘恐’을 “怒”라 하면서 ‘鍼’을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恐 氣下 太白補 大敦瀉”라 하여 ‘腎俞灸’를 “太白補” ‘行間鍼瀉’를 “大敦瀉”라 했다. “思 氣結 間使鍼 氣海灸” “悲 氣消 上腕灸 腰俞鍼”이라 한 것처럼 “恐 氣下 腎俞灸 行間鍼”이라 해야 적합하므로 ‘鍼’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되고, ‘恐’을 “怒”라 한 것은 誤寫가 확실하다. 오직 「察病」만 “腎俞灸”를 “太白補” ‘行間鍼瀉’를 “大敦瀉”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恐 氣下 腎俞灸 行間鍼”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寒氣收”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寒氣收”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寒氣收引”이라 하여 ‘引’을 추가했다. “寒氣收”는 ‘怒氣上’ ‘喜氣緩’ ‘思氣結’ ‘悲氣消’ ‘驚氣亂’ ‘恐氣下’ ‘勞氣耗’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引’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寒氣收”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勞氣耗 三陰交 肺俞灸” : 「察病」, 「秘訣」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要覽」에서는 “勞氣 三陰交 肺俞灸 七壯”이라 하여 ‘耗’를 누락시키면서 ‘七壯’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勞氣損 三陰交 肺俞灸”라 하여 ‘耗’를 ‘損’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勞氣耗 三陰交 腎俞(一云肺俞)灸”라 하여 ‘肺俞’를 “腎俞(一云肺俞)”라 했고, 「資料」에서는 “勞氣泄 三陰交 肺俞灸”라 하여 ‘耗’를 “泄”이라 했다. ‘怒氣上’ ‘喜氣緩’ ‘思氣結’ ‘悲氣消’ ‘驚氣亂’ ‘恐氣下’ ‘寒氣收’ 등처럼 다 對句를 이루면서 提綱과 일치했으나, 유독 ‘勞氣耗’만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耗’를 누락시킨 것 ‘七壯’을 추가한 것 ‘耗’를 ‘損’이라 한 것 등은 誤寫가 확실하고, 유독 「鍼灸」만 ‘肺俞’를 “腎俞(一云肺俞)”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며, ‘耗’를 “泄”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資料」에서 “勞氣泄 三陰交 肺俞灸”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提綱과 辨證論治가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一章 諸氣’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怒氣上 太衝補經渠瀉
- 喜氣緩 太白溫三里涼
- 思氣結 間使鍼氣海灸
- 悲氣消 上腕灸腰俞鍼
- 驚氣亂 太衝補少府瀉
- 恐氣下 腎俞灸行間鍼
- 寒氣收 丹田氣海灸 百壯
- 勞氣泄 三陰交肺俞灸

31-1. 醫學正傳諸氣(125)

內經曰 百病皆生于氣也 故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熱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夫人身之正氣 如血爲配 血行脈中 氣行脈外 一呼脈行三寸 一吸脈行三寸 氣血并行 周流乎一身之中 灌溉乎百骸之內 循環無端 運氣不悖 而爲生生不息之妙用也.

經曰 一息不運則機緘竅 一毫不續則虧壞判 若內無七情之所傷 外無六淫之所感 何氣病之有哉! 其不善攝生者 五志之火無時不起 五味之偏無日不傷.

125) 虞博, 醫學正傳 諸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98.

32. 「經濟要訣」第三十二章. 疝氣

土疝者 囊冷結硬 如石之堅, 水疝者 腎門腫痛 如水之汗出, 筋疝者 陰莖腫脹 或潰散之濃, 血疝者 腹黃瓜之 抵橫骨之端, 氣疝者 在右 不疼痛也. 從陽引陰 必曰本而不失也.

“土疝者” “筋疝者” “血疝者” “氣疝者”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土疝者” “筋疝者” “血疝者” “氣疝者”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寒疝者” “筋疝” “血疝” “氣疝”이라 하여 ‘土疝者’를 “寒疝者”라 하면서 ‘者’를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夫疝者” “筋疝者” “血疝者” “氣疝者”라 하여 ‘土疝者’를 “夫疝者”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寒疝者” “筋疝者” “血疝者” “氣疝者”라 하여 ‘土疝者’를 “寒疝者”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疝氣」에서 “子曰 寒疝者 囊冷結硬如石 陰莖不舉 或控辜丸而痛. 水疝者……. 筋疝者……. 血疝者……. 氣疝者……. 狐疝者……. 癰疝者…….”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者’를 누락시킨 것과 ‘土疝者’를 “夫疝者”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土疝者’를 “寒疝者”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寒疝者” “筋疝者” “血疝者” “氣疝者”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囊冷結硬 如石之堅” : 「要覽」에서는 “囊冷硬結 如石之堅”이라 하여 ‘結硬’을 “硬結”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囊冷結硬 如石之堅 陰莖不痛”이라 하여 ‘陰莖不痛’을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陰卵冷結硬 如石之堅 陰莖不舉”라 하여 ‘囊’을 “陰卵”이라 하면서 ‘陰莖不舉’를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囊冷結硬 如石之堅 陰莖不舉”라 하여 ‘陰莖不舉’를 추가했으며, 「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秘訣」에서는 “囊冷結硬 如石之腎”이라 하여 ‘腎’을 “腎”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疝氣」에서 “子曰 寒疝者 囊冷結硬如石 陰莖不舉 或控辜丸而痛”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서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結硬’을 “硬結” ‘囊’을 “陰卵” ‘腎’을 “腎”이라 한 것과 ‘陰莖不舉’를 추가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囊冷結硬 如石之堅”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如水之汗出”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如水之汗出”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如木之汗出”이라 하여 ‘水’를 “木”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如水汗出”이라 하여 ‘之’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疝氣」에서 “水疝者 其狀 腎囊腫痛 陰汗時出 或囊腫狀如水晶”라 한 것을 인용하여 뒤의 ‘或潰散之濃’ ‘抵橫骨之端’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水’를 “木”이라 한 것과 ‘之’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如水之汗出”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陰莖腫脹 或潰散之濃” : 「要覽」에서는 “陰莖腫脹 或潰散之”라 하여 ‘濃’을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陰莖腫脹 或潰散濃”이라 하여 ‘之’를 누락시켰으며, 「鍼灸」에서는 “陰莖腫脹 或潰散之膿”이라 하여 ‘濃’을 “膿”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陰莖腫痛而脹 或潰而膿”이라 하여 ‘痛而’을 추가하면서 ‘散之’를 “而” ‘濃’을 “膿”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秘訣」에서는 “陰莖腫脹 或潰而膿”이라 하여 ‘散之’를 “而” ‘濃’을 “膿”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疝氣」에서 “筋疝者 其狀 陰莖腫脹 或潰而爲膿”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앞의 ‘腎門腫痛 如水之汗出’ 뒤의 ‘腹黃瓜之 抵橫骨之端’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濃’ ‘之’를 누락시킨 것과 ‘痛而’을 추가하면서 ‘散之’를 “而”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고, ‘濃’을 “膿”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陰莖腫脹 或潰散之膿”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腹黃瓜之 抵橫骨之端” : 「要覽」에서는 “腹黃瓜之大 抵橫骨之端”이라 하여 ‘瓜’를 “瓜”라 하면서 ‘大’를 추

가했고, 『鍼經』에서는 “腹有如黃瓜之 抵橫骨之端”이라 하여 ‘有如’를 추가하면서 ‘瓜’를 “瓜”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狀如黃瓜之 抵橫骨之端”이라 하여 ‘腹’을 “狀如” ‘瓜’를 “瓜”라 했고, 『資料』에서는 “腹黃瓜之 抵橫骨之端”이라 하여 ‘瓜’를 “瓜”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腹黃瓜至抵橫骨端”이라 하여 ‘瓜’를 “瓜” ‘之’를 “至”라 하면서 ‘之’를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狀如黃瓜者 在於小腹橫骨之端”이라 하여 ‘腹’을 “狀如” ‘之’를 “者” ‘抵’를 “在於小腹”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疝氣』에서 “血疝者 其狀如黃瓜 在少腹兩旁 橫骨兩端約紋中 俗名便癰”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앞의 ‘腎門腫痛 如水之汗出’ ‘陰莖腫脹 或潰散之膿’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瓜’를 “瓜” ‘腹’을 “狀如” ‘之’를 “至” ‘之’를 “者” ‘抵’를 “在於小腹” 등이라 한 것과 ‘大’ ‘有如’를 추가하면서 ‘之’를 누락시킨 것 등은 다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腹黃瓜之 抵橫骨之端”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在右不痒痛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在右不痒痛也”라 했으나, 『要覽』, 『鍼經』, 『鍼灸』 등에서는 “在右不痒痛者也”라 하여 ‘者’를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右痛也”라 하여 ‘在’ ‘不痒’을 누락시켰다. ‘在右不痒痛’은 앞의 ‘如水之汗出’ ‘或潰散之膿’ ‘抵橫骨之端’ 등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者’를 추가한 것과 ‘在’ ‘不痒’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在右不痒痛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必曰本而不失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必曰本而不失也”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必治本而不失也”라 하여 ‘曰’을 “治”라 했는데, ‘曰’이라 한 것을 따른다면 해석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治”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二章 疝氣’의 提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寒疝者 囊冷結硬 如石之堅, 水疝者 腎門腫痛 如水之汗出, 筋疝者 陰莖腫脹 或潰散之膿, 血疝者 腹黃瓜之 抵橫骨之端, 氣疝者 在右不痒痛也, 從陽引陰 必治本而不失也.

水疝者 屬腎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寒疝者 屬大腸 三里 曲池補陽谷 陽谿瀉

筋疝者 屬肝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血疝者 屬心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氣疝者 屬肺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狐疝者三陰交 然谷補隤白 太谿瀉

癰疝者 一名土疝 三陰交 陽陵泉補三里 太白瀉

“水疝者” “寒疝者” “筋疝者” “血疝者” “氣疝者” “狐疝者” “癰疝者 一名土疝” : 「要覽」·「鍼經」·「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水疝” “寒疝” “筋疝” “血疝” “氣疝” “狐疝” “癰疝”이라 하여 ‘者’를 전부 누락시키면서 ‘一名土疝’도 누락시켰고, 「鍼灸」에서는 “水疝者” “寒疝者” “筋疝者” “血疝者” “氣疝者” “狐疝” “癰疝”이라 하여 ‘狐疝’과 ‘癰疝’만 ‘者’를 누락시키면서 ‘一名土疝’도 누락시켰다. 대부분이 ‘者’ ‘一名土疝’을 누락시켰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三陰交 陽陵泉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三陰交 陽陵泉補”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三陰交 陰陵泉補”라 하여 “陽陵泉”을 “陰陵泉”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三陰交 陽陵泉補”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要覽」·「鍼經」·「資料」·「察病」·「秘訣」 등의 筆寫本에서 筆寫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결론적으로 「舍岩鍼法」 筆寫本 ‘第三十二章 疝氣’의 辨證論治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水疝 屬腎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 寒疝 屬大腸 三里 曲池補陽谷 陽谿瀉
- 筋疝 屬肝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 血疝 屬心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 氣疝 屬肺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 狐疝 三陰交 然谷補隱白 太谿瀉
- 癰疝 三陰交 陽陵泉補三里 太白瀉

32-1. 醫學正傳疝氣¹²⁶⁾

子和曰 寒疝者 囊冷結硬如石 陰莖不舉 或控辜丸而痛
 水疝者 其狀 腎囊腫痛 陰汗時出 或囊腫狀如水晶
 筋疝者 其狀 陰莖腫脹 或潰而爲膿
 血疝者 其狀 如黃瓜 在少腹兩旁 橫骨兩端約紋中 俗名便癪
 氣疝者 其狀 上連腎脬 下及陰囊 多得于號哭忿怒 則氣鬱之而脹 號哭 怒罷 卽氣散者 是也
 狐疝者 其狀 如仰瓦 臥則立少腹 行立則出腹入囊中 如狐晝出穴而溺 夜入穴而不溺 此疝出入 往來上下 正與狐相類也 亦與氣疝大同小異
 癰疝者 其狀 陰囊大如升斗 不痒不痛者 是也.

33. 「經濟要訣」第三十三章. 脚氣

126) 虞搏, 醫學正傳 疝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 201~202.

內經曰 濕腫之滿在脾 四末之氣在胃 脾好生濕 胃喜作熱 濕熱相傳 其氣流於兩脚 風冷雜 運行於四肢 麻痺不足 從陰陽於透山 浮酸有痛 施左右於滄溪 實者無補 虛者不瀉.

鶴膝風中脘正 環跳瀉

筋蠶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痿痺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脚足轉筋 通谷 曲池補商陽 竅陰瀉

脚足寒 湧泉 然谷補 環跳瀉

“濕腫之滿在脾”：「要覽」·「鍼經」·「鍼灸」·「察病」 등에서는 “濕腫滿而在脾”라 하여 ‘之’를 누락시키면서 ‘而’를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濕腫在脾”라 하여 ‘之滿’을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濕腫滿在脾”라 하여 ‘之’를 누락시켰다. 이것은 뒤의 ‘四末之氣在胃’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之滿’ ‘之’ 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리고 ‘濕腫之滿在脾’는 해석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第十九章 腫脹門에서 “濕腫滿於脾胃” 第二十五章 眩暈門에서 “濕腫滿而起脾” 등이라 한 것처럼 “濕腫滿而在脾”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脾好生濕 胃喜作熱”：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脾好生濕 胃喜作熱”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脾好生濕 胃好作熱”이라 하여 ‘喜’를 “好”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脾好生濕 胃喜作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濕熱相傳 其氣流於兩脚”：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濕熱相傳 其氣流於兩脚”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濕熱相搏 其氣流於兩脚”이라 하여 ‘傳’을 “搏”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相傳 其氣流於兩脚”이라 하여 ‘濕熱’을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濕熱相搏 其氣流行於兩脚”이라 하여 ‘傳’을 “搏”이라 하면서 ‘行’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脚氣」에서 “蓋脾主四肢 足居于下 而多受其濕 濕鬱成熱 濕熱相搏 其病作矣.”라 한 것을 인용하여 뒤의 ‘風冷流雜 失其運行於四肢’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濕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傳’을 “搏”이라 하면서 ‘行’을 추가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濕熱相搏 其氣流行於兩脚”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冷雜 運行於四肢”：「要覽」·「鍼經」·「資料」·「察病」 등에서는 “風冷雜 失其運行於四肢”라 하여 ‘失其’를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風冷流雜 失其運行於四肢”라 하여 ‘流’ ‘失其’ 등을 추가했으며, 「秘訣」에서는 “風涼流雜 失其運行於四肢”라 하여 ‘涼’ ‘流’ ‘失其’ 등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앞의 ‘濕熱相搏 其氣流行於兩脚’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流’ ‘失其’ 등을 추가한 것은 적합하고, ‘涼’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鍼灸」에서 “風冷流雜 失其運行於四肢”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麻痺不足” “浮酸有痛”：모든 筆寫本에서 다 “麻痺不足” “浮酸有痛”이라 했는데, ‘不足’은 ‘有痛’과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또한 ‘足’과 ‘遂’는 글자체가 유사하므로 ‘不足’을 ‘不遂’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麻痺不遂” “浮酸有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從陰陽於遯山” “施左右於清溪”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從陰陽於遯山” “施左右於清溪”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從陰陽於三里” “施左右於清溪”라 하여 ‘遯山’을 “三里”라 했고, 「鍼灸」에서는 “從陰陽於發散” “施左右於補瀉”라 하여 ‘遯山’을 “發散” ‘清溪’를 “補瀉”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從陽於動遯山” “施左右於清溪”라 하여 ‘陰’을 누락 ‘動’을 추가했다. 두 句節이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陰’을 누락 ‘動’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6種의 筆寫本은 다 “遯山” “清溪”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遯山’을 “發散” ‘清溪’를 “補瀉”라 한 것도 誤寫가 확실하다. 그리고 ‘遯山’은 “三里”의 異名이므로 “從陰陽於遯山” “施左右於清溪”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筋彎”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筋彎”이라 했으나, 「鍼灸」, 「資料」에서는 “筋彎”이라 하여 ‘彎’을 “彎”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許任鍼灸經驗方·脚膝」에서 “手足筋彎 蹇澁”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筋彎蹇澁”을 “彎”이라 한 것으로 보이므로, “筋彎”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脚足轉筋”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脚足轉筋”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脚氣轉筋”이라 하여 ‘足’을 “氣”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許任鍼灸經驗方·脚膝」에서 “脚足轉筋 不忍”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脚足轉筋”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發音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三章 脚氣’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濕腫滿而在脾 四末之氣在胃 脾好生濕 胃喜作熱, 濕熱相搏 其氣流行於兩脚 風冷流雜 失其運行於四肢, 麻痺不遂 從陰陽於遯山, 浮酸有痛 施左右於清溪, 實者無補 虛者不瀉.

鶴膝風中脘正 環跳瀉

筋彎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痿痺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脚足轉筋 通谷 曲池補商陽 竅陰瀉

脚足寒 湧泉 然谷補 環跳瀉

33-1. 醫學正傳脚氣¹²⁷⁾

內經曰 諸濕腫滿 皆屬脾土 又曰 傷于濕者 下先受之. 蓋脾主四肢 足居于下 而多受其濕 濕鬱成熱 濕熱相搏 其病作矣.

33-2. 許任鍼灸經驗方脚膝¹²⁸⁾

127) 虞搏, 醫學正傳 脚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 208.

128) 許任, 韓國醫學大系 第38卷 許任鍼灸經驗方, 서울, 龍江出版社, 1988, pp. 540-542.

脚酸 不能屈伸 難久立
 四肢不收 怠惰嗜臥
 脚足轉筋 不忍
 手足筋掣 蹇澁
 鶴膝風 膝如大瓢 而膝之上下皆細 身熱痛中脘
 脚足寒冷 不可忍.

34. 「經濟要訣」第三十四章. 痛風

內經曰 諸風掉眩 強直肢痛 經戾裏急筋縮 皆屬肝膽之原. 又曰 風寒濕三氣 謂之麻痺, 風氣勝而爲行痺 寒氣勝而爲痛痺 濕氣勝而爲蒼痺, 冬遇此者骨痺 春遇此者筋痺 夏遇此者脈痺 季夏遇此者肌痺 秋遇此者皮痺也. 所謂痛痺者 今之痛風 是也.

行痺 膽勝 商陽 竅陰補陽谷 陽輔瀉
 痛痺 寒勝 陽谷 陽谿補通谷 三間瀉
 蒼痺 濕勝 大敦 隱白補經渠 商丘瀉
 骨痺 膀胱勝 商陽 至陰補三里 委中瀉
 筋痺 肝弱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脈痺 小腸弱 臨泣 後谿補通谷 前谷瀉
 肌痺 胃勝 臨泣 陷谷補商陽 厲兌瀉
 皮痺 肺弱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痛痺 膽弱 通谷 俠谿補商陽 竅陰瀉
 白虎風 肺勝 少府 魚際補陰谷 尺澤瀉

“諸風掉眩 強直肢痛 經戾裏急筋縮 皆屬肝膽之原. 又曰”: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諸風掉眩 強直肢痛 經戾裏急筋縮 皆屬肝膽之原. 又曰”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전부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諸風掉眩 強直肢痛 經戾裏急筋縮 皆屬肝膽之原. 又曰”이라 하여 ‘風’을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痛風(古名痛痺)」에서 “內經曰 諸風掉眩 強直支痛 經戾裏急筋縮 皆足厥陰風木之位 肝膽之氣也”라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諸風掉眩’과 ‘強直肢痛’은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風’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전부 누락시킨 것도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諸風掉眩 強直肢痛 經戾裏急筋縮 皆屬肝膽之原. 又曰”

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寒濕三氣 謂之麻痺” : 「要覽」·「察病」에서는 “風寒濕三氣 謂麻痺”라 하여 ‘之’를 누락시켰고, 「鍼經」·「鍼灸」에서는 “風寒濕三氣 爲麻痺”라 하여 ‘謂’를 ‘爲’라 하면서 ‘之’를 누락시켰으며, 「資料」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秘訣」에서는 “風寒濕三氣 謂麻痺之本”이라 하여 ‘謂之麻痺’를 “謂麻痺之本”이라 했다. 이 부분은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별문제가 없으나, “風寒濕三氣 謂之麻痺”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寒氣勝而爲痛痺 濕氣勝而爲著痺” : 「要覽」·「鍼經」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灸」·「資料」·「察病」 등에서는 “寒氣勝而痛痺 濕氣勝而著痺”라 하여 ‘爲’를 전부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濕氣勝者著痺”라 하여 “寒氣勝而爲痛痺” ‘爲’를 누락시키면서 ‘而’를 ‘者’라 했다. ‘寒氣勝而爲痛痺’ ‘濕氣勝而爲著痺’ 등과 七言 節句를 이루게 한 앞의 ‘風氣勝而爲行痺’를 그대로 둔채 ‘爲’를 전부 누락시킨 것과 ‘爲’를 누락시키면서 ‘而’를 ‘者’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다. 또한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痛風(古名痛痺)」에서 “寒氣勝者 爲痛痺 濕氣勝者爲著痺”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寒氣勝而爲痛痺”를 누락시킨 것도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寒氣勝而爲痛痺 濕氣勝而爲著痺”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季夏遇此者肌痺”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季夏遇此者肌痺”라 했으나, 「要覽」·「秘訣」에서는 “季夏遇者肌痺”라 하여 ‘此’를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季夏遇者肥痺”라 하여 ‘此’를 누락시키면서 ‘肌’를 “肥”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痛風(古名痛痺)」에서 “以冬遇此爲骨痺 以春遇此爲筋痺 以夏遇此爲脈痺 以至陰遇此爲肌痺 以秋遇此爲皮痺”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此’를 누락시킨 것과 ‘肌’를 “肥”라 한 것 등은 다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季夏遇此者肌痺”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所謂痛痺者 今之痛風 是也” : 「要覽」에서는 “痛痺 今謂風痺也”라 하여 ‘所謂’ ‘者’ ‘是’ 등을 누락시키면서 ‘之’를 ‘謂’ ‘痛風’을 “風痺”라 했고, 「鍼經」에서는 “痺痛者 卽今痛痺也”라 하여 ‘所謂’ ‘之’ ‘是’ 등을 누락 ‘卽’을 추가하면서 ‘痛痺’를 “痺痛” ‘痛風’을 “痛痺”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痛痺者 今爲痛風也”라 하여 ‘所謂’ ‘是’를 누락시키면서 ‘之’를 “爲”라 했고, 「資料」에서는 “痺痛 卽痛風也”라 하여 ‘所謂’ ‘者’ ‘今’ ‘之’ ‘是’ 등을 누락 ‘卽’을 추가하면서 ‘痛痺’를 “痺痛”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痛痺 卽今之痛風也”라 하여 ‘所謂’ ‘者’ ‘是’ 등을 누락시키면서 ‘卽’을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痛痺 卽今痛風中也”라 하여 ‘所謂’ ‘者’ ‘之’ ‘是’ 등을 누락시키면서 ‘卽’ ‘中’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痛風(古名痛痺)」에서 “夫古之所謂痛痺者 卽今之痛風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所謂’ ‘者’ ‘之’ 등을 누락시킨 것과 ‘中’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痛痺’를 “痺痛” ‘之’를 “謂” ‘爲’ ‘痛風’을 “風痺” ‘痛痺’라 한 것 등은 다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所謂痛痺者 卽今之痛風也”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行痺 臆勝”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行痺 臆勝”이라 했고, 「鍼經」만 “行痺 風勝”이라 하여 ‘臆’을 “風”이라 했다. 이것은 다음의 ‘痛痺 寒勝’ ‘着痺 濕勝’과 對句를 이루게 하면서 風勝·寒勝·濕勝 등으로 구별한 것이므로 「鍼經」에서 “行痺 風勝”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通谷 三間瀉” : 오직 「經濟要訣」만 “通谷 三間瀉”라 했으나,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通谷 二間瀉”라 하여 ‘三間’을 “二間”이라 했는데, ‘通谷 二間瀉’는 大腸勝格에 해당하므로 “痛痺 寒勝”이라 한 것에 일치한다. 그러므로 “通谷 二間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骨痺 膀胱勝 商陽 至陰補 三里 委中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骨痺 膀胱勝 商陽 至陰補 三里 委中瀉”라 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骨痺 膀胱弱 商陽 至陰補 三里 委中瀉”라 하여 “膀胱勝”을 “膀胱弱”이라

했다. '骨痺'는 '膀胱勝'이라 하면서 '商陽 至陰補 三里 委中瀉'라는 膀胱正格을 사용한 것은 서로 어긋나므로, '膀胱勝'을 '膀胱弱'이라 한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察病」·「秘訣」에서 "骨痺 膀胱弱 商陽 至陰補 三里 委中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痛痺 膽弱"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痛風 膽弱"이라 했으나, 「經濟要訣」만 "痛痺 膽弱"이라 하여 '痛風'을 "痛痺"라 했다. 이것은 위의 辨證論治에서 "痛痺 寒勝 陽谷 陽谿補 通谷 二間瀉(大腸勝格)"라 한 것이 이미 있었으므로, "痛風 膽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白虎風 肺勝 少府 魚際補 陰谷 尺澤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白虎風 肺勝 少府 魚際補 陰谷 尺澤瀉"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白虎風 肺弱 少府 魚際補 陰谷 尺澤瀉"라 하여 '肺勝'을 "肺弱"이라 했다. 만약 「鍼經」을 따른다면 위의 침구치료 처방이 肺正格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少府 魚際補 陰谷 尺澤瀉'는 肺勝格이므로 '肺勝'을 "肺弱"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白虎風 肺勝 少府 魚際補 陰谷 尺澤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의 원리를 무시한 채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四章 痛風'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諸風掉眩 強直肢痛 綆戾裏急筋縮 皆屬肝膽之原. 又曰 風寒濕三氣 謂之麻痺, 風氣勝而爲行痺 寒氣勝而爲痛痺 濕氣勝而爲著痺. 冬遇此者骨痺 春遇此者筋痺 夏遇此者脈痺 季夏遇此者肌痺 秋遇此者皮痺也. 所謂痛痺者 卽今之痛風也.

行痺 風勝 商陽 竅陰補陽谷 陽輔瀉
 痛痺 寒勝 陽谷 陽谿補通谷 二間瀉
 著痺 濕勝 大敦 隱白補經渠 商丘瀉
 骨痺 膀胱弱 商陽 至陰補三里 委中瀉
 筋痺 肝弱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脈痺 小腸弱 臨泣 後谿補通谷 前谷瀉
 肌痺 胃勝 臨泣 陷谷補商陽 厲兌瀉
 皮痺 肺弱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痛風 膽弱 通谷 俠谿補商陽 竅陰瀉
 白虎風 肺勝 少府 魚際補陰谷 尺澤瀉

34-1. 醫學正傳痛風(古名痛痺)129)

129) 虞博, 醫學正傳 通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212.

內經曰 諸風掉眩 強直支痛 綆戾裏急筋縮 皆足厥陰風木之位 肝膽之氣也.

又曰 風寒濕三氣雜至 合而爲痺 其風氣勝者爲行痺 寒氣勝者爲痛痺 濕氣勝者爲著痺 以冬遇此爲骨痺 以春遇此爲筋痺 以夏遇此爲脈痺 以至陰(六月也)遇此爲肌痺 以秋遇此爲皮痺.

夫古之所謂痛痺者 卽今之痛風也 諸方書又謂之白虎歷節風 以其走痛于四肢骨節 如虎咬之狀 而以其名之耳.

35. 「經濟要訣」第三十五章. 痿症

經曰 痿症有五色, 肺焦葉熱者爲痿癰 心熱氣燥者爲脈痿 肝氣熱者爲筋痿 脾氣熱者爲肉痿 腎氣熱者爲骨痿 腰膝痛者髓枯. 以此法補其榮火而通其滯土 調其虛實而知其逆順, 此則筋脈自平 骨肉無憂, 補瀉者詳之.

痿癰 肺熱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脈痿 心熱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筋痿 肝熱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肉痿 脾熱 少府 太衝補大敦 隱白瀉

骨痿 腎熱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痿症有五色”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痿症有五色”이라 했으나, 「要覽」·「秘訣」에서는 “痿症有五”라 하여 ‘色’을 누락시켰다. 「辭源」에 의하면 ‘色’은 ‘顏色’ ‘氣色·神態’ ‘美色’ ‘景象·景色’ ‘作色·變色’ ‘種類’ 등의 뜻으로 쓰인다고 했고¹³⁰⁾, 「東亞漢韓大辭典」에 의하면 ‘色’은 ‘빛’ ‘종료’ ‘모양’ ‘상태’ 등이라 했으므로¹³¹⁾, ‘色’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痿症有五色”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肺焦葉熱者爲痿癰”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肺焦葉熱者爲痿癰”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肺焦葉熱者爲癰痿”라 하여 ‘痿癰’을 ‘癰痿’라 했고, 「鍼經」에서는 “肺焦氣熱者爲痿癰”이라 하여 ‘葉’을 ‘氣’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肺焦葉熱者爲痿”라 하여 ‘焦’을 ‘焦’라 하면서 ‘癰’을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肺熱葉焦者爲痿癰”이라 하여 ‘肺焦葉熱’을 ‘肺熱葉焦’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痿證」에서 “內經曰 肺熱葉焦 五臟因而受之 發爲痿癰”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뒤의 ‘心熱氣燥者爲脈痿’의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痿癰’을 ‘癰痿’ ‘葉’을 ‘氣’ ‘焦’을 ‘焦’라 한 것과 ‘癰’을 누락시킨 것 등은 다 誤寫가 분명하고, ‘肺焦葉熱’을 ‘肺熱葉焦’라 한 것은 적당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肺熱葉焦者爲痿癰”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肝氣熱者爲筋痿 脾氣熱者爲肉痿”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肝氣熱者爲筋痿 脾氣熱者爲肉痿”라 했으나,

130) 商務印書館 編輯部, 辭源 第三分冊,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4, p. 2610.

131)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야 漢韓大辭典, 서울, (주)동아출판사, 1994, p. 1510.

유독 『鍼經』만 “肝氣熱者爲肉痿”라 하여 ‘爲筋痿 脾氣熱者’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痿證』에서 “肝氣熱爲筋痿 故筋急而攣, 脾氣熱爲肉痿 則胃乾而渴 肌肉不仁.”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爲筋痿 脾氣熱者’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肝氣熱者爲筋痿 脾氣熱者爲肉痿”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腰膝痛者髓枯” : 『要覽』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에서는 “腰膝痛 髓以枯”라 하여 ‘腑’을 “膝”이라 하면서 ‘者’를 누락 ‘以’를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腰膝痛者爲髓枯”라 하여 ‘腑’을 “膝”이라 하면서 ‘爲’를 추가했고, 『資料』·『秘訣』에서는 “腰膝痛者髓枯”라 하여 ‘腑’을 “膝”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腰脊痛者髓枯”라 하여 ‘腑’을 “脊”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痿證』에서 “腎氣熱爲骨痿 則腰膝不舉 骨枯而髓減”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肝氣熱者爲筋痿’ ‘脾氣熱者爲肉痿’ ‘腎氣熱者爲骨痿’ 등과 七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者’를 누락시킨 것 ‘以’·‘爲’를 추가한 것 ‘腑’을 “脊”이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고, ‘腑’을 “膝”이라 한 것 ‘爲’를 추가한 것 등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鍼灸』에서 “腰膝痛者爲髓枯”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以此法補其榮火而通其俞土” : 『要覽』에서는 “以此故曰法補其榮火而通其俞土”라 하여 ‘故曰’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此曰法補其榮火而通其俞土”라 하여 ‘以’를 누락 ‘曰’을 추가하면서 ‘榮火’를 “榮火”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以此法曰補其榮火而通其俞土”라 하여 ‘曰’을 추가하면서 ‘榮火’를 “榮火”라 했고, 『資料』에서는 “以此曰法補其榮火而通其俞土”라 하여 ‘曰’을 추가하면서 ‘榮火’를 “榮火” ‘俞土’를 “俞土”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以此曰法補其榮火而道其俞土”라 하여 ‘曰’을 추가하면서 ‘榮火’를 “榮火” ‘通’을 “道”라 했고, 『秘訣』에서는 “以此補其榮火而通其俞土”라 하여 ‘法’을 누락시키면서 ‘榮火’를 “榮火”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痿證』에서 “又曰治法 各補其榮而通其俞”라 한 것을 인용하여 다음의 “調其虛實而知其逆順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故曰’을 추가한 것과 ‘以’ ‘法’을 누락시킨 것 및 ‘榮火’를 “榮火” ‘俞土’를 “俞土” ‘通’을 “道”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고, ‘曰’을 추가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以此法曰補其榮火而通其俞土”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調其虛實而知其逆順”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調其虛實而知其逆順”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調其虛實而和其逆順”이라 하여 ‘知’를 “和”라 했고, 『察病』에서는 “調虛實而知其逆順”이라 하여 ‘其’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痿證』에서 “調其虛實 和其逆順 筋脈骨肉 各以其時受月 則病已矣”라 한 것을 인용하여 위의 “補其榮火而通其俞土”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知’를 “和”라 한 것은 적합하고, ‘其’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鍼經』에서 “調其虛實而和其逆順”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補瀉者詳之”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補瀉者詳之”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補瀉者詳知”라 하여 ‘之’를 “知”라 했고, 『鍼灸』·『秘訣』에서는 “補瀉詳之”라 하여 ‘者’를 누락시켰다. 이것은 “筋脈自平” “骨肉無憂” 등과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鍼灸』·『秘訣』에서 “補瀉詳之”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肉痿 脾熱 少府 太衝補 大敦 隱白瀉” : 오직 『要覽』만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肉痿 脾熱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라 하여 ‘太衝’을 “大都”라 했다. 만약 “太衝補”라 한 것을 따르다면 “肉痿 脾熱”이라 한 것에 어긋나고, 또한 “痿痺 脾熱”은 肺正格 “筋痿 心熱”은 心正格 “筋痿 肝熱”은 肝正格 “骨痿 腎熱”은 腎正格 등을 사용했으므로, “肉痿 脾熱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

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五章 痿症'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痿症有五色, 肺熱葉焦者爲痿痺 心熱氣燥者爲脈痿 肝氣熱者爲筋痿 脾氣熱者爲肉痿 腎氣熱者爲骨痿 腰膝痛者爲髓枯. 以此法日補其榮火而通其俞土 調其虛實而和其逆順, 此則筋脈自平 骨肉無憂, 補瀉詳之.

痿痺 肺熱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脈痿 心熱 大敦 少衝補陰谷 少海瀉
 筋痿 肝熱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肉痿 脾熱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骨痿 腎熱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35-1. 醫學正傳痿證(132)

內經曰 肺熱葉焦 五臟因而受之 發爲痿痺 心氣熱爲脈痿 則經縱而不任地 肝氣熱爲筋痿 故筋急而攣 脾氣熱爲肉痿 則胃乾而渴 肌肉不仁 腎氣熱爲骨痿 則腰膝不舉 骨枯而髓減 又曰治法 各補其榮而通其腧 調其虛實 和其逆順 筋脈骨肉 各以其時受月 則病已矣.

36. 「經濟要訣」第三十六章. 耳病

內經曰 腎者 作強之官 技巧之出, 是以耳者 腎之外候. 北水之一陽 天一水 南火之二陰 地二火, 此水補火瀉 而以寧其本, 抑官制邪 而以平其末.

耳聾 經渠 復溜補支溝 陽輔瀉

耳鳴 商陽 通谷補太白 太谿瀉

“技巧之出”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技巧之出”이라 했으나, 「鍼經」·「鍼灸」에서는 “技巧之出也”라 하

132) 虞博, 醫學正傳 卷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218.

여 '也'를 추가했다. 이것은 '作強之官'과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고 또한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므로, '也'를 추가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是以”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以”라 했으니, 『鍼經』·『鍼灸』에서는 “是故”라 하여 ‘以’를 “故”라 했다. 이것은 “是以”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北水之一陽 天一水 南火之二陰 地二火”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北水之一陽 天一水 南火之二陰 地二火”라 했으니, 『要覽』·『資料』에서는 “北水之一陽 南火之二陰”이라 하여 ‘天一水’ ‘地二火’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耳病』에서 “夫腎之爲臟 水臟也. 天一生水 故有生之初 先生二腎而一陰藏焉. 而又有相火存乎命門之中也. 每挾君火之勢 而侮所不勝. 經所謂一水不能勝二火是矣. 治法 宜瀉南方之火 補北方之水 無有不安者焉.”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天一水’ ‘地二火’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北水之一陽 天一水 南火之二陰 地二火”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此水補火瀉” “抑官制邪” : 『要覽』·『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鍼灸』에서는 “此水補而瀉火” “抑官制邪”라 하여 ‘而’를 추가하면서 ‘火瀉’를 “瀉火”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此補水瀉火” “抑官制邪”라 하여 ‘水補’를 “補水” ‘火瀉’를 “瀉火”라 했고, 『秘訣』에서는 “此北水補而 南火瀉” “抑官制邪”라 하여 ‘北’ ‘而’ ‘南’ 등을 추가했다. ‘水補火瀉’와 ‘抑官制邪’는 匹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水補火瀉”라 한 것을 따른다면 “官抑邪補”라 해야 하고 “抑官制邪”라 한 것을 따른다면 “補水瀉火”라 해야 하니, ‘而’ ‘北’ ‘南’을 추가한 것과 ‘水補’를 그대로 둔 채 ‘火瀉’를 “瀉火”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고, ‘水補’를 “補水” ‘火瀉’를 “瀉火”라 한 것은 적당하다. 그러므로 “此補水瀉火” “抑官制邪”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而以寧其本” “而以平其末” : 오직 『經濟要訣』만 “而以寧其本” “而以平其末”이라 했고, 『要覽』·『鍼經』·『鍼灸』·『資料』·『秘訣』 등에서는 “以寧其本” “以平其末”이라 하여 ‘而’를 다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以寧其本” “以平其末”이라 하여 ‘而’를 다 누락시키면서 ‘末’을 “本”이라 했다. ‘以寧其本’과 ‘以平其末’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末’을 “本”이라 한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대부분의 필사본에서 ‘而’를 다 누락시킨 것은 적당하다. 그러므로 “以寧其本” “以平其末”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六章 耳病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腎者 作強之官 技巧之出, 是以耳者 腎之外候. 北水之一陽 天一水 南火之二陰 地二火. 此補水瀉火 以寧其本, 抑官制邪 以平其末.

耳聾 經渠 復溜補支溝 陽輔瀉

耳鳴 商陽 通谷補太白 太谿瀉

36-1. 醫學正傳耳病¹³³⁾

133) 虞搏, 『醫學正傳 耳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 227~228.

內經曰 腎者 作強之官 技巧出焉 又曰 耳爲腎之外候 一曰 腎通竅于耳 一曰 心通竅于耳。

夫腎之爲臟 水臟也 天一生水 故有生之初 先生二腎而一陰藏焉 而又有相火存乎命門之中也 每挾君火之勢而侮所不勝 經所謂一水不能勝二火是矣 治法 宜瀉南方之火 補北方之水 無有不安者焉。

37. 「經濟要訣」第三十七章. 目病

東垣曰 目者 按陰陽之應象論 諸脈而皆屬目, 遇金克 潤五臟 常明, 目得血而能視 六腑自和, 是以五行俱會 六腑回同, 瞳子屬水筋之精 青瞳屬木肝之氣 白眚屬肺金之原 內眚屬心火之本 外眚屬胃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 能近視而遠暗 遠視而近昧 陽虛分明視其部分, 陰陽盛衰可知 不失一驗.

‘目者 按陰陽之應象論’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目者 按陰陽之應象論’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目者 按陰陽之應象論’이라 하여 ‘皆’를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目者 按陰陽之應象論’이라 하여 ‘象’을 ‘像’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目病’에서 ‘東垣曰 按陰陽應象論云’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皆’를 추가한 것 ‘象’을 ‘像’이라 한 것 등은 誤寫가 확실하고, 또한 위의 ‘諸脈而皆屬目’과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之’가 추가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目者 按陰陽應象論’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諸脈而皆屬目, 遇金克 潤五臟 常明’ : ‘要覽’에서는 ‘諸脈而屬目 遇金克而能潤五臟 常明’이라 하여 ‘皆’를 누락 ‘而能’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諸脈而皆屬水 遇金克 潤五臟 常明’이라 하여 ‘目’을 ‘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諸脈皆屬五臟’이라 하여 ‘而’ ‘目 遇金克 潤’ ‘常明’ 등을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諸脈皆屬木 遇金克 潤五臟 常明’이라 하여 ‘而’를 누락시키면서 ‘目’을 ‘木’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諸脈而屬水 皆遇金而克 潤五臟 常明’이라 하여 ‘皆’를 누락시키면서 ‘目’을 ‘水’ ‘遇金克’을 ‘皆遇金而克’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諸脈皆屬木 遇金而克 潤五臟 常明’이라 하여 ‘而’를 누락시키면서 ‘目’을 ‘木’ ‘遇金克’을 ‘遇金而克’이라 했다. ‘諸脈而皆屬目’은 舍巖이 ‘醫學正傳·目病’에서 ‘東垣曰 按陰陽應象論云 諸脈者皆屬於目’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앞의 ‘按陰陽應象論’과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而’ ‘皆’를 누락시킨 것과 ‘目’을 ‘木’ ‘水’이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리고 ‘遇金克 潤五臟 常明’이라 한 것에서 ‘而能’을 추가한 것과 ‘而’ ‘目 遇金克 潤’ ‘常明’을 누락시킨 것 및 ‘遇金克’을 ‘皆遇金而克’ ‘遇金而克’이라 한 것 등도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諸脈而皆屬目, 遇金克 潤五臟 常明’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目得血而能視 六腑自和’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目得血而能視 六腑自和’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自得血而能視 六腑自和’라 하여 ‘目’을 ‘自’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目病’에서 ‘又曰 目得血而能視 五臟六腑之精氣 皆上注于目而爲之睛’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目’을 ‘自’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目得血而能視 六腑自和’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是以五行俱會 六腑回同’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以五行俱會 六腑回同’이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是以五行俱會 六回同’이라 하여 ‘會’를 ‘回’라 하면서 ‘腑’를 누락시켰고, ‘察病’에서는 ‘是以五行俱會 六腑回同’라 하여 ‘回同’을 ‘同回’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是故五行俱會 六腑同會’라 하여 ‘是以’를 ‘是故’ ‘回同’을

‘同會’라 했다. ‘五行俱會’와 ‘六腑同回’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會’를 ‘回’ ‘回同’을 ‘同會’라 한 것과 ‘腑’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回同’을 ‘同回’라 한 것은 적합하다. 유독 『秘訣』만 ‘是以’를 ‘是故’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察病』에서 ‘是以五行俱會 六腑同回’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瞳子屬水筋之精 青瞳屬木肝之氣 白眥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胃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 : 『要覽』에서는 ‘瞳子屬水筋之精 青瞳屬木肝之氣 白眥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脾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라 하여 ‘肺’ ‘心’을 누락시키면서 ‘胃土之’를 ‘脾土’라 했고, 『鍼經』에서는 ‘瞳子屬腎水之精 青瞳屬肝木之氣 白眥屬肺金之元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脾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라 하여 ‘水筋’을 ‘腎水’ ‘木肝’을 ‘肝木’ ‘原’을 ‘元’ ‘胃土’를 ‘脾土’ 등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瞳子屬水筋之精 青瞳屬木肝之氣 白眥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脾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라 하여 ‘胃土’를 ‘脾土’라 했고, 『資料』에서는 ‘瞳子屬水筋之精 青瞳屬木肝之氣 白眥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胃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라 하여 ‘胃土之’를 ‘胃土’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瞳子屬水筋之精 青瞳屬木肝之氣 白眥屬三焦之開閉’라 하여 ‘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胃土之所經 眼窠’를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瞳子屬腎水之精 青瞳屬肝木之氣 白眥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脾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라 하여 ‘水筋’을 ‘腎水’ ‘木肝’을 ‘肝木’ ‘胃土’를 ‘脾土’ 등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目病』에서 ‘睛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目窠之總絡 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則爲約束’이라 한 것을 참고하여 ‘瞳子屬水筋之精’ ‘青瞳屬木肝之氣’ ‘白眥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등은 七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고 ‘外眥屬胃土之所經’과 ‘眼窠屬三焦之開閉’도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肺’ ‘心’ ‘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胃土之所經 眼窠’ 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原’을 ‘元’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며, ‘水筋’을 ‘腎水’ ‘木肝’을 ‘肝木’ ‘胃土’를 ‘脾土’ 등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瞳子屬腎水之精 青瞳屬肝木之氣 白眥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脾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能近視而遠暗 遠視而近昧’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能近視而遠暗 遠視而近昧’라 했으나, 『鍼經』·『資料』에서는 ‘能近視而遠暗 遠視而近暗’이라 하여 ‘昧’를 ‘暗’이라 했다. ‘能近視而遠暗’과 ‘遠視而近昧’는 對句를 이루게 하고 ‘暗’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昧’라 한 것으로 보이며, ‘昧’를 ‘暗’이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能近視而遠暗 遠視而近昧’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陽虛分明視其部分’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陽虛分明視其部分’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陰虛分明視其部分’라 하여 ‘陽虛’를 ‘陰虛’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目病』에서 ‘丹溪活套云 東垣謂 目能遠視而不能近視 火盛而水虧也 法當補腎 目能近視而不能遠視 有水而無火也 法當補心’이라 한 것을 인용했고, 또한 뒤의 ‘分明視其部分’과 ‘陰陽盛衰可知’는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遠視而近昧’는 ‘火盛而水虧’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陰虛’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近視而遠暗’은 ‘有水而無火’에 해당하여 ‘陽虛’에 속하므로 ‘近視而遠暗’ 다음에 ‘陽虛’라 한 것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七章 目病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東垣曰 目者 按陰陽應象論 諸脈而皆屬目、遇金克 潤五臟 常明、目得血而能視 六腑自和、是以五行俱會 六腑同回、瞳子屬腎水之精 青瞳屬肝木之氣 白眥屬肺金之原 內眥屬心火之本 外眥屬脾土之所經 眼窠屬三焦之開閉、能近視而遠暗 陽虛 遠視而近味 陰虛、分明視其部分 陰陽盛衰可知 不失一驗。

青翳 屬肝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瞳子濁 屬腎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白眥膜 屬肺 太白 太谿補大都 魚際瀉

外眥病 屬胃 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內眥病 屬心大敦 少衝 復溜補太白 太谿瀉

遠視不明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瞳子突出 陰谷補然谷瀉鎮靜針

雀目陰谷 曲泉補少府 然谷瀉

釘翳 僕參 百會補神道旁一寸五分 從陽引陰

“青翳屬肝” “瞳子濁屬腎” “白眥膜屬肺” “外眥病屬胃” “內眥病屬心” “遠視不明” “瞳子突出” : 「要覽」에서는 “青翳屬肝” “瞳子屬腎” “白眥膜屬肺” “外眥病屬胃” “內眥病屬心” “遠視不明” “瞳子突出”이라 하여 ‘濁’을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青翳屬肝” “瞳子屬腎經” “白眥膜屬肺” “外眥屬胃” “內眥屬心” “遠視不明” “瞳子突出”이라 하여 ‘濁’ ‘病’을 누락시키면서 ‘經’을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青翳屬肝” “瞳子屬腎” “白眥膜屬肺” “外眥病屬胃” “內眥病屬心” “遠視不明屬肝” “瞳子突出”이라 하여 ‘濁’을 누락시키면서 ‘屬肝’을 추가했고, 「資料」·「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며, 「秘訣」에서는 “青翳屬肝” “瞳子濁屬腎” “白眥膜屬肺” “外眥屬胃” “內眥病屬心” “遠視不明” “瞳子突出”라 하여 ‘白眥’를 ‘白翳’라 하면서 外眥 뒤의 ‘病’을 누락시켰다. 이상은 들쭉날쭉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부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青翳屬肝” “瞳子屬腎” “白眥屬肺” “外眥屬胃” “內眥屬心” “遠視不明” “瞳子突出” 등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太白 太谿補 大都 魚際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太白 太谿補 大都 魚際瀉”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太白 太谿補 少府 魚際瀉”라 하여 ‘大都’를 ‘少府’라 했고, 유독 「察病」만 “太白 太谿補 大敦 魚際瀉”라 하여 ‘大都’를 ‘大敦’이라 했다. ‘少府瀉’라 한 것을 따른다면 肺正格에 해당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大都瀉’가 肺正格 C變形에 속함(134)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肺正格에 맞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大敦

134) 金達鎬, 舍岩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33~39, 74~75.

瀉"라 한 것을 따른다면 脾正格 혹은 腎勝格에 해당하여 "白晝屬肺"라 한 것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太白 太淵補 大都 魚際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陽谷 解谿補 臨泣 陷谷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陽谷 解谿補 臨泣 陷谷瀉"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陽谷 陽谿補 臨泣 陷谷瀉"라 하여 "解谿"를 "陽谿"라 했다. 만약 "陽谿補"라 한 것을 따른다면 大腸勝格에 해당하여 "外晝屬胃"라 한 것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陽谷 解谿補 臨泣 陷谷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大敦 少衝 復溜補 太白 太淵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大敦 少衝 復溜補 太白 太淵瀉"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大敦 少衝 復溜補 太白 太谿瀉"라 했다. "太谿瀉"라 한 것을 따른다면 腎正格에 해당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白晝屬肺 太白 太淵補 大都 魚際瀉와 마찬가지로 '太淵瀉'가 腎正格 C變形에 속함¹³⁵⁾을 알지 못하여 역지로 腎正格에 맞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大敦 少衝 復溜補 太白 太淵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陰谷 曲泉補 少府 然谷瀉"라 하여 "經渠 中封瀉"를 "少府 然谷瀉"라 했고, 「察病」에서는 전부 누락시켰다. 「察病」에서 전부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鍼經」만 "經渠 中封瀉"를 "少府 然谷瀉"라 한 것은 다음의 "雀目 陰谷 曲泉補 少府 然谷瀉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陰谷補 然谷瀉 鎮靜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谷補 然谷瀉 鎮靜斜"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天突 然谷補 陰谷瀉 三里斜"라 한 것과 「察病」만 "鎮靜斜"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陰谷補 然谷瀉 鎮靜斜"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雀目" "釘翳" : 다른 筆寫本에서 모두 "雀目" "釘翳"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雀眼" "釘翳"라 하여 "雀目"을 "雀眼"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雀目 肝虛" "釘翳"라 하여 "肝虛" "翳"를 추가했으며, 「察病」에서는 "釘翳"라 하여 "雀目"을 누락시켰다. 위에서 "青翳風肝" "瞳子屬腎" "白晝屬肺" "外晝屬胃" "內晝屬心" "遠視不明" "瞳子突出" 등이 對句를 이룬 것처럼 "雀目"과 "釘翳"도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肝虛" "翳"를 추가한 것과 "雀目"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雀目"을 "雀眼"이라 한 것도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雀目" "釘翳"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陰谷 曲泉補 少府 然谷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陰谷 曲泉補 少府 然谷瀉"라 했으나, 유독 「鍼灸」만 "陰谷 曲泉補 少府 魚際瀉"라 하여 "然谷"을 "魚際"라 했고, 「察病」에서는 전부 누락시켰다. 「東醫實錄·外形篇·眼」에서 "雀目"은 "因肝虛血少 時時花起 或時頭疼"¹³⁶⁾라 했는데, "少府 魚際瀉"는 肺正格에 해당하여 이에 어긋나고, 전부 누락시킨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陰谷 曲泉補 少府 然谷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僕參 百會補 神道旁一寸五分 從陽引陰"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僕參 百會補 神道旁一寸五分 從陽引陰"이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僕參 百會補 至陰瀉 神道兩旁一寸五分 從陽引陰"이라 하여 "至陰瀉" "兩"을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僕參 百會補 心俞從陽 至陰瀉"라 하여 "心俞從陽" "至陰瀉"를 추가하면서 "神道旁一寸五分 從陽引陰"을 누락시켰다. "至陰瀉" "心俞從陽" 등을 추가한 것과 "神道旁一寸五分 從陽引陰"을 누락시

135) 上揭書, pp. 33~39, 74~75.

136) 許浚, 東醫實錄·外形篇·眼, 서울, 南山堂, 1976, p. 217.

킨 것은 誤寫로 생각되고, '兩'을 추가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神道兩旁一寸五分'은 膀胱經의 腧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僕參 百會補 神道兩旁一寸五分 從陽引陰"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近視不明 經渠 復溜補 太白 太谿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없었으나, 유독 「秘訣」만 추가했다. 이것은 위의 提綱에서 "能近視而遠暗 陽虛 遠視而近昧 陰虛"라 한 것으로 보아 추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고증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原理를 무시한 채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七章 目病'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青翳屬肝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瞳子屬腎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白翳屬肺 太白 太淵補大都 魚際瀉
 外翳屬胃 陽谷 解谿補臨泣 陷谷瀉
 內翳屬心大敦 少衝 復溜補太白 太淵瀉
 遠視不明 陰谷 曲泉補經渠 中封瀉
 (近視不明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瞳子突出 陰谷補 然谷瀉鎮靜斜
 雀目 陰谷 曲泉補少府 然谷瀉
 釘翳 僕參 百會補神道兩旁一寸五分 從陽引陰

37-1. 醫學正傳目病¹³⁷⁾

東垣曰 按陰陽應象論云 諸脈者皆屬於目 又曰 目得血而能視 五臟六腑之精氣 皆上注于目而爲之睛 睛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目窠之總絡 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則爲約束.

丹溪活套云 東垣謂 目能遠視而不能近視 火盛而水虧也 法當補腎 目能近視而不能遠視 有水而無火也 法當補心.

38. 「經濟要訣」第三十八章. 口病

內經曰 口者 中央黃色也, 入通於脾 開竅於口. 是以脾傷爲重舌 七情煩擾, 胃敗爲糜爛 五味過傷. 脾熱口甘 肺熱口辛 腎熱口酸 胃熱淡知. 上脣屬胃 下脣屬脾.

137) 庚梅, 醫學正傳 目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 229~230, 238.

口中生瘡液門 中渚補勞宮 承漿瀉

腎叻不收頰車 三里補

重舌陰谷 曲泉補 間使瀉

上脘 膈胃 三里 中脘補解溪 上廉瀉

下脘 膈臑章門補少府瀉 太白斜

裂舌 液門補 中渚瀉

“是以”：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是以”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是故”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脾傷爲重舌” “胃敗爲糜爛”：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脾傷爲重舌” “胃敗爲糜爛”이라 했으나, 『資料』에서는 “脾傷爲中舌” “胃敗爲糜爛”이라 하여 “重”을 “中”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脾傷爲重舌” “胃散爲糜爛”이라 하여 “敗”를 “散”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脾傷爲重舌” “胃敗爲糜爛”이라 하여 “糜”를 “糜”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口病』에서 “夫口之爲病 或爲重舌木舌 或爲糜爛生瘡”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重”을 “中” “糜”를 “糜”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고, “敗”를 “散”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성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脾傷爲重舌” “胃敗爲糜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七情煩擾” “五味過傷”： 『要覽』에서는 “七情煩擾而” “五味過傷而”라 하여 “擾”를 “擾” “遇”를 “過”라 하면서 각기 “而”를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七情煩擾” “五味過傷”이라 하여 “擾”를 “擾”라 했으며, 『鍼灸』·『察病』에서는 “七情煩擾” “五味過傷”이라 하여 “擾”를 “擾” “遇”를 “過”라 했고, 『資料』에서는 “煩擾” “五味過傷”이라 하여 “七情”을 누락시키면서 “遇”를 “過”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七情煩擾” “五味過傷”이라 하여 “遇”를 “過”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口病』에서 “經曰陰之五宮 本在五味 陰之五宮 傷在五味是也”라 한 것을 인용하여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擾”를 “擾”라 한 것 “而”를 추가한 것 “七情”을 누락시킨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고, “遇”를 “過”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七情煩擾” “五味過傷”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脾熱口甘 肺熱口辛 腎熱口酸 胃熱淡知”： 『要覽』에서는 “脾熱爲口甘 肺熱口辛 腎熱口酸 淡知胃熱”이라 하여 “爲”를 추가하면서 “酸”을 “酸” “胃熱淡知”를 “淡知胃熱”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脾熱口疳 肺熱口辛 腎熱口酸 淡知胃熱”이라 하여 “甘”을 “疳” “胃熱淡知”를 “淡知胃熱”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脾熱口疳 肺熱口辛 腎熱口酸 淡則胃熱”이라 하여 “甘”을 “疳” “酸”을 “酸” “胃熱淡知”를 “淡則胃熱”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脾熱口甘 肺熱口醒 腎熱口酸淡”이라 하여 “辛”을 “醒” “酸”을 “酸”이라 하면서 “胃熱” “知”를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脾熱口甘 肺熱口辛酸 腎熱口酸 淡知胃熱”이라 하여 “口辛”을 “口辛酸” “酸”을 “酸” “胃熱淡知”를 “淡知胃熱”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脾熱口甘 肺熱口辛 腎熱口酸 淡知胃熱”이라 하여 “酸”을 “酸” “胃熱淡知”를 “淡知胃熱”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口病』에서 “肝熱則口酸 心熱則口苦 脾熱則口甘 肺熱則口辛 腎熱則口酸 有口淡者 知胃熱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爲”를 추가한 것파 “胃熱” “知”를 누락시킨 것 및 “甘”을 “疳” “辛”을 “醒” “口辛”을 “口辛酸” “胃熱淡知”를 “淡則胃熱”이라 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고, “酸”을 “酸”·“鹹”이라 한 것은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적합하지만 『醫學正傳』의 原文에 따라 “酸”을 “鹹”이라 해야 하며, “胃熱淡知”를 “淡知胃熱”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秘訣』에서 “脾熱口甘 肺熱口辛 腎熱口酸 淡

知胃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上脘屬胃 下脘屬腸" : 「要覽」·「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으나, 「鍼經」에서는 "上脘屬脾 下脘屬腸"이라 하여 '胃'를 '脾'라 했고, 「鍼灸」·「資料」에서는 "上脘屬胃 下脘屬臟"이라 하여 '腸'을 '臟'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上脘屬胃 下脘屬大腸"이라 하여 '腸'을 '大腸'이라 했다. '上脘'은 大腸經이 循行하고 '下脘'은 胃經이 循行하며, 아래의 辨證論治에서 "上脘……三里(大腸正格)……解溪瀉(大腸正格 C變形)……"¹³⁸; "下脘……章門補(脾經의 募穴) 少府瀉(脾經格 A變形) 太白斜(脾經의 原穴)"¹³⁹라 했으므로, "上脘屬腸 下脘屬臟(脾)"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上脘 屬胃" "下脘 屬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上脘 屬胃" "下脘 屬臟"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上脘 屬脾" "下脘 屬胃"라 하여 '胃'를 '脾' '臟'을 '胃'라 했고, 「察病」에서는 "上脘 屬胃" "下脘 屬腸"이라 하여 '臟'을 '腸'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上脘 屬胃" "下脘 屬大腸"이라 하여 '臟'을 '大腸'이라 했다. 이것은 위의 마찬가지로 "上脘屬腸 下脘屬臟(脾)"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章門補 少府瀉 太白斜"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章門補 少府瀉 太白斜"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章門 太白補 少商瀉"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原理를 무시한 채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八章 口病'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內經曰 口者 中央黃色也. 入通於脾 開竅於口. 是以脾傷爲重舌 七情煩擾. 胃敗爲糜爛 五味過傷. 脾熱口甘 肺熱口辛 腎熱口鹹 痰知胃熱. 上脘屬腸 下脘屬臟(脾).

口中生瘡液門 中渚補勞宮 承漿瀉

唇吻不收頰車 三里補

重舌陰谷 曲泉補 間使瀉

上脘 屬腸 三里 中脘補解谿 上廉瀉

下脘 屬臟章門補少府瀉 太白斜

裂舌 液門補 中渚瀉

38-1. 醫學正傳口病¹⁴⁰⁾

內經曰 中央黃色 入通於脾 開竅于口 藏精于脾 故病在舌. 夫口之爲病 或爲重舌木舌 或爲糜爛生瘡.

經曰陰之五宮 本在五味 陰之五宮 傷在五味是也 是以肝熱則口酸 心熱則口苦 脾熱則口甘 肺熱則口辛 腎熱

138) 金達鎬,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75~76.

139) 上揭書, pp. 33~39, 75~76.

140) 虞博,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237.

則口鹹有口淡者 知胃熱也.

生瘡潰爛 則傷寒孤感之證 上脣生瘡 蟲食其臟 下脣生瘡 蟲食其肛.

38-2. 許任鍼灸經驗方口部(141)

上齒上顎斷及脣屬胃

下齒下顎及脣屬大腸

口中生瘡.....承漿 勞宮

脣吻不收.....合谷 下三皇

重舌 舌裂 舌強(舌者 心之竅也).....神門 隱白 三陰交.

39. 「經濟要訣」第三十九章. 喉病

經曰 喉胃也, 胃土過者腎傷 自動相火, 腎水傷則心燥 正怒君火, 調三焦之隱逸 治兩火之脚患. 從陰陽升降 引經絡補瀉, 小見不失 廣聞何慮?

喉熱 胃傷 陽谷補陷谷 液門 中渚瀉

喉痺 腎傷 經渠補崑崙 液門 中渚瀉

單蛾 肝傷 陰谷補商陽 液門 中渚瀉

雙蛾 心傷大敦 液門補 陽池 關衝瀉

“胃土過者”：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胃土過者”라 했으나, 「鍼經」·「資料」에서는 “胃土遇者”라 하여 ‘過’를 “遇”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胃土過者”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腎水傷則心燥 正怒君火”：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腎水傷則心燥 正怒君火”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腎水傷則心燥 止怒君火”라 하여 ‘正’을 “止”라 했고, 「鍼灸」에서는 “腎水傷則心燥 正怒發君火”라 하여 ‘發’을 추가했으며, 「察病」에서는 “腎傷則心燥 正怒君火”라 하여 ‘水’를 누락시켰다. 이것은 앞의 ‘胃土過者腎傷 自動相火’와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發’을 추가한 것과 ‘水’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확실하고, ‘正’을 “止”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腎水傷則心燥 正怒君火”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調三焦之隱逸 治兩火之脚患”： 「要覽」·「鍼經」·「資料」·「察病」·「秘訣」 등에서는 “調三焦之隱逸 治兩火之却患”이라 하여 ‘脚’을 “却”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三焦之隱逸 治兩火之却患”이라 하여 ‘調’를 누락시키면서 ‘脚’을 “却”이라 했으며, ‘調三焦之隱逸’과 ‘治兩火之却患’은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調’

141) 許任, 韓國醫學大系 第38卷 許任鍼灸經驗方, 서울, 醫江出版社, 1988, pp. 521-522.

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脚'을 '却'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調三焦之隱逸 治兩火之却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從陰陽升降 引經絡補瀉』: 오직 『經濟要訣』만 『從陰陽升降 引經絡補瀉』라 했고, 『資料』에서는 『從陰陽於升降 引經絡而補瀉』라 하여 '於' '而'를 추가했으며, 나머지 筆寫本에서는 모두 『從陰陽之升降 引經絡而補瀉』라 하여 '之' '而'를 추가했다. 이것은 『調三焦之隱逸 治兩火之却患』과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從陰陽之升降 引經絡而補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小見不失 廣聞何慮』: 『要覽』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에서는 『不見不失 廣聞何患也』라 하여 '小'를 '不' '慮'를 '患也'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不見不差 廣聞何如』라 하여 '小'를 '不' '失'을 '差' '慮'를 '如'라 했고, 『資料』에서는 『小見不失 廣聞何』라 하여 '慮'를 누락시켰고, 『察病』에서는 『少見不失 廣聞何慮』라 하여 '小'를 '少'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少見不失 廣聞何慮』라 하여 '小'를 '少' '聞'을 '問'이라 했다. '小見不失'과 '廣聞何慮'는 四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慮'를 '患也'라 한 것과 '慮'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小'를 '不' '失'을 '差' '慮'를 '如' '聞'을 '問' 등이라 한 것은 誤寫로 생각되며, '小'를 '少'라 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察病』에서 『少見不失 廣聞何慮』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喉熱 胃傷 陽谷補 陷谷 液門 中渚瀉』: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喉熱 胃傷 陽谷補 陷谷 液門 中渚瀉』라 했으나, 『鍼灸』에서는 『喉熱 胃腎 陽谷補 陷谷 液門 中渚瀉』라 하여 '胃傷'을 '胃腎'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喉熱 胃傷 陽谷 解谿補 液門 中渚瀉』라 하여 『解谿補』를 추가하면서 '陷谷'을 누락시켰다. 아래에서 『腎傷』 『肝傷』 『心傷』 등이라 했으므로 '胃傷'을 '胃腎'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리고 『喉熱 胃傷』에서 『陽谷補(胃正格) 陷谷瀉(胃正格)』라 하여 하나의 穴을 補하고 하나의 穴을 瀉하면서 三焦經의 水榮穴과 木俞穴을 瀉한 것은 아래의 『喉痺 腎傷』 『單蛾 肝傷』과 마찬가지로였으므로, 『解谿補』를 추가하면서 '陷谷'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喉熱 胃傷 陽谷補 陷谷 液門 中渚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三十九章 喉病'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喉胃也, 胃土過者腎傷 自動相火, 腎水傷則心燥 正怒君火, 調三焦之隱逸 治兩火之却患, 從陰陽之升降 引經絡而補瀉, 少見不失 廣聞何慮?

喉熱 胃傷 陽谷補陷谷 液門 中渚瀉

喉痺 腎傷 經渠補崑崙 液門 中渚瀉

單蛾 肝傷 陰谷補商陽 液門 中渚瀉

雙蛾 心傷大敦 液門補 陽池 關衝瀉

39-1. 醫學正傳喉病¹⁴²⁾

內經曰 一陰一陽結 謂之喉痺 王注謂一陰即厥陰 肝與胞絡是也 一陽即少陽 膽與三焦是也 四經皆有相火存焉.

子和曰 膽與三焦導火 治肝與胞絡都無異.

東垣曰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蓋元氣一虛 則相火隨起 而喉痺等暴病作矣.

夫喉之爲會厭者 經謂之吸門是也 其會厭之兩傍腫者 俗謂之雙乳蛾 易治 會厭之一邊腫者 俗謂之單乳蛾 難治 古方通謂之喉痺 皆相火之所衝逆耳.

經曰 一水不能勝二火 又曰 一水不能勝五火 甚言其真水易虧 而相火之易動也.

40. 「經濟要訣」第四十章. 齒痛

經曰 齒者 百病之起 生於本者也. 腎之標 骨之餘也. 胃熱者 上齒痛, 肺火則下齒痛, 風頭痛則牙齒并痛 是也.

上齒痛通谷 內庭補陽谷 解谿瀉

下齒痛陰陵泉 尺澤補三里 絕骨瀉

“經曰 齒者 百病之起 生於本者也. 腎之標 骨之餘也”: 「要覽」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에서는 “經曰 齒者 百病之起 生於本者也. 腎之標 骨之餘也”라 하여 ‘本’을 ‘木’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經曰 百病之起 生於本者也. 齒者 腎之標 骨之餘也”라 하여 ‘齒者’를 ‘腎之標’의 앞에 두었고, 「資料」에서는 “經曰 齒者 百病起 生於本者也. 腎之標 骨之餘也”라 하여 ‘病之’를 ‘痛’이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經曰 齒者 百病之起 生於本者也. 腎之表 骨之餘也”라 하여 ‘標’를 ‘表’라 했고, 「秘訣」에서는 “經曰 齒者 百病之起 故生於本者也. 腎之標 骨之餘也”라 하여 ‘故’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齒病」에서 “內經曰 百病之起 有生於本者 有生於標者. 夫齒者 腎之標 骨之餘也.”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本’을 ‘木’이라 한 것은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가 분명하고, ‘標’를 ‘表’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며, ‘病之’를 ‘痛’이라 한 것과 ‘故’를 추가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리고 「醫學正傳」과 같이 ‘齒者’를 ‘腎之標’의 앞에 두는 것은 적합하다. 그러므로 「鍼灸」에서 “經曰 百病之起 生於本者也. 齒者 腎之標 骨之餘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胃熱者 上齒痛 肺火則下齒痛”: 다른 筆寫本의 提綱과 辨證論治에서는 모두 “胃熱者 上齒痛 肺火則下齒痛” “上齒痛 下齒痛”이라 했으나, 「要覽」·「鍼經」의 提綱에서는 “胃熱者 上齦痛 肺火則下齦痛”이라 하여 ‘齒’를 ‘齦’이라 하면서 辨證論治에서는 “上齒痛” “下齒痛”이라 했다. 그리고 「鍼灸」에서는 “胃熱者 上齒痛 肺火者下齒痛”이라 하여 ‘則’을 ‘者’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胃熱者 上齒痛 肺熱則下齒痛”이라 하여 ‘火’를 ‘熱’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齒病」에서 “足陽明胃之脈貫絡于齒上齦 手陽明大腸之脈貫絡于齒下齦”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齦’을 ‘齒’로 통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提綱에서는 ‘齦’ 辨證論治에서 ‘齒’라 하여

142) 廣摶, 醫學正傳 喉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 239~240.

일관성이 없는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유독 「鍼灸」만 「則」을 「者」라 한 것과 「秘訣」만 「火」를 「熱」이라 한 것도 誤寫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胃熱者 上齒痛 肺火則下齒痛」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頭痛則牙齒并痛 是也」: 「要覽」·「鍼經」·「秘訣」 등에서는 「頭風則齒牙并痛者 是也」라 하여 「風頭痛」을 「頭風」 '牙齒'를 「齒牙」라 하면서 「者」를 추가했고, 「鍼灸」에서는 「頭風則齒牙并痛 是也」라 하여 「風頭痛」을 「頭風」 '牙齒'를 「齒牙」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頭風齒牙并痛者 是也」라 하여 「風頭痛」을 「頭風」 '牙齒'를 「齒牙」라 하면서 「則」을 누락 「者」를 추가했고, 「察病」에서는 「頭風齒牙痛者 是也」라 하여 「風頭痛」을 「頭風」 '牙齒'를 「齒牙」라 하면서 「則」·「并」을 누락 「者」를 추가했다.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頭風」 '齒牙'라 했으나 유독 「經濟要訣」만 「風頭痛」 '牙齒'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고, 「則」·「并」을 누락한 것도 誤寫로 생각되며, 「者」를 추가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頭風則齒牙并痛者 是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上齒痛 通谷 內庭補 陽谷 解谿瀉」: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上齒痛 通谷 內庭補 陽谷 解谿瀉」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上齒痛 臨泣 陷谷補 陽谷 解谿瀉」라 하여 「通谷 內庭補」를 「臨泣 陷谷補」라 한 것은 胃勝格에 해당하므로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通谷補(膀胱經의 水滎穴을 補) 內庭補(胃勝格 B-1變形) 陽谷 解谿瀉(胃勝格 A變形)」¹⁴³⁾로 구성된 처방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上齒痛 通谷 內庭補 陽谷 解谿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風齒痛 三里 曲池補 陽谷 陽谿瀉」: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없었으나, 「察病」·「秘訣」에서는 추가했다. 위의 提綱에서 「頭風則齒牙并痛者 是也」라 한 것으로 보아 추가해야 할 것 같으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고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四十章 齒痛」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百病之起 生於本者也, 齒者 腎之標 骨之餘也. 胃熱者 上齒痛, 肺火則下齒痛, 頭風則齒牙并痛者 是也.

上齒痛通谷 內庭補陽谷 解谿瀉

下齒痛陰陵泉 尺澤補三里 絕骨瀉

(風齒痛 三里 曲池補陽谷 陽谿瀉)

40-1. 醫學正傳齒病¹⁴⁴⁾

內經曰 百病之起 有生於本者 有生於標者 夫齒者 腎之標 骨之餘也 足陽明胃之脈貫絡于齒上齦 手陽明大腸之脈貫絡于齒下齦.

143) 金達鎬, 舍巖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77.

144) 虞搏, 醫學正傳 齒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242.

41. 「經濟要訣」第四十一章. 鼻痛

經曰 鼻者 屬之金方也, 白色入通於肺 寒氣開竅於鼻也. 又曰 肺之爲臟 其位而高 其體脆 其性惡寒. 是故好色者 生瘡, 嗜酒者 準顛 得熱則紅 傷寒多黑, 觸寒者 鼻塞, 胃濕熱者 淵深. 以此臚衄血而勞 傷寒肉壅者失攝.

鼻塞者 肺寒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鼻臚者 胃熱 前谷 內庭補小海 三里瀉

鼻衄者 脾傷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鼻息者 肝傷 少海 曲泉補經渠 中封瀉

鼻痔者 腎傷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鼻壅者 三焦傷 臨泣 中渚補液門 俠谿瀉

鼻涕臨泣 陷谷補解谿 陽谷瀉

“鼻者 屬之金方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鼻者 屬之金方也”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鼻者 屬之西方也”라 하여 ‘金’을 ‘西’라 했는데, 이를 따르더라도 별문제는 없으나, 대부분 “鼻者 屬之金方也”라 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白色入通於肺 寒氣開竅於鼻也”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白色入通於肺 寒氣開竅於鼻也”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白色入痛於肺 寒氣開竅於鼻者也”라 하여 ‘通’을 ‘痛’이라 하면서 ‘者’를 추가했고, 「秘訣」에서는 “白色入通於肺 開竅於鼻也”라 하여 ‘寒氣’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鼻病」에서 “內經曰 西方白色 入通于肺 開竅于鼻. 又曰 鼻者 肺之外候.”라 한 것을 인용하여 ‘白色入通於肺’ ‘寒氣開竅於鼻’를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通’을 ‘痛’이라 한 것은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가 확실하고, ‘者’를 추가한 것과 ‘寒氣’를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白色入通於肺 寒氣開竅於鼻也”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肺之爲臟 其位而高 其體脆 其性惡寒” : 「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要覽」·「鍼灸」에서는 “肺之爲臟 其位高 其體脆 其性惡寒”이라 하여 ‘而’를 누락시켰으며, 「鍼經」에서는 “肺之爲臟 其位高 其體脆 其性惡寒”이라 하여 ‘臟’을 ‘藏’ ‘惡’를 ‘恐’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肺之臟 其位而高 其體脆 其性惡寒”이라 하여 ‘爲’를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肺之爲臟 其位而高 其體脆 其性惡寒惡熱”이라 하여 ‘惡熱’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鼻病」에서 “丹溪曰 肺之爲臟 其位高 其體脆 性惡寒”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肺之爲臟’과 ‘其性惡寒’ ‘其位高’과 ‘其體脆’ 등이 서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而’를 누락시킨 것은 적합하고, ‘惡’를 ‘恐’이라 한 것 ‘爲’를 누락시킨 것 ‘惡熱’을 추가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며, ‘臟’과 ‘藏’은

어는 것을 따르더라도 별문제가 없으나 「醫學正傳」에서 「臟」이라 한 것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要覽」·「鍼灸」에서 「肺之爲臟 其位高 其體脆 其性惡寒」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好色者 生瘡」: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好色者 生瘡」이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好生者 生瘡」이라 하여 「色」을 「生」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好色者 生瘡」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嗜酒者 準髓 得熱愈紅 傷寒多黑」: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嗜酒者 準髓 得熱愈紅 傷寒多黑」이라 했으나, 「要覽」·「鍼經」에서는 「嗜酒者 準髓 得熱愈紅 得寒多黑」이라 하여 「傷」을 「得」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嗜酒者 準髓 得熱愈紅 得寒多黑」이라 하여 「準髓」를 「鼻髓」 「愈」를 「尤」 「傷」을 「得」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鼻病」에서 「丹溪曰……是故好飲熱酒者 始則傷于肺臟, 鬱熱久則見于外 而爲鼻髓準赤之候, 得熱愈紅 得寒則黑, 此謂熱極似水之象 尤則害承乃制也.」라 한 것을 인용하되 「得」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傷寒」이라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傷」을 「得」 「準髓」를 「鼻髓」 「愈」를 「尤」 등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嗜酒者 準髓 得熱愈紅 傷寒多黑」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觸寒者 鼻塞 胃濕熱者 淵深」: 「要覽」·「鍼經」·「鍼灸」 등에서는 「觸風寒者 鼻塞 胃濕熱者 淵深」이라 하여 「風」을 추가했고, 「資料」에서는 「觸風寒者 鼻塞 胃濕者 淵深」이라 하여 「風」을 추가하면서 「熱」을 누락시켰으며, 「察病」에서는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秘訣」에서는 「觸風寒者 鼻塞 胃濕熱者 鼻淵」이라 하여 「風」을 추가하면서 「淵深」을 「鼻淵」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鼻病」에서 「丹溪曰……其或觸冒風寒 始則傷于皮毛 而成鼻塞不通之候 或爲濁涕 或爲流清汁 久而不已 名曰鼻淵 此爲外寒束內熱之證也.」라 한 것을 인용하여 「觸寒者 鼻塞」과 「胃濕熱者 淵深」이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風」을 추가한 것은 적합하고, 「熱」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며, 유독 「秘訣」만 「淵深」을 「鼻淵」이라 한 것도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觸風寒者 鼻塞 胃濕熱者 淵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以此鼻衄血而勞 傷寒肉墜者 失攝」: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以此鼻衄血而勞 傷寒肉墜者 失攝」이라 했으나, 「要覽」·「鍼經」에서는 「以此鼻衄血而勞 傷寒墜者 失攝」이라 하여 「肉」을 누락시켰고, 「資料」에서는 「以此鼻衄血而勞 傷寒內墜者 失攝」이라 하여 「肉」을 「內」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以此鼻衄血而勞 傷寒肉墜者 失攝」이라 하여 「寒」을 「瘕」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鼻病」에서 「原病式曰 肺熱則出涕是也. 又有膽移熱于腦 則爲辛頤鼻淵, 鼻中濁涕 如涌泉下滲而下, 久而不已 則爲鼻蔑·衄血·瘕肉·鼻癰等證.」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以此鼻衄血而勞」와 「傷寒肉墜者 失攝」이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衄」이라는 글자는 없으므로 원래 「醫學正傳」처럼 「鼻蔑」이라 한 것을 후세 사람들이 필사할 때 하나의 글자로 誤認한 것이 분명하니, 여기서 「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以此鼻衄血而勞 傷寒肉墜者 失攝」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鼻塞者」 「鼻衄者」 「鼻衄者」 「鼻息者」 「鼻痔者」 「鼻墜者」 「鼻涕」: 「要覽」에서는 「鼻塞者」 「鼻衄者」 「鼻衄者」 「鼻瘕」 「鼻痔」 「鼻墜」 「鼻涕」라 하여 「鼻息者」를 「鼻瘕」 「鼻痔者」를 「鼻痔」 「鼻墜者」를 「鼻墜」 등이라 했고, 「鍼經」에서는 「鼻塞者」 「鼻衄者」 「鼻衄者」 「鼻息者」 「鼻痔」 「鼻墜」 「鼻涕」라 하여 「鼻痔者」를 「鼻痔」 「鼻墜者」를 「鼻墜」 등이라 했으며, 「鍼灸」에서는 「鼻塞者」 「鼻衄者」 「鼻衄者」 「鼻息者」 「鼻痔者」 「鼻墜者」 「鼻涕」라 하여 「鼻墜者」를 「鼻墜」이라 했고, 「資料」에서는 「鼻塞者」 「鼻衄者」 「鼻衄者」 「鼻息者」 「鼻痔者」 「鼻墜者」 「鼻涕者」라 하여 「鼻涕」를 「鼻涕者」라 했으며, 「察病」에서는 「鼻塞者」 「鼻衄者」 「鼻衄者」 「鼻息」 「鼻痔」 「鼻墜」 「鼻涕」라 하여 「鼻衄者」를 「鼻衄」 「鼻息者」를 「鼻息」 「鼻痔者」를 「鼻痔」 「鼻墜者」를 「鼻墜」 등이라 했고, 「秘訣」에서는 「鼻塞者」 「鼻衄血者」 「鼻衄者」 「鼻瘕者」 「鼻痔者」 「鼻墜」 「鼻涕」라 하여 「鼻衄者」를 「鼻

鼻血者' '鼻息者'를 '鼻疝者' '鼻壅者'를 '鼻壅' 등이라 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鼻'을 전부 '蟻'이라 해야 하고 '鼻息者'를 '鼻疝者'라 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 들쭉날쭉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鼻塞者' '鼻蟻者' '鼻衄者' '鼻疝者' '鼻痔者' '鼻壅者' '鼻滯者'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鼻蟻者 胃熱 前谷 內庭補 小海 三里瀉' : 모든 筆寫本에서는 다 '鼻蟻者'는 "胃熱"이라 하면서 "前谷 內庭補 小海 三里瀉"라 했는데, '前谷補'는 小腸勝格 '內庭補'는 小腸勝格의 C變形¹⁴⁵⁾ '小海瀉'는 小腸勝格 '三里瀉'는 小腸勝格에 해당하므로, '胃熱'을 '小腸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라 하여 脾正格에 합당했으나, 유독 「鍼灸」만 '少府 魚際補 大敦 隱白瀉'라 하여 '大都'를 "魚際"라 했다. '少府 魚際補'는 肺勝格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鼻衄者 脾傷'이라 한 것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少海 曲泉補 經渠 中封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少海 曲泉補 經渠 中封瀉'라 했으나, 「資料」·「秘訣」에서는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라 하여 '少海'를 "陰谷"이라 한 것은 肝正格에 해당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少海補'는 肝正格의 C變形¹⁴⁶⁾에 해당하여 '鼻蟻者 小腸熱 前谷補(小腸勝格) 內庭補(小腸勝格 C變形) 小海 三里瀉(小腸勝格)¹⁴⁷⁾ '鼻壅者 三焦傷 臨泣 中渚補(三焦正格) 液門瀉(三焦正格) 俠谿瀉(三焦正格 C變形)¹⁴⁸⁾라 한 것에서 C變形에 해당하는 穴을 사용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少海 曲泉補 經渠 中封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臨泣 中渚補 液門 俠谿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臨泣 中渚補 液門 俠谿瀉'라 했으나, 유독 「資料」만 '臨泣 中渚補 液門 通谷瀉'라 하여 '俠谿'를 "通谷"이라 한 것은 三焦正格에 해당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俠谿瀉'는 三焦正格의 C變形¹⁴⁹⁾에 해당하여 '鼻蟻者 小腸熱 前谷補(小腸勝格) 內庭補(小腸勝格 C變形) 小海 三里瀉(小腸勝格)¹⁵⁰⁾ '鼻疝者 肝傷 少海補(肝正格 C變形) 曲泉補(肝正格) 經渠 中封瀉(肝正格)¹⁵¹⁾라 한 것에서 C變形에 해당하는 穴을 사용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臨泣 中渚補 液門 俠谿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臨泣 陷谷補 解谿 陽谷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臨泣 陷谷補 解谿 陽谷瀉'라 했으나, 유독 「察病」만 '臨泣 陷谷補 解谿 陽輔瀉'라 하여 '陽谷'을 "陽輔"라 했다. '陽輔瀉'는 膽勝格에 해당하여 '臨泣 陷谷補(胃勝格) 解谿瀉(胃勝格 A變形)¹⁵²⁾라 한 것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臨泣 陷谷補 解谿 陽谷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145) 金達鎬, 舍巖鍼法の 變形에 관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pp. 33~39, 78.

146) 上掲書, pp. 33~39, 78.

147) 上掲書, pp. 33~39, 78.

148) 上掲書, pp. 33~39, 78.

149) 上掲書, pp. 33~39, 78.

150) 上掲書, pp. 33~39, 78.

151) 上掲書, pp. 33~39, 78.

152) 上掲書, pp. 33~39, 78.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の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の 원리를 무시한 채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 第四十一章 鼻痛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鼻者 屬之金方也. 白色入通於肺 寒氣開竅於鼻也. 又曰 肺之爲臟 其位高 其體脆 其性惡寒. 是故好色者 生瘡. 嗜酒者 準髓 得熱愈紅 傷寒多黑. 觸風寒者 鼻塞. 胃濕熱者 淵深. 以此 衄血而勞 傷寒肉壅者 失攝.

鼻塞者 肺寒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鼻衄者 小腸熱 前谷 內庭補小海 三里瀉
 鼻衄者 脾傷 少府 大都補大敦 隱白瀉
 鼻蕪者 肝傷 少海 曲泉補經渠 中封瀉
 鼻痔者 腎傷 經渠 復溜補太白 太谿瀉
 鼻壅者 三焦傷 臨泣 中渚補液門 俠谿瀉
 鼻涕者 臨泣 陷谷補解谿 陽谷瀉

41-1. 醫學正傳鼻病¹⁵³⁾

內經曰 西方白色 入通于肺 開竅于鼻 又曰 鼻者 肺之外候.

丹溪曰 肺之爲臟 其位高 其體脆 性惡寒 又惡熱 是故好飲熱酒者 始則傷于肺臟 鬱熱久則見于外而爲鼻衄準赤之候 得熱愈紅 得寒則黑 此謂熱極似水之象 亢則害承乃制也 其或觸冒風寒 始則傷于皮毛 而成鼻塞不通之候 或爲濁涕 或爲流清汁 久而不已 名曰鼻淵 此爲外寒束內熱之證也.

原病式曰 肺熱則出涕是也 又有膽移熱于腦 則爲辛額鼻淵 鼻中濁涕如涌泉下滲而下 久而不已 則爲鼻蕪 衄血 瘰肉 鼻癭等證 醫者宜各以類推而治之 無忽也.

42. 「經濟要訣」第四十二章. 血症

夫怒則形氣絕而血鬱於上 氣逆甚則吐血, 陽逆 喘咳·身熱·善驚·衄血 勝於膀胱, 臥血歸於肝絡 足得血而能步 手得血而能握. 又曰內則血 外則汗, 汗血安存 氣脈堅強, 汗血如運於其間 經絡并行於不悖 循環無端. 或太過而陽實 周流不息, 或不及而陰弱 知其百端者. 以此補而無瀉 溫而不涼.

吐血 肝驚陰谷補中封瀉三里迎

153) 虞搏, 醫學正傳 鼻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245.

衄血 通谷補行間瀉太衝正

損血陰谷 曲泉補 懸鐘瀉

瘀血太白 太淵補曲池瀉

咳血 肺傷 太白 太淵補

“氣逆甚則吐血”：「要覽」·「鍼經」·「鍼灸」·「資料」 등에서는 모두 “氣逆甚則吐血”이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形氣血氣逆甚之則吐血”이라 하여 “氣逆甚”을 “形氣絕而鬱氣以血逆甚之則吐血”이라 하여 “氣逆甚”을 “形氣節而鬱氣以血逆甚之”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血證」에서 “內經曰 大怒則形氣絕而血菀于上, 又曰 怒則氣逆 甚則吐血.”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氣逆甚”을 “形氣血氣逆甚之” “形氣節而鬱氣以血逆甚之”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氣逆甚則吐血”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陽逆 喘咳·身熱·善驚·衄血 勝於膀胱”：「要覽」에서는 “陽逆 喘嗽·身熱·善驚·衄血 勝於膀胱”이라 하여 ‘衄’을 “嗽”라 했고, 「鍼經」에서는 “陽逆 喘嗽·身熱·善驚·吐衄血 勝於膀胱”이라 하여 ‘咳’를 “嗽”라 하면서 ‘衄’을 추가했으며, 「鍼灸」에서는 “陽逆則喘咳·身熱·善驚·衄血 勝於膀胱”이라 하여 ‘則’을 추가했고, 「察病」에서는 “陽逆 喘嗽·身熱·善驚·衄血 勝於膀胱”이라 하여 ‘咳’를 “嗽”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陽明逆則喘咳 身熱則善驚衄 立則血臟於膀胱”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血證」에서 “內經曰……又曰 陽明逆逆 喘咳身熱 善驚 衄血”이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咳’를 “嗽”라 한 것과 ‘吐’ ‘則’을 추가한 것 등은 誤寫가 확실하고, 유독 「秘訣」만 “陽明逆則喘咳 身熱則善驚衄 立則血臟於膀胱”이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陽逆 喘咳·身熱·善驚·衄血 勝於膀胱”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臥血歸於肝絡”：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臥血歸於肝絡”이라 했으나, 유독 「秘訣」만 “臥則血歸於肝絡”이라 하여 ‘則’을 추가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血證」에서 “內經曰……又曰 臥則血歸肝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張”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足得血而能步” ‘手得血而能握’ 등과 六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則’을 추가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臥血歸於肝絡”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汗血安存”：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汗血安存”이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汗出血脈安存”이라 하여 ‘出’ ‘脈’을 추가했고, 「鍼經」에서는 “安存”이라 하여 ‘汗血’을 누락시켰다. 이것은 뒤의 “氣脈堅強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出’ ‘脈’을 추가한 것과 ‘汗血’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汗血安存”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汗血如運於其間 經絡并行於不悖 循環無端”：「要覽」에서는 “汗血如運於其間 經絡并行不悖 循環無端”이라 하여 뒤의 ‘於’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汗血如運於其則 經絡并行不悖 循環無端”이라 하여 ‘間’을 ‘則’이라 하면서 뒤의 ‘於’를 누락시켰으며, 「鍼灸」에서는 “汗血如運於其間 於經絡并行不悖 循環無端”이라 하여 뒤의 ‘於’를 ‘經絡’의 앞에 두면서 ‘環’을 “還”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汗血如運於其間 經絡并行於不悖 循環”이라 하여 ‘無端’을 누락시켰으며, 「秘訣」에서는 “汗血如運於其間 經絡并行於不悖 循環無端”이라 하여 ‘行’을 추가했다. “汗血如運於其間과 ‘經絡并行於不悖’가 七言節句로 對句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뒤의 ‘於’를 누락시킨 것과 ‘間’을 ‘則’ ‘環’을 “還”이라 한 것 및 ‘行’을 추가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고, ‘於’를 ‘經

絡'의 앞에 두거나 '不悖'의 앞에 두는 것은 해석이 어색하므로 '於'를 '而'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汗血如運於其間 經絡并行而不悖 循環無端"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或不及而陰弱 知其百端者" : 『要覽』·『秘訣』에서는 "或不及而陰弱 知其百端"이라 하여 '者'를 누락시켰고, 『鍼經』에서는 "或不及而陰 知其百端"이라 하여 '弱' '者'를 누락시켰으며 『鍼灸』·『察病』에서는 "或不及而陰弱 知其者百端"이라 하여 '者'를 '百端'의 앞에 두었다. 이것은 '或太過而陽實 周流不息'과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者'를 누락시킨 것은 적합하고, '弱'을 누락시킨 것과 '者'를 '百端'의 앞에 그대로 둔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或不及而陰弱 知其百端"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補而無瀉 溫而不涼"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補而無瀉 溫而不涼"이라 했으나, 유독 『鍼經』만 "補而無瀉 瀉而無涼"이라 하여 "溫而不涼"을 "瀉而無涼"이라 한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補而無瀉 溫而不涼"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吐血 肝驚 陰谷補 中封瀉 三里迎"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吐血 肝驚 陰谷補 中封瀉 三里迎"이라 했으나, 『鍼經』에서는 "吐血 肝驚 陽谷補 中封瀉 三里迎"이라 하여 '陰谷'을 "陽谷"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吐血 肝驚 陰谷補 中封瀉 三里斜"라 하여 '迎'을 "斜"라 했으며, 『察病』·『秘訣』에서는 "吐血 肝傷 陰谷補 中封瀉 三里迎"이라 하여 '驚'을 "傷"이라 했다. '陽谷補'는 胃正格 大腸勝格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여 "吐血 肝傷 中封瀉"라 한 것에 어긋나므로 誤寫가 확실하고, 유독 『鍼灸』만 "迎"을 "斜"라 한 것도 誤寫가 분명하며, '驚'을 "傷"이라 한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察病』·『秘訣』에서 "吐血 肝傷 陰谷補 中封瀉 三里迎"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衄血 通谷補 行間瀉 太衝正"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衄血 通谷補 行間瀉 太衝正"이라 했으나, 『要覽』·『資料』에서는 "衄血 通谷補 行間瀉"라 하여 "太衝正"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衄血 通谷補 行間瀉 太衝正"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損血 陰谷 曲泉補 懸鍾迎"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損血 陰谷 曲泉補 懸鍾迎"이라 했으나, 『察病』에서는 "損血 陰谷 曲泉補 懸鍾瀉"라 하여 "迎"을 "瀉"라 했고, 『秘訣』에서는 "損血 陰谷 曲泉補 絕骨瀉"라 하여 "懸鍾迎"을 "絕骨瀉"라 했다. 『靈樞·小鍼解』에서 "迎而奪之者 瀉也, 追而濟之者 補也."¹⁵⁴⁾라 한 것처럼 "迎"은 "瀉法"이고 "懸鍾"은 "絕骨穴"이므로,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별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損血 陰谷 曲泉補 懸鍾迎"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咳血 肺傷 太白 太淵補" : 오직 『要覽』만 『經濟要訣』과 동일했고, 『鍼經』·『鍼灸』·『察病』·『秘訣』 등에서는 "咳血 肺傷 太白 太淵補 少府 魚際瀉"라 하여 '少府 魚際瀉'를 추가했으며, 『資料』에서는 "咳血 太白 太淵補 少府 魚際瀉"라 하여 '肺傷'을 누락시키면서 '少府 魚際瀉'를 추가했다. 대부분이 '少府 魚際瀉'를 추가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고, 유독 『資料』만 '肺傷'을 누락시킨 것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咳血 肺傷 太白 太淵補 少府 魚際瀉"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咯血 腎傷 經渠 復溜補 三里瀉"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없었으나, 유독 『秘訣』만 이 부분을 추가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연구·고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154)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靈樞 小鍼解 第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72.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의 원리를 무시한 채 誤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筆寫本 '第四十二章 血症'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夫怒則形氣絕而血鬱於上 氣逆甚則吐血，陽逆 喘咳·身熱·善驚·衄血 勝於膀胱，臥血歸於肝絡 足得血而能步 手得血而能握。又曰內則血 外則汗，汗血安存 氣脈堅強，汗血如運於其間 經絡并行而不停 循環無端，或太過而陽實 周流不息，或不及而陰弱 知其百端，以此補而無瀉 溫而不涼。

- 吐血 肝傷陰谷補中封瀉三里迎
- 衄血 通谷補行間瀉太衝正
- 損血陰谷 曲泉補懸鍾迎
- 瘀血太白 太淵補曲池瀉
- 咳血 肺傷 太白 太淵補少府 魚際瀉
- (咯血 腎傷 經渠 復溜補三里瀉)

42-1. 醫學正傳血證¹⁵⁵⁾

內經曰 大怒則形氣絕而血菀于上 又曰 怒則氣逆 甚則吐血 又曰 陽明厥逆 喘咳身熱 善驚 衄嘔血 又曰 臥則血歸肝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43. 「經濟要訣」第四十三章. 痔漏

經曰 人血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脾胃 倉廩之司 五味之出，大腸 傳道之官 變化生。

治 脾俞³⁵⁵壯灸 胃俞³⁸⁶壯灸 大腸經 通谷瀉 腰眼穴 亥日亥時下

“人血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 : 다른 筆寫本에서는 모두 “人血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라 했으나, 「要覽」에서는 “人失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라 하여 ‘血’을 ‘失’이라 했고, 「鍼灸」에서는 “壺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라 하여 ‘人血’을 “壺” ‘癖’을 “癖”이라 했으며, 「秘訣」에서는 “人因以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라 하여 ‘血’을 “因以” ‘癖’을 “癖”이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痔漏」에서 “經曰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라 한 것을 인용했으므로,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癖爲痔”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脾胃 倉廩之司 五味之出 大腸 傳道之官 變化生” : 「要覽」에서는 “脾胃 倉廩之司 五味出焉 大腸 傳道之官 變化生焉”이라 하여 ‘之出’을 “出焉” ‘生’을 “生焉”이라 했고, 「鍼經」·「鍼灸」에서는 “脾胃 倉廩之司 五味出 大腸 傳道之官 變化生”이라 하여 ‘之出’을 “出”이라 했으며, 「資料」에서는 “脾胃 倉廩之司 五味出 大腸 傳道官

155) 虞博, 醫學正傳 血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247~248.

變化生'이라 하여 '之出'을 '出' '之官'을 '官'이라 했고, 『察病』에서는 "脾胃 倉廩之司 而五味出 大腸 傳道之官 而變化生"이라 하여 '而'를 추가하면서 '之'를 누락시켰고, 『秘訣』에서는 "脾胃 倉廩之司 五味之出 大腸 傳道之官 變化生"이라 하여 '道'를 "導"라 했다. 이 부분은 舍巖이 『醫學正傳·痔漏』에서 "經曰……又曰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이라 한 것을 인용하여 '脾胃 倉廩之司 五味出'과 '大腸 傳道之官 變化生'이 對句를 이루게 한 것이므로, '之出'을 '出焉' '生'을 '生焉' '之官'을 '官'이라 한 것과 '而'를 추가한 것 등은 誤寫가 분명하다. 그리고 '道'를 "導"라 한 것은 적합하지만 『素問·靈蘭秘典論』과 『醫學正傳·痔漏』에서 다 "傳道之官"이라 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脾胃 倉廩之司 五味出 大腸 傳道之官 變化生"이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治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經 通谷瀉 腰眼穴亥日亥時下" : 『要覽』에서는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經 通谷下瀉 腰眼穴亥日亥時下"라 하여 '治' '灸'를 누락시키면서 '下'를 추가했고, 『鍼經』·『鍼灸』에서는 "治則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經 通谷瀉 腰眼穴亥日亥時下"라 하여 '灸'를 누락시키면서 '則'을 추가했으며, 『資料』에서는 "治則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經 通谷下瀉 腰眼穴亥日亥時下"라 하여 '灸'를 누락시키면서 '則' '下'를 추가했고, 『察病』에서는 "治則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經補 通谷下瀉 腰眼穴亥日亥時下"라 하여 '灸'를 누락시키면서 '則' '補' '下' 등을 추가했으며, 『秘訣』에서는 "痔疾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俞補 通谷瀉 腰眼穴亥日亥時下灸每日10壯"이라 하여 '治'를 "痔疾" '386壯'을 "380壯" '經'을 "俞"라 하거나 '灸'를 누락 '灸每日10壯'을 추가했다. 대부분 "治則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經 通谷瀉 腰眼穴亥日亥時下"라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지만, "大腸經"이라 한 것은 '大腸俞'의 誤寫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治則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俞 通谷瀉 腰眼穴亥日亥時下"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글자체의 유사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筆寫한 것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진 사란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등의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舍巖鍼法』 筆寫本 第四十三章 痔漏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經曰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澀爲痔, 脾胃 倉廩之司 五味出, 大腸 傳道之官 變化生.
治則 脾俞355壯 胃俞386壯 大腸俞 通谷瀉 腰眼穴亥日亥時下

43-1. 素問靈蘭秘典論¹⁵⁶⁾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

43-2. 醫學正傳痔漏¹⁵⁷⁾

經曰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澀爲痔 又曰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

156)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素問 靈蘭秘典論 第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8.

157) 裘薄, 醫學正傳 痔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255.

IV. 結論

舍巖鍼法을 校訂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敎本이 될 만한 原文을 제시하기 위하여, 「鍼灸編」, 「五行鍼法書(舍巖鍼經)」, 「鍼灸要覽」, 「經濟要訣合本·舍岩鍼灸篇」, 「舍岩鍼法資料集」, 「舍巖五行鍼法秘訣」, 「察病要訣」 등 일곱 가지의 筆寫本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글자체의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동일함으로 인한 誤寫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함으로 인한 誤寫 접속사와 접미사를 누락시켰거나 첨가시킨 것 앞뒤 문장이 對句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誤寫한 것 提綱 부분과 辨證論治 부분이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誤寫한 것 舍巖鍼法의 원리를 무시한 채 누락시키거나 추가한 것 穴名의 異名을 誤認함으로 인한 誤寫 出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전 사람이 誤寫한 것을 그대로 筆寫한 것 舍巖鍼法의 變形을 고려하지 않고 自意的으로 修訂한 것 등이 있었다.

2. 「察病要訣」과 「舍巖五行鍼法秘訣」은 여러 곳에서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 두 筆寫本의 原本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3. 「鍼灸編」, 「五行鍼法書(舍巖鍼經)」, 「鍼灸要覽」, 「經濟要訣合本·舍岩鍼灸篇」, 「舍岩鍼法資料集」, 「舍巖五行鍼法秘訣」, 「察病要訣」 등 일곱 가지의 筆寫本을 비교·검토하여 내용의 일부를 修訂하는 방법으로 각 章의 마지막에 각 章 자체의 결론으로 삼았으며, 이로써 敎本이 될 만한 原文을 제시했다.

4. 「第四章 中暑」의 提綱에서 「于日中 勞役得之者 名曰中熱」을 추가하면서 辨證論治에서 「中熱者 胃虛 發燥惡熱 大渴引飲 此裏熱也 中衝補 曲澤瀉」를 추가한 것, 「第十五章 飢逆」의 辨證論治에서 「飢逆 木傷 陰谷 曲泉補 經渠 中封瀉」를 추가한 것, 「第二十一章 虛損」의 辨證論治에서 「勞苦 脾汗 少府 大都補 大敦 隱白瀉」를 추가한 것, 「第二十五章 眩暈」의 辨證論治에서 「火暈 三焦實 通谷 液門補 天井 支溝瀉」를 추가한 것, 「第二十六章 頭痛」의 辨證論治에서 「肩稜骨痛 通谷 液門補 臨泣 中渚 陽池瀉」를 추가한 것, 「第三十七章 目病」의 提綱에서 「能近視而遠暗 陽虛 遠視而近昧 陰虛」라 修訂하면서 辨證論治에서 「近視不明 經渠 復溜補 太白 太谿瀉」를 추가한 것, 「第四十章 齒痛」의 辨證論治에서 「風齒痛 三里 曲池補 陽谷 陽谿瀉」를 추가한 것, 「第四十二章」의 辨證論治에서 「咯血 腎傷 經渠 復溜補 三里瀉」를 추가한 것 등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任應秋 外,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2. 扁鵲原著 滑壽撰, 欽定四庫全書·難經本義 1卷, 北京, 商務印書館.
3. 高武, 鍼灸聚英,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0.
4. 張世賢註, 校正圖註難, 鴻寶齋書局.
5. 金達鎬, 舍岩鍼法の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研究, 釜山, 東義大學校 韓醫學碩士論文, 1993.
6. 舍岩原著, 朴采堂鍼鑑, 서울, 權寧俊教授 所藏.
7. 舍岩原著, 鍼灸編, 서울, 崔德植 院長 所藏.
8. 舍岩原著, 五行鍼法書(舍岩鍼經), 서울, 崔鎮昌 院長 所藏.
9. 舍岩原著, 鍼灸要覽, 부산, 申大澈 院長 所藏.
10. 舍岩原著, 經濟要訣合本 舍岩鍼灸篇, 大田, 李廷來 所藏.
11. 舍岩原著, 舍岩鍼法資料集, 서울, 慶熙大 韓醫科大學 第35期 卒業準備委員會, 1987.
12. 舍岩原著 李在元編, 舍岩五行鍼灸秘訣, 釜山, 金東匹 院長 所藏.
13. 舍岩原著, 察病要訣, 大邱, 鄭昊泳 所藏.
14. 洪鍾哲, 韓國醫學大系 第39卷 經絡學總論,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5. 南采祐, 青囊訣, 鍼灸要歌, 서울, 癸丑文化社, 1973.
16. 舍岩原著 李泰浩編著, 舍岩道人 鍼灸要訣, 서울, 杏林出版, 1989.
17. 黃廷學原著 鄭昊泳譯, 舍岩鍼灸正傳, 大邱, 先驅者出版社, 1986.
18. 趙世衡, 舍岩鍼法體系的研究, 서울, 成輔社, 1986.
19. 李廷來, 太韓醫學, 서울, 第一文化社, 1989.
20. 商務印書館 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4.
21.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漢韓大辭典, 서울, (주)동아출판사, 1994.
22. 許浚, 東醫寶鑑·風, 서울, 南山堂, 1976.
23. 金達鎬, 舍岩鍼法の 變形에 關한 研究, 부산, 東義大學校 韓醫學 博士課程 中間論文, 1996.
24. 許任, 韓國醫學大系 第38卷 許任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88.
25. 上海中醫學院編, 鍼灸學, 人民衛生出版社, 香港, 1974.
26. 李挺, 醫學入門 外感·傷寒論, 서울, 博文書館, 1935.
27. 虞搏, 醫學正傳 中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